

광역생활문화센터
현황 분석 및 정책제안에
관한 보고서



목 차

I. 개요	9
1.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내용 및 방법	11
II.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	13
1. 생활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14
2. 생활문화센터 기본 현황 분석	19
III. 생활문화 사업 현황 분석	25
1.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 현황	26
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사례 분석	36
3. 생활문화 사업 현황 및 시사점 분석	53
IV. 광역생활문화센터 사례 분석	61
1. 운영 사례 분석	62
- 부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2. 경기도 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분석	114
- 부천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3. 주요 정책 쟁점 제시	122
V.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123
1. 문제점과 개선과제	124
2. 개선방안	128
VI. 결론	137
1. 생활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138
2.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9
VII. 참고문헌	141
부록	145
1. 17개 광역시도 본부 및 팀 단위 업무분장 및 부서명칭 상세 분석자료	146
2. FGI 주요 내용 정리	150
3. 정책위원 자문회의 회의록	151

연구기획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책임연구	조 정 윤((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김 해 보((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 연구 선임위원)
공동연구 워킹그룹 (가나다순)	김 정(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김 진 환(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이 주 영(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임 은 옥(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장 정 아(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운영팀장) 태 지 윤(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장)
연구자문 (가나다순)	고 성 은(강원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구 혜 경(전북문화관광재단 정책연구팀장) 김 은 령(군포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김 지 원(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김 화 자(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팀장) 박 경 동(광주문화재단 지역콘텐츠팀장) 손 동 혁(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원 향 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임 혜 진(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센터 부장) 전 영 주(충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조 선 희(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 황 순 주(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연구보조	박 선 미(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석사과정)
연구지원	박 종 건((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기획운영팀)

표 목 차

[표 1] 생활문화 패러다임	14	[표 48] 연도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인천문화재단)	84
[표 2] 생활문화- 이론적 정의	15	[표 49]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현황 (인천문화재단)	85
[표 3] 생활문화- 법률적 정의	15	[표 50] 2019~2021 사업 운영예산 현황(인천문화재단)	85
[표 4] 지역문화-법률적 정의 (지역문화진흥원)	16	[표 51] 2019~2021 인천문화재단 예산 총칙	86
[표 5]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법률적 조례 -의무와 주체	16	[표 52] 2019~2021 인천문화재단 예산총칙에 따른 시민/생활문화 사업 현황	86
[표 6]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법률적 조례 -계획 수립과 시행	16	[표 53] 자체 기획 사업 사례 (인천문화재단)	87
[표 7]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법률적 조례 -기타	17	[표 54] 동아리지원 사업 사례 (인천문화재단)	88
[표 8] 생활문화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단체	17	[표 55] 네트워크 사업 사례 (인천문화재단)	88
[표 9]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18	[표 56] 기타 사례-생활문화축제 등 (인천문화재단)	89
[표 10] 생활문화 진흥 정책 (지역문화진흥원)	18	[표 57]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2021년 사업예산 현황	91
[표 11] 생활문화센터- 법률적 정의	19	[표 58] 인천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92
[표 12] 광역자치단체별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20	[표 59] 센터 연혁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93
[표 13] 생활문화 주관부서 유무 따른 분류	27	[표 60] 대관 운영 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94
[표 14] 생활문화 부서 있는 경우	28	[표 61] 공간별 면적 및 수용인원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95
[표 15] 생활문화 관련부서 있는 경우	30	[표 62] 평면도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95
[표 16] 생활문화 관련부서 없는 경우	32	[표 63] 전담 부서 및 운영인력 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96
[표 17] 광역문화재단 운영 생활문화센터 현황	34	[표 64] 연도별 운영예산 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96
[표 18] 생활문화정책 변화-1.0→2.0	36	[표 65]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96
[표 19] 생활문화 정책 추진방향의 변화	37	[표 66] 대관 운영 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97
[표 20] 전담 부서 및 운영인력 (서울문화재단)	38	[표 67] 연도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대구문화재단)	99
[표 21] 2019~2021 생활문화 사업 운영예산 (서울문화재단)	38	[표 68] 운영방식 (대구문화재단)	99
[표 22]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2017)	40	[표 69] 2019~2021 사업 운영예산 현황 (대구문화재단)	100
[표 23]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2018)	42	[표 70] 주요 사업 현황 (대구문화재단)	100
[표 24]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2019)	44	[표 71] 재단 연혁 (경기문화재단)	103
[표 25]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2020)	46	[표 72] 공간운영 현황 (경기문화재단)	104
[표 26]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구분 (서울문화재단)	49	[표 73] 평면도 (경기문화재단)	105
[표 27] 서울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현황	52	[표 74] 전담 부서 및 운영인력 현황 (경기문화재단)	106
[표 28]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영역 구분 (한광연 회원기관 일반현황 자료 중)	53	[표 75] 운영예산 현황 (경기문화재단, 최근 3년)	107
[표 29] 예산 비교를 위한 영역 구분 (한광연 회원기관 일반현황 자료 중)	53	[표 76] 자체기획 사업 사례 (경기문화재단)	107
[표 30] 지역문화재단 사업영역	54	[표 77] 대관/공간운영 사업 사례 (경기문화재단)	108
[표 31] 본부 단위 명칭에 사용된 문화정책 키워드	55	[표 78] 기타 사업 사례 (경기문화재단)	108
[표 32] 광역문화재단의 팀 단위 사업영역 구분	56	[표 79] 추진 체계별 역할	108
[표 33] 17개 광역시도의 본부 및 팀 단위의 업무분장 및 부서명칭 비교	57	[표 80] 2019~2021 주요 이슈 (경기문화재단)	109
[표 34] 정책기조에 대한 상징적 동조에 사용되는 키워드와 표현 가치	60	[표 81] 2017~2021 주요 사업 사례 (경기문화재단)	109
[표 35] 2013~2021 사업 운영방식 (부산문화재단)	63	[표 82] 경기도내 생활문화센터 현황	113
[표 36] 전담부서 및 운영인력 현황 (부산문화재단)	63	[표 83] 경기도 생활문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현황	114
[표 37] 2019~2021 사업 운영예산 현황 (부산문화재단)	64	[표 84] 2019~2021 운영예산 현황 (부천문화재단)	116
[표 38] 연도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부산문화재단)	64	[표 85] 2021 생활문화센터 대관 현황 (부천문화재단)	117
[표 39] 연도별 동아리 지원 주요내용 (부산문화재단)	65	[표 86] 2019~2021 운영예산 현황 (군포문화재단)	119
[표 40]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을 위한 월별 일정 (부산문화재단)	65	[표 87] 군포시생활문화센터 공간 관련 내용	119
[표 41] 생활문화연합회 운영형태 및 운영내용 (부산문화재단)	66	[표 88] 2022년 사업계획 (군포문화재단)	121
[표 42] 2014 날마다 생활문화 축제 관련 내용	68	[표 89] 생활문화 사업 관련 문제들	126
[표 43] 2013 자생적 문화예술 커뮤니티 실태조사 관련 결과	69	[표 90] 제기되는 문제들과 처방 위한 진단	126
[표 44] 부산 지역 생활문화센터 소개	76	[표 91] 비판적 실재론을 적용한 현상 인식	127
[표 45] 2020 생활문화 페어 주간 행사 “사우나” 관련 내용	78	[표 92] 매슬로우와 알더퍼의 이론상 욕구들	133
[표 46] 2021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지원 “사우나” 관련 내용	78	[표 93] 공공의 세 가지 정책적 역할	139
[표 47] 2021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자체 현안문제 분석	79		

그림 목 차

[그림 1] 생활문화 패러다임	14
[그림 2] 기존문화·생활문화 비교	15
[그림 3] 생활문화센터 전국 분포도	20
[그림 4] 생활문화센터-운영 유형 및 공간 형태	21
[그림 5] 생활문화센터 예산 평균 및 권역별 통계	21
[그림 6] 생활문화센터-운영 유형별 전체 예산 평균	22
[그림 7] 생활문화센터-평균 운영인력 및 계약별 통계	22
[그림 8] 생활문화센터-공간 유형별 보유 현황	23
[그림 9] 생활문화센터-기자재 보유 현황	23
[그림 10] 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 별 운영 현황	24
[그림 11] 생활문화 주관부서 유무 따른 분류	26
[그림 12] 제도화 외부 압력과 경영 효율화 내부 압력 사이의 절충	59
[그림 13] 생활문화동아리 누적 수	71
[그림 14] 부산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76
[그림 15] 광역생활문화센터 역할	82
[그림 16] 일본 도시재생 지원금의 악순환과 생활문화 공적지원 악순환 비교	124
[그림 17] 광역생활문화센터 역할 제안	128
[그림 18]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의체	129
[그림 19] 현재 문화정책의 4가지 핵심요소와 접근 프레임	132
[그림 20] 정책 언어와 사업브랜드 사이 인식의 갭	135

I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배경 및 목적

1) 연구내용

- 사) 한광연 지역문화정책연구소가 주도하는 데이터, 지역 현장에 기반한 연구조사 필요
- 광역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 데이터와 현황조사 부재로 인한 정책연구 필요
- 17개 회원사의 생활문화 사업과 광역생활문화센터 통계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한 관련 문화정책 제언 체계 구축 필요
- 광역문화재단 구성원의 정책연구·조사, 분석 능력 향상 및 타 사례 연구를 통한 사업운영의 질적 향상

2) 연구목적

-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 4개 광역생활문화센터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 분석, 성과 및 한계 점검, 운영 이슈 및 쟁점 도출, 향후 정책방향 제언
- 광역문화재단의 유사 타 사업(지역문화, 예술교육, 문화향유 사업 등)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한 사업 운영 방향성 제시
- 광역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향후 정책적 방향성 제시와 광역생활문화센터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공론화
- 경기도의 생활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의 지역 내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의 전략적 구축에 대한 방향성 제시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국가의 생활문화 지원정책 현황조사 및 분석
- 5개 광역문화재단(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의 생활문화 사업 및 광역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전수 조사
- 17개 광역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및 유사 타 사업 운영 현황 조사
- 경기도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초·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의 전략적 구축 제시
-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및 유사 타 사업 운영 전수 조사를 통한 광역문화재단 운영 생활문화정책 방향의 쟁점 분석
- 광역생활문화센터의 역할,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시

2) 연구방법

- 지역문화재단 문헌조사
 - 지역문화진흥원 발간 주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생활문화 사업 및 광역생활문화센터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각 재단별 관련 사업 보고서의 데이터 취합 및 분석을 통한 정책적 쟁점 제시
- 광역문화재단 실무 책임자 워킹 그룹 구성 및 전문가 자문,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 동 보고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 조사의 어려움과 이동, 모임 제한 등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연구 회의, FGI, 정책자문회의 등을 진행함
 - 5곳의 광역문화재단(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 생활문화 및 광역생활문화센터 실무 책임자 워킹 그룹 운영을 통한 현황 전수 조사 및 정책 이슈, 쟁점 사항 도출
 - 광역, 기초문화재단 실무 담당자 의견 청취조사를 통해 정책제언을 위한 의견 심층 분석
- 정책위원 중심의 실무 워킹 그룹 구성
- 공유 포럼 개최(12월 중)

3) 추진일정

추진내용	10월	11월	12월
· 추진계획 수립			
· 워킹그룹 구성			
· 선행연구 조사			
· 사례조사 및 분석(FGI 포함)			
· 전문가 자문			
·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 공유 포럼			
· 보완 및 보고서 제작			

Ⅱ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

- 1. 생활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 생활문화센터 기본 현황 분석



+



+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

1. 생활문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¹⁾

1) 생활문화 패러다임

[그림 1] 생활문화 패러다임



[표 1] 생활문화 패러다임

1	· 한국사회에서 문화는 서울 중심의 교양 있고 세련된 문화 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인식되었음
2	·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 를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남
3	· 더하여 일상에 대중문화·예술이 스며들게 따라 시민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증가함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추구하는 추세를 보임
4	· 시민들은 문화의 주체 로서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만드는 문화 생산자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음
5	· 개인의 삶과 연결된 가치로서 문화를 보는 시각이 전환되면서,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확산되게 됨. 이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문화정책으로 생활문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6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정기조로 '생활 속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과제가 발표되었고, 지역문화진흥법(2014.01.) 이 제정됨. 또한 현 정부 문화정책에서도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중요한 기조로 다루고 있음

1)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2018.의 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함

2) 생활문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표 2] 생활문화 - 이론적 정의

구분	주요내용
강운주(2012)	· 생활문화를 생활예술로서 접근하여, 공동체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감성적 역량을 발휘하는 행위로서 소개함
양건열(2014)	·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으로 정의함
조광호(2015)	· 일상성, 주체성, 다양성이 속성으로 나타나며, 창작, 참여, 교육이 활동으로 나타나는 문화
정광렬(2016)	· 지역 주민이 문화적 삶을 위해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활동
최혜자(2017)	· 기존에 바라보던 교양으로서 문화가 아니라 보편적 국민 주체가 가진 삶으로서 문화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2018, p.19.

- 생활문화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어서 집약된 개념으로 정립되기보다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고 있음
- 생활예술 개념에서 소통의 방식, 삶을 조직화하는 방식 등 생활문화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왔음
- 다음은 기존 문화의 협의적 요소와 대비되는 생활문화의 중요 요소임

[그림 2] 기존문화·생활 문화 비교

기존문화		생활문화
전문가 중심의 문화 및 예술	행위자	향유자인 시민 중심의 문화 및 예술
협회의 예술	장르	생활양식으로 확장
별도의 문화 수용 공간	공간	(생활권) 일상의 공간
수동적 수용	활동방식	능동적 참여

*출처: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생활문화 법률적 정의

[표 3] 생활문화 - 법률적 정의

구분	정의	비고
생활문화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

-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본격화되었음
- 이전에는 장르적 예술 개념의 문화예술진흥 또는 전문문화 기반 문화진흥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 프레임이 주도적이었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생활권 개념이 제기되면서 일상적이고 시민 주도적인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가 구체화된 것임
- 지역문화진흥법에 정의된 **생활문화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성, 일상성, 참여**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생활문화는 능동적 참여와 적극적 개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정책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4) 생활문화 지원의 법적 근거 분석(법률, 관련 조례)

▶ 지역문화진흥법

[표 4] 지역문화 - 법률적 정의 (지역문화진흥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서 생활문화는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음

[표 5]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법률적 조례 - 의무와 주체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1,2,4호 생략)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생활문화 지원주체는 크게 국가(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6]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법률적 조례 - 계획 수립과 시행

제6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가 지역문화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활문화 진흥정책은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에 포함됨
- 각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체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단위에서 생활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7]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법률적 조례 - 기타

제7조 (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이 밖에 제7조(생활문화 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서도 생활문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음

▶ 생활문화 관련 조례

[표 8] 생활문화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단체

관련 조례	구분	지자체 수	해당 지자체
생활문화진흥 (활성화) 조례	광역자치단체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18	부산 해운대구, 정읍시, 나주시, 부천시, 서울 관악구, 영광군, 서울 노원구, 용인시, 부산 연제구, 인천 서구, 하남시, 정선군, 영월군, 고양시, 신안군, 화성시, 수원시, 서울 강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조례	광역자치단체	1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41	부산 사하구, 인천 동구, 괴산군, 동해시, 성주군, 당진시, 포항시, 광주 광산구, 태안군, 대전 동구, 해남군, 화순군,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평택시, 경산시, 전주시, 음성군, 창원시, 군위군, 순천시, 부안군, 원주시, 대구 수성구, 화천군,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양평군, 광주 남구, 공주시, 과천시, 부산진구, 경주시, 정선군, 영월군, 대구 달성군, 보령시, 단양군, 군포시, 대구 달서구, 완도군

- 각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 또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등에 근거해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 및 기초 지자체에서 생활문화 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총 66곳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1년 11월 기준)

5) 생활문화 관련 지원정책 현황 검토

▶ 상위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표 9]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주체
지역문화 역량강화	생활문화 진흥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지역생활문화시설 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 문화센터 조성 확대 ·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 강화 및 프로그램 등 지원 · 문화동호회 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진흥원
		지역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	· 주민 주도 자생적 생활문화 형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 · 문화취약지역 주민참여형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 확대 · 생활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축제 개최	문체부 진흥원 지자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2018, pp.29-30. 표 재구성 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제1항에 따라 문체부가 수립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문화 진흥은 ‘지역문화 역량 강화’ 안에 포함되어 있음
- 문체부가 수립한 생활문화 진흥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과 ‘지역단위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 및 활동지원 강화’로 나누어짐

▶ 문체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 지원정책

[표 10] 생활문화 진흥 정책 (지역문화진흥원)

구분	해당 지자체
1.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컨설팅 지원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아카이빙
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사례 발굴 및 성과평가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 현 단계에서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은 주로 문체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생활문화 진흥 관련 사업들을 위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실행하고 있음

▶ 지역정책: 지자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문체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단위에서 생활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별로 생활문화시설 조성 지원, 운영활성화 지원, 공동체 지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역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생활문화가 포함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정례적으로 집계되는 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2. 생활문화센터 기본 현황 분석

1) 생활문화센터 정의

-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과 함께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²⁾
- 생활문화센터 관련 규정 : 생활문화시설 관련법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음

[표 11] 생활문화센터 - 법률적 정의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항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참조하여 조사

2) 생활문화센터 전국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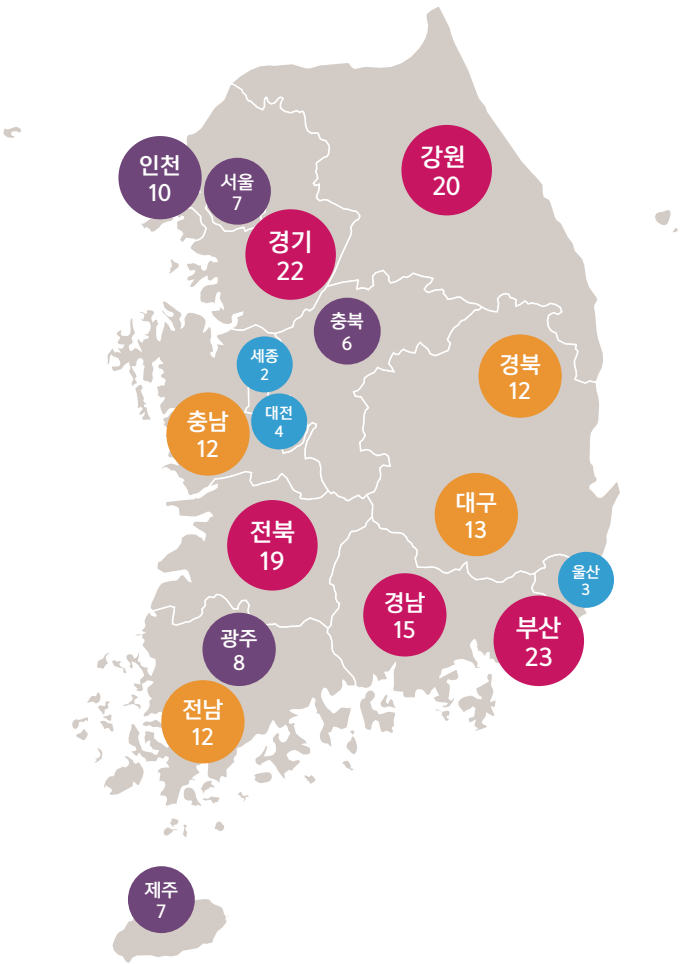
▶ 상위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대표적인 사업임
- 2014년 조성을 시작하여 2021년 11월 기준 전국에 총 195개소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있음
- 다음은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임³⁾

[표 12] 광역자치단체별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
7	23	10	13	8	4	3	2	15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강원	제주	
12	12	19	12	6	22	20	7	

[그림 3] 생활문화센터 전국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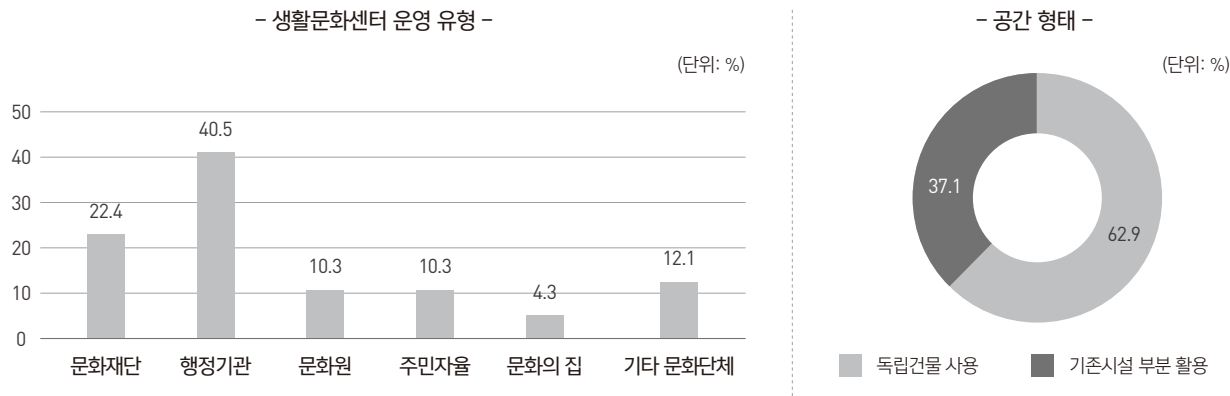


3) 생활문화센터의 수는 개소 예정 생활문화센터까지 포함한 수치임.

3)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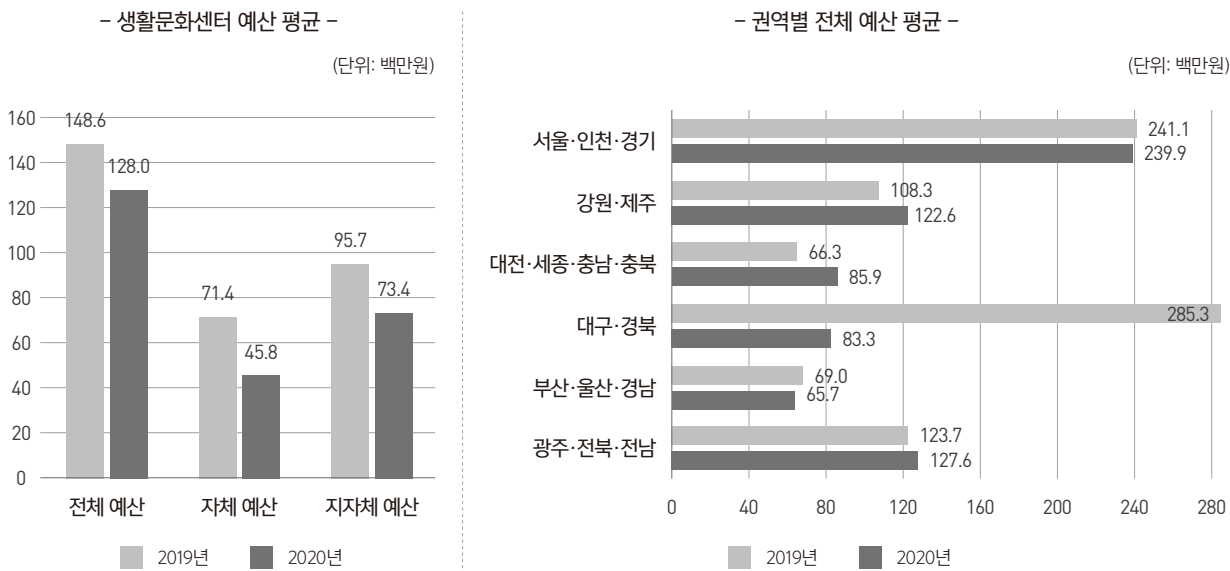
▶ 운영 유형 및 공간 형태

[그림 4] 생활문화센터 - 운영 유형 및 공간 형태



- 생활문화센터는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및 기타 문화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공간 형태는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62.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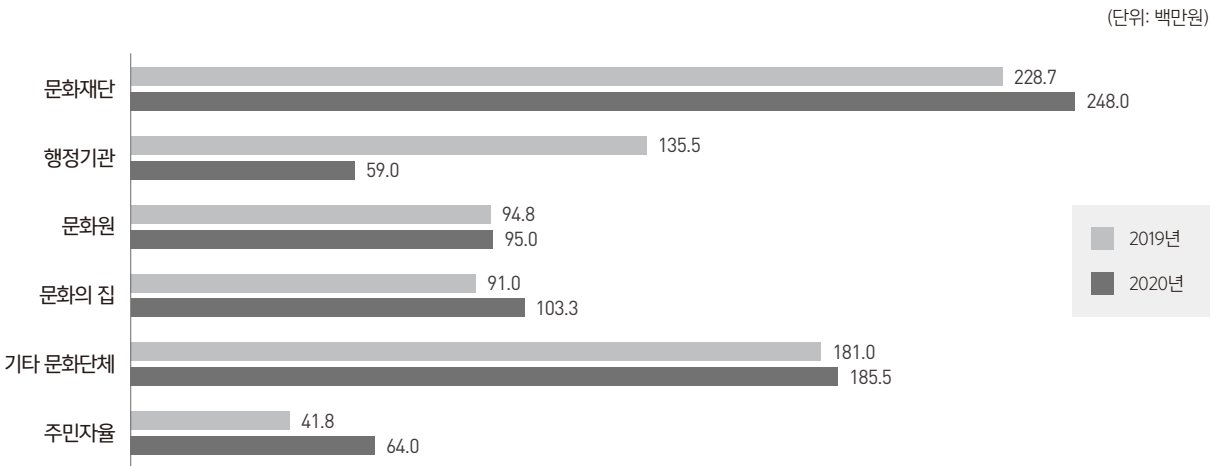
[그림 5] 생활문화센터 예산 평균 및 권역별 통계



4) 지역문화진흥원, 『2020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2020.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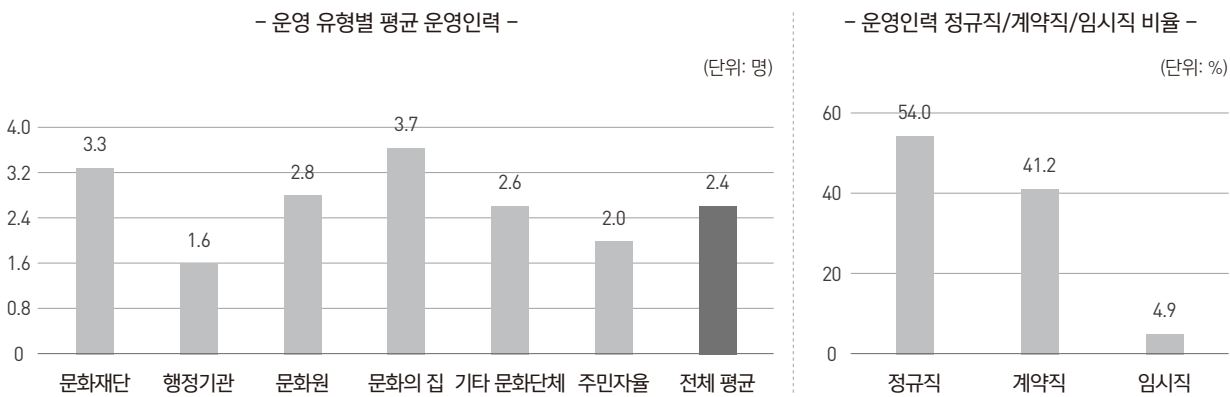
- 예산 규모 조사 결과, 전체 예산은 2019년 평균 148.6백만 원, 2020년 128.0백만 원으로 나타남
- 자체 예산은 2019년 평균 71.4백만 원, 2020년 45.8백만 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 예산은 2019년 평균 95.7백만 원, 2020년 73.4백만 원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로 인해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생활문화센터 - 운영 유형별 전체 예산 평균



- 운영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단 위탁운영 센터의 예산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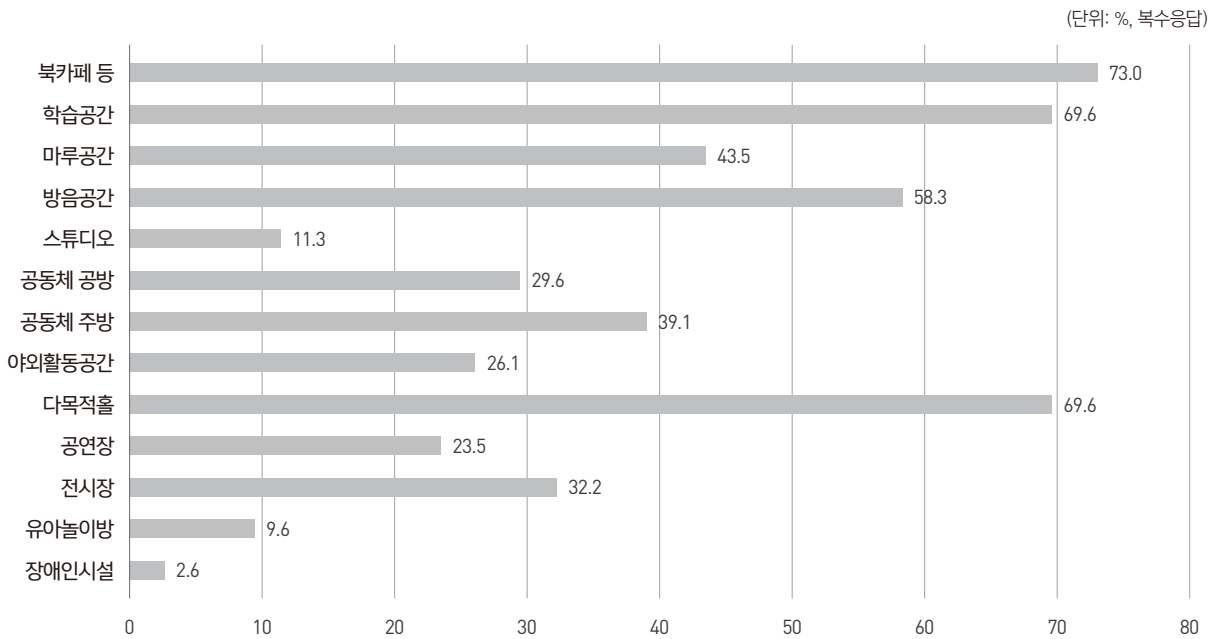
[그림 7] 생활문화센터 - 평균 운영인력 및 계약별 통계



- 평균 근무인력 수는 행정기관이 1.6명으로 가장 적고, 문화의집 위탁의 경우가 3.7명으로 가장 많음. 전체 평균으로는 시설당 2.4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인력을 정규직 여부로 살펴보면, 정규직 54.0%, 계약직 41.2%, 임시직 4.9%로 나타남

▶ 생활문화센터 내 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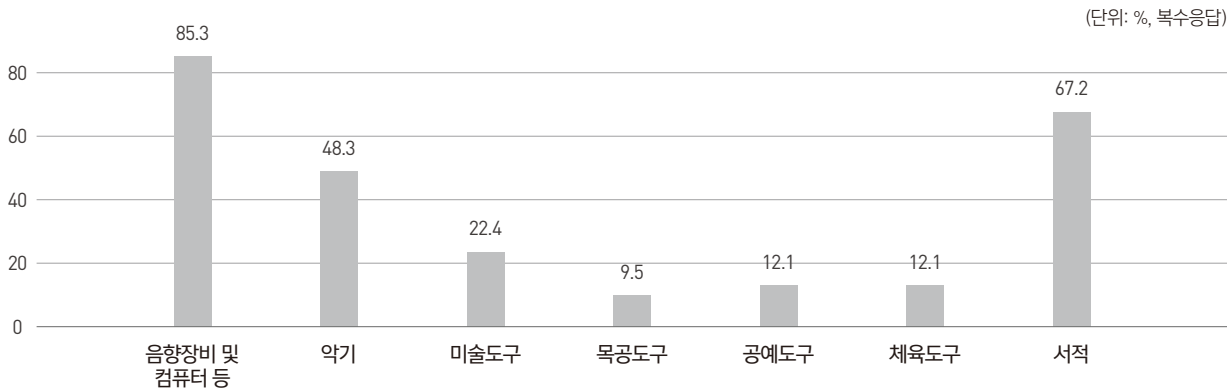
[그림 8] 생활문화센터 - 공간 유형별 보유 현황



- 공간 유형별 보유 현황으로는 '학습공간', '북카페 등(마주침공간)', '다목적홀'이 약 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방음공간', '마루공간', '공동체 주방'의 순으로 나타남

▶ 기자재 보유 현황

[그림 9] 생활문화센터 - 기자재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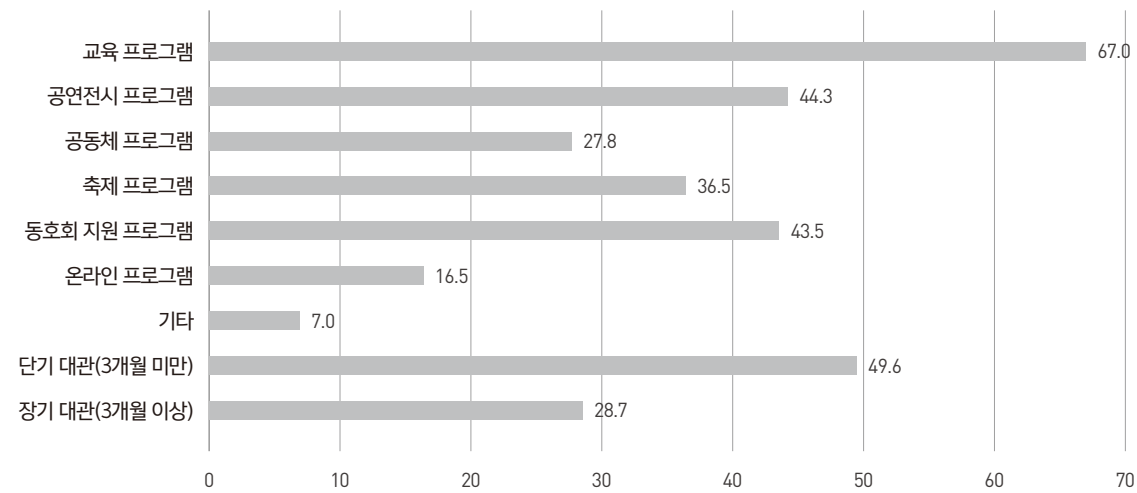


- 생활문화센터의 기자재 종류별 보유율은 '음향장비 및 컴퓨터 등'이 8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적', '악기'가 높게 나타남.
- '목공도구' 보유율은 9.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림 10] 생활문화센터 - 프로그램 별 운영 현황

(단위: %, 복수응답)



- 2020년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여부 파악 결과, '교육 프로그램'이 6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연전시 프로그램' 44.3%, '동호회 지원 프로그램' 43.5%의 순으로 나타남.
- 대관의 경우, 단기 대관 프로그램 49.6%, 장기 대관 28.7%로 나타남

Ⅲ

생활문화 사업 현황 분석

- 1.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 현황
- 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사례 분석
- 3. 생활문화 사업 현황 및 시사점 분석



생활문화 사업 현황 분석

1.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 현황

- 현재 17개 광역문화재단 중 생활문화 부서가 존재하는 곳은 6곳임. 그러나 6곳 이외의 재단에서도 시민문화, 지역문화 등의 이름으로 생활문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음. 또한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생활문화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본 보고서의 생활문화 사업 조사 범위는 각 재단의 생활문화 사업과 일상성, 시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타 부서의 사업을 포괄함
- 다만 문화 다양성 사업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제외함⁵⁾

1) 생활문화 주관부서 유무에 따른 분류

[그림 11] 생활문화 주관부서 유무 따른 분류



[표 13] 생활문화 주관부서 유무 따른 분류

구분	지역	생활문화 사업 주관부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여부
생활문화 부서 있음	서울문화재단	문화시민본부-생활문화팀, 지역문화팀	X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문화공유팀	O
	대구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생활문화센터운영팀	O
	충북문화재단	생활문화팀	X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생활문화팀, 경기생활문화센터	O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생활문화팀	X
관련 부서 있음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O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시민문화팀	X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생활문화TF	X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진흥본부-지역문화팀	X
	제주문화예술재단	일상문화팀	X
관련 부서 없음	광주문화재단	예술상상본부-문화사업팀	X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문화사업팀	X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본부-예술교육팀(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X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X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문화사업팀, 정책연구팀	X
	강원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창작지원팀, 문화접근성팀	X

5) 생활문화 부서 사업이라도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조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음

▶ 생활문화 부서 있는 경우

[표 14] 생활문화 부서 있는 경우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지역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서		· 문화예술본부 - 생활문화팀, 경기생활문화센터	· 문화시민본부 - 생활문화팀, 지역문화팀	· 생활문화본부 - 문화공유팀
운영 인력		· 팀장 1명, 선임 1명, 주임 3명, 담당 12명	<생활문화팀> · 팀장 1명, 과장 1명, 대리 2명, 주임 7명 <지역문화팀> · 팀장 1명, 대리 1명	· 팀장 1명, 팀원 4명 (생활문화 사업 관련 담당자는 1명) 생활문화센터 운영 팀원 4명
사업비 예산	2020	· 1,500,000 ⁶⁾	· 2,925,000(생활문화활성화)	· 1,160,000 - 생활문화활성화 656,000+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504,000
	2021	· 1,360,000 - 자체기획사업 800,000+ 대관및공간운영 360,000+ 예술동호회지원 200,000	· 2,570,000(생활문화활성화)	· 115,600,000 - 생활문화활성화 656,000+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500,000
사업 프로그램		<생활문화> · 생활문화 활동지원 · 생활문화 동호회 연계 활동 지원 · 지역 장인 발굴 프로젝트 지원 ·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 경기생활문화센터 운영 · 경기문화나눔센터 운영	<시민문화>-생활문화, 지역문화 ·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도서관에 가면 OO도 있고' · 생활밀착 문화예술 활동지원 '생활을 바꾸는 예술' · 일상문화 탐색지원 '일상문화[BLANK]' · 생활문화 정책연구 '생활문화 연구자 네트워크'	<생활문화> ·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경비 지원 · 생활문화연합회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부산 생활문화 페어 개최 · 생활 인문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센터 사업> · 한성1918 공간대관 운영 · 부산의 생활문화 정보를 담은 로컬 매거진 '브로컬리' 발간 · 지역 수요를 반영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지역		대구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부서		· 시민문화본부 - 생활문화센터 운영팀	· 예술사업본부 - 생활문화팀	· 생활문화팀
운영 인력		· 팀장 1명, 팀원 6명	<생활문화팀> · 팀장 1명, 과장 1명, 주임 2명 <축제문화팀> · 대리 1명 <대중문화진흥팀> · 대리 2명	· 팀장 1명, 과장 1명, 주임 1명, 사원 4명
사업비 예산	2020	· 747,500 - 대구생활문화제 100,000+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157,500+ 우수프로그램 공연전시지원사업 190,000+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 300,000	· 323,000+α - 예술동아리교육지원100,000+ 시민과함께하는세종컬처로드118,000+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운영25,000+ 금강청소년버스킹 페스티벌80,000+ 누리락밴드(알 수 없음)	· 900,000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활성화지원 사업 860,000+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40,000
	2021	· 572,500 - 대구생활문화제 90,000+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112,500+ 우수프로그램공연전시지원사업 90,000+ 예술동아리교육지원 사업 280,000	· 405,000+α - 생활문화예술동아리지원100,000+ 상생형문화거리 시범사업200,000+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25,000+ 금강청소년버스킹 페스티벌80,000+ 누리락밴드(알 수 없음)	· 740,000+α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620,000+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알 수 없음)+ 콘텐츠 누리터 유지 강화 120,000
사업 프로그램		<생활문화> ·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 1)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2)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 시민갤러리 운영사업 + 생동버스킹 · 대구생활문화제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 · 생활문화 활성화지원 · 상생형 문화거리 <문화향유> ·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 ·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 <대중음악> · 누리락밴드: 지역 내 대중음악분야 생활예술인 양성	<생활문화향유> · 예술동호회활동 지원사업 · 콘텐츠 누리터 운영강화사업 -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의 활동 활성화

6) 경기문화재단 2020/2021 종합경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서 각 사업별 예산을 알 수 없었음. 이에 본 보고서 IV장 경기문화재단 자료의 수치로 같음함

▶ 생활문화 관련부서 있는 경우

[표 15] 생활문화 관련부서 있는 경우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지역		인천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부서		· 시민문화부	· 문화예술본부-시민문화팀	· 지역문화팀
운영 인력		·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1명, 대리 4명, 주임 4명	· 팀장 1명, 팀원 3명	· 생활문화TF팀장 1명 ⁷⁾
사업비 예산	2020	· 1,089,780 - 시민문화지원999,780 +인천생활문화센터 운영 90,000	· 1,280,000 - 들썹들썹 인(人) 대전380,000+ 생활문화활동(공동체)지원250,000+ 대전마을합창단 지원 400,000+ 생활문화축제50,000+ 예술동호회활동지원 200,000	· 450,000 - 생활문화활성화기반조성 250,000+ 예술동호회활동지원 200,000
	2021	· 998,000 - 시민문화지원948,000+ 인천생활문화센터운영 50,000	· 1,275,000 - 들썹들썹 인(人) 대전380,000+ 생활문화활동(공동체)지원250,000+ 대전마을합창단 지원 400,000+ 생활문화축제45,000+ 예술동호회활동지원 200,000	· 450,000 - 생활문화활성화기반조성 250,000+ 예술동호회활동지원 200,000
사업 프로그램		<시민문화기획지원> · 시민문화활동지원 · 생활문화지원 ·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 · 인천왈츠 · 우주인프로젝트 ·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 모임방, 연습실 등 대관 및 자료실 운영 · 생활문화센터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지원> · 들썹들썹 인(人) 대전 · 생활문화활동(공동체) 지원 ·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 대전마을합창단 지원 · 생활문화축제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울산 생활문화 열린마당, 제4회 울산광역시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등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 교육지원 프로그램 - 자율기획형 프로젝트 지원 - 협업프로젝트 활동 지원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지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부서		· 문화진흥본부-지역문화팀	· 일상문화팀
운영 인력		<지역문화팀> · 차장 1명, 대리1명, 주임 1명	· 팀장 1명 주임 3명
사업비 예산	2020	· 370,000 - 문화우물사업 300,000+ 생활문화 활성화지원 70,000	· 425,000 - 생활문화예술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2021	· 470,000 -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200,000+ 문화우물 사업 270,000	· 615,000 - 생활문화예술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415,000+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200,000
사업 프로그램		<지역문화>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 문화우물사업	<지역문화>-생활문화예술 기반 확대 · 생활문화예술 참여·향유 활동지원사업 - 동호회 창작 활동 및 발표 지원 (정기공연, 정기전시회 등) - 지역 주민과 연계한 생활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 지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예술강사 강사비 지원 ·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7) 2022년 1월 기준, 해당 TF 해체되고 담당 인력 부재한 상황으로 추정됨

▶ 생활문화 관련부서 없는 경우

[표 16] 생활문화 관련부서 없는 경우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지역		광주문화재단 ⁸⁾	경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부서		· 예술상상본부 - 문화사업팀	· 문화예술본부 - 문화사업팀	· 문예진흥본부-예술교육팀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인력		· 대리 1명, 연구원 1명	· 주임 1명	· 주임 1명
사업비 예산	2020	· 800,000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사업 550,000+ 광주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 250,000	· 알 수 없음	· 560,000 - 생활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 360,000+ 예술동아리교육지원 200,000
	2021	· 790,000 -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지원사업 550,000+ 광주예술동호회활동지원사업 240,000	· 150,000 ⁹⁾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 200,000 -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¹⁰⁾
사업 프로그램		<예술지원> · 생활문화예술활동 단체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사업>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예술지원>-지역주민 대상 ·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 충남생활문화축제 개최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 예술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 네트워크 지원 -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지역		전남문화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부서		· 문화사업팀 · 문화예술교육팀	· 문화예술진흥본부 - 문화사업팀, 정책연구팀	· 문화사업본부 - 창작지원팀, 문화접근성팀
운영 인력		<문화사업팀> · 대리 1명 <문화예술교육팀> · 대리 1명, 주임 2명	<문화사업팀> · 주임 2명 <정책연구팀> · 대리 1명	<창작지원팀> · 대리 1명 <문화접근성팀> · 주임 1명
사업비 예산	2020	· 660,000 - 행복전남 문화지소 400,000+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사업 200,000 ¹¹⁾ +세시풍속·마을문화 지원사업 60,000	· 220,000 - 도민 지역문화정책발굴단20,000+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 200,000	· 100,000 - 생활예술지원
	2021	· 260,000+α - 우리마을 아트페스티벌 ¹²⁾ (알 수 없음)+예술동호회활동지원 200,000+세시풍속·마을문화 지원사업 60,000	· 200,000 - 도민 지역문화정책발굴단+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200,000	· 300,000 - 생활예술지원 100,000+ 기반조성 지원사업 200,000
사업 프로그램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지역문화 예술특성화지원 사업> · 우리마을 아트 페스티벌 <문화예술 교육사업> · 행복전남 문화지소 ·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기타시책사업> · 세시풍속·마을문화 지원사업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사업카테고리에는 없으나 2021년 경영계획에는 있음) <정책연구> · JB도민 지역문화정책발굴단	<문화예술진흥지원> · 생활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 기반조성 지원사업 (우리동네 흥반장, 우리동네 사랑방)

8) 시민문화 카테고리 내 사업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것으로 생활문화 개념은 포함되지 않음
9) 경북문화재단, '2021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주관 기관 공모' 공고문의 총 지원규모에 기반한 금액임. 2021년 예산현황 자료 내 전(全)사업비용 예산액 합계만 있음
10) 2021년 충남문화재단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의 사업비로 20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충남문화재단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 및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모두 분예산 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11) 2021년 전남문화재단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비로 20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전남문화재단 2020년 일반예산에 해당 사업 없음
12)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묶여있어 개별 사업비 알 수 없음

2) 광역생활문화센터 현황

• 현재 17개 광역문화재단 중 생활문화센터를 운영 중인 곳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4 곳임

[표 17] 광역문화재단 운영 생활문화센터 현황

주관기관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기 관 명		대구생활문화센터	칠동마당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탁방식		· 대구시 공모	· 인천문화재단 직영 운영
최초착수		· 대구문화재단 운영	· 인천문화재단 운영
예산 규모 (21년 기준)	수입	· 518,000천원	· 50,000천원(대관 및 기타 수입 제외)
	지출	· 총 518,000천원 · 인건비 : 201,500천원(팀원 7명) · 시설용역비 : 147,000천원 · 기타운영비 : 69,500천원 · 사업비 : 100,000천원	· 총 50,000천원 · 인건비 : 2,000천원(기간제 1명) · 시설용역비 : 31,000천원 · 기타운영비 : 17,000천원
주요 사업	대관	· 화~일 : 10:00~25:00 - 회당 3시간 단위, 1일 4회 대관 - 10:00, 14:00, 18:00, 22:00 · 휴관일 : 월, 공휴일	· 월~일 : 10:00~22:00 - 10:00~14:00, 14:00~18:00, 18:00~22:00 - 휴관일 : 설날, 추석 - 매달 첫째주 화요일 시설 점검 - 이외 법정 공휴일 운영
	프로그램	· 기획사업 - 시민주도 프로젝트 주문제작소 - 활동지원 프로그램 생활문화 SOS	· 기획사업 : 없음
시설	규모	· 3,249.1㎡/982.85평	· 839㎡/255.1평
	구성	· 1개동(지하 1층, 지상 3층) · 공간구성 : 스튜디오, 전시실, 공연장, 동아리실 등	· 2개동(지상 2층) · A동 1층 : 이음마당, 갤러리디딤 · A동 2층 : 마루공간, 학습공간 · H동 1층 : 자료실 · H동 2층 : 다목적홀, 공동체부엌
인력 현황	재단 인력	<시민문화본부 운영> · 센터장 1명 · 팀장 1명 · 팀원 5명	<시민문화부 운영> · 시민문화부장 1명 · 팀원 1명(정규직 1명)
	운영 인력	· 시설관리 : 1명 · 경비(야간) : 1명(심야 대관, 시설관리, 보안 포함) · 청소 : 2명	· 시설 상주 : 2명(24시간, 2교대) · 청소 : 1명 · 재단에서 인력 배치

주관기관		부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기 관 명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경기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팀(경기상상캠퍼스+경기생활문화센터)
근거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수탁방식		· 부산광역시 위탁	· 경기도 대행위탁 및 자체 운영
최초착수		· 2018.04.13.	· 경기도 대행위탁
예산 규모 (21년 기준)	수입	· 연습실 대관수입 : 2,580,000원	· 100,000천원(입주단체 및 교육, 대관 수입)
	지출	· 총 475,000,000원 · 사업비 : 254,454,200원 · 인건비 : 41,893,050원 · 운영경비 : 123,998,630원	· 총 1,240,000천원 · 인건비 : 180,000천원(팀원 4명) (경기상상캠퍼스 예산으로 운영) · 시설용역비 : 경기문화재단 예산으로 운영 · 사업비 : 1,060,000천원
주요 사업	대관	· 화~토 : 9:00~22:00 / 일: 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공휴일	· 화~일 : 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 이외 법정 공휴일 운영
	프로그램	· 센터 자체 기획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 강좌 및 교류 프로그램 · 생활문화 뉴스레터 브로컬리 - 생활문화 관련 동향과 정보 아카이빙 ·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센터 공간 특화 프로그램 · 아트라운지 기획전시 - 생활문화 프로그램 연계 기획 및 대관전시 ·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간담회 및 프로그램 운영	· 경기생활문화센터 사업 - 공모사업(경기생활문화플랫폼, 동호회연계 활동, 지역장인발굴프로젝트, 생활문화축제) - 기획사업(생활문화 디자이너(활동가) 학교 운영) - 교류사업(경기도 생활문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규모	· 652.46㎡	· 2,997㎡/906.59평
	구성	· 1개동(지상 3층) · 1층 : 청자홀(다목적 공간), 한성갤러리 · 2층 : 교육실, 커뮤니티룸, 공방, 휴게정원 · 3층 : 마루방, 음악실, 공유식당, 옥상정원	· 1개동(지상 2층) · 1층 : 마주침공간, 동네부엌, 책마루 · 2층 : 학습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 3층 : 생활창작공방(교육 및 공간 운영) · 별관 : 상상실험실(메이커스 교육 및 공간 운영 (교육 프로그램 -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운영)
인력 현황	재단 인력	<문화공유팀 운영> · 생활문화본부장 1명 · 문화공유팀장 1명 · 팀원 5명(정규인력 2명, 기간제 3명) ※현재는 정규인력 1명 근무중	<생활문화팀 운영> · 문화예술본부장 1명 · 생활문화팀장 1명 · 센터장(팀원) 1명 · 팀원 11명(경기상상캠퍼스 정규직 2명, 계약직 5명/경기생활문화센터 계약직4명)
	운영 인력	-	· 경기상상캠퍼스 7개동 미화, 시설, 조경 13명 내외 · 상상캠퍼스 전체 관리

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사례 분석

1) 사업배경 및 경과

▶ 사업배경(근거, 조례, 정관 등등)

- (2003.07.)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업무) 제5항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 (2014.0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8조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2016.06.)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 (2016.08.)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 (2016.12.)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
- (2017.01.)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 사업경과(연혁 위주)

- 생활문화정책 주요 변화(1.0→2.0)

[표 18] 생활문화정책 변화 - 1.0 → 2.0

생활문화 1.0	생활문화 2.0
<div>· 아마추어 시민의 직접 예술활동 (예술활동 관심자 → 동아리활동가 → 생활예술인)</div> <div>· ‘장르’중심 축으로, 생활예술 동아리 발굴을 통한 활동 조직화에 집중</div> <div>· 하향식 사업설계로 자치구 자율성 낮음</div>	<div>· 시민 개개인이 문화적인 삶의 주체 (시민 문화권에 기초하여 스스로 만드는 생활문화)</div> <div>· ‘지역’중심 축으로 일상에 접근, 특정장르가 아닌 시민의 생활 속 문화활동 전반으로 확장</div> <div>· 상향식 사업설계로 자치구 자율성 높임</div>

구분		생활문화정책 1.0			생활문화정책 2.0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형	지역	생활문화 거버넌스25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지원(생활문화 거버넌스25) ※ 서울시에서 자치구 직접 지원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구 거버넌스25+ 생활문화 활동가+ 생활문화공간지원)
	주체	생활예술 매개자(FA) : 지역매개자			생활문화활동가	
	공간	생활문화지원센터조성지원			생활문화공간지원	
	공간	-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교육(도서관)		일몰	
	지역 장르	-	자치구 생활합창 활성화		일몰	
광역형	장르 축제	서울 국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서울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잠정중단
		생활예술댄스활성화 사업/페스티벌	생활예술춤활성화 사업/위댄스	생활예술 춤 활동기반 조성사업 위댄스 페스티벌		잠정중단
	일상 예술	생활문화 주간 (아티팟 카니발)	일상예술 활성화 (개인/해커톤)	생활예술인페어	일상문화 탐색지원	일상문화 탐색지원
				생활예술 소모임		
			동아리 네트워크 (페어, 게더링)	동아리 네트워크 (워크숍,교류,페스타)	일상예술 역량강화	
	기반	생활문화캠페인 / 연구·조사 / 플랫폼(www.artandlife.kr)				
	공간	-				
주체	생활예술 매개자(FA) : 장르매개자			-	생활을 바꾸는 예술	

▶ 정책 추진방향의 변화

[표 19] 생활문화 정책 추진방향의 변화

동아리 지원중심의 기반조성(2017~2018)	시민의 자발적 예술활동 지원(2019)	생활문화 영역확대 및 코로나 전환(2020)	자치구 자율확대 및 실험기능강화(2021)
<div>·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정</div> <div>· 1기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운영</div> <div>· 시작단계 동아리 활동지원</div> <div>· 생활문화매개자 양성</div> <div>· 축제 개최 (오케스트라, 댄스)</div>	<div>· 동아리지원 체계화</div> <div>· 생활문화매개자 역량강화 교육 다양화</div> <div>· 개인 생활예술지원 확대, 시민참여 다각화</div> <div>· 2기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운영</div> <div>· 장르축제 계속</div>	<div>· 자치구 자율성 확대 (동아리수 평가지표 삭제, 매뉴얼화 지양)</div> <div>· 공공 거점공간 중심 지원 전환</div> <div>· 장르축제 중요성 감소 워크숍형 축제 전환</div> <div>· 개인 취향예술 확대</div>	<div>· 대규모·경연대회형 사업 중단</div> <div>· 자치구가 접근하기 힘든 실험형 생활문화 사업 시도 (사회문제해결)</div> <div>· 취향 외에도 생활, 라이프스타일 관련 주제 포괄(일상문화탐색)</div>

2) 사업 운영 조직

▶ 운영방식: 출연예산으로 재단 직접 추진

▶ 전담부서 및 운영인력 현황

[표 20] 전담 부서 및 운영인력 (서울문화재단)

구분	2017.3	2018.1	2019.1	2020.1	2021.1
전담부서	[생활문화지원단] 생활문화 사업팀 생활문화교류팀	[생활문화지원단] 생활문화 사업팀	지역문화본부 생활문화팀	문화시민본부 생활문화팀	문화시민본부 ¹³⁾ 생활문화팀(서울전체) 지역문화팀(25개구) ¹⁴⁾
운영인력	팀장 2명 팀원 2명	팀장 1명 팀원 10명	팀장 1명 팀원 7명	팀장 1명 팀원 6명	팀장 2명 팀원 9명

3) 사업 예산 현황¹⁵⁾

• 예산(억) : '17년(65.4) → '18년(38.5) → '19년(39.5) → '20년(31) → '21년(25.7)

• 최근 3년간 사업 운영예산 현황

[표 21] 2019~2021 생활문화 사업 운영예산 (서울문화재단)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재단 총 사업비	50,057	57,406	58,762
비율(사업/총사업)	7.89%	5.40%	4.37%
사업 운영 예산	3,950	3,100	2,570
· 생활문화활성화	3,100	2,350	2,170
· 생활문화인력양성	850	750	400

13) 2021년 생활문화팀 정원 11명 중 생활문화 외(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제외 후, 팀장 1명 팀원 7명

14) 2021년 지역문화팀 정원 7명 중 생활문화 외(지역문화 등) 사업 제외 후, 팀장 1명, 팀원 2명

15) 생활문화 사업비 내에는 인건비 등이 편성되지 않아서 하위 세부 항목을 삭제

4) 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¹⁶⁾

▶ 동아리지원 사업(※서울은 25개 자치구와 협력 방식으로 지원)

-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구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 2017~2020 / 2021
 - : 2017~2020년까지 각 자치구를 기반으로 조직화된 동아리를 발굴해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연계·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2017년에는 서울문화재단이 25개구에 예산을 직접 지원했던 반면, 2018~2020년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문화재단은 컨설팅·평가 운영 및 생활문화활동가(구 매개자) 선발·배치 등의 역할을 맡아 운영함
 - : 2021년은 이전 3년간 서울시-서울문화재단-자치구(또는 문화재단) 간의 거버넌스 운영방식과, 자치구 단위 사업비-인력(활동가)-공간에 대한 분절적 구조를 25개 자치구의 자율적 기획 바탕의 생활문화 영역 간 통합형 지원으로 개편해 추진함

▶ 자체 기획 사업

- 일상문화 탐색지원
 - 2020 / 2021
 - : 2020년에 신설된 일상문화 탐색지원원은 '취미, 취향예술 등' 장르 중심의 생활예술보다 확장된 일상성을 강화한 문화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30일 프로젝트' 등의 방식으로 일상 탐색형 온라인 학습모임을 지원
 - : 2021년은 기존 장르예술에서 취향예술까지의 범주 확장 차원을 넘어선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수렴할 수 있는 다변화된 문화활동 발굴을 위해 시민이 스스로 기획해 제안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자기주도형 생활문화 프로젝트'로 보다 폭넓은 형태의 활동을 지원함

▶ 네트워크 사업

- 일상예술 역량강화(구 동아리 네트워크)
 - 2018~2019 / 2020
 - : 2018~2019년까지는 생활예술동아리의 자발적인 네트워킹 모임 활동에 대한 간접지원 프로그램 운영('18년 게더링프로그램 : 동아리페스타-결과발표, 동아리메이트-교육 / '19년 게더링프로그램 및 아마추어페어)
 - : 2020년은 예술동아리 위주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생활예술인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모여, '자발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문가 멘토링·교육' 중심 지원으로 전환

▶ 생활문화축제 등

- 서울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 2017~2020
 - : 우수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를 선발,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서울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및 찾아가는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운영('19년 이후부터 국제 부문 제외, '국내'로 한정하여 운영)
 - :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축제 행사 잠정 중단

16) 대표사업, 2년 이상 지속된 사업 중심으로 기재

• 생활예술 춤 활동기반 조성사업 및 위댄스페스티벌

- 2017~2020
- : 생활예술 춤 축제 개최를 통한 일상 속 춤 문화 확산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부문(위댄스캠프)'과 '개인 부문(위무브)' 두 축으로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아우르는 춤 네트워크 기반 대형 페스티벌 운영(초기 3년 '17~19년은 서울춤자랑(40대이상 실버 동호회), 세계거리춤축제(해외 춤장르) 등 위댄스 내 세부구성이 소폭 차이가 있음)
- :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축제 행사 잠정 중단

5) 연도별 주요 운영 성과

▶ 2017년

- 생활문화 사업의 원년으로 성공적인 안착
 - 장르별 모델, 지역별 모델 등을 통한 활동 지원,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한 공간 지원, 캠페인/페스티벌/연구 등을 통한 기반 조성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서울의 생활문화 사업 플랫폼으로서의 성공적인 안착
- 지역기반의 자치구 및 장르별 생활예술동아리 네트워크 토대 마련
 - 생활문화거버넌스25 사업을 통해 1,943개의 동아리 발굴 및 570개의 네트워크 형성
 - 댄스, 오케스트라, 일반장르, 일상예술 등 축제를 통한 시민주도의 동아리네트워크 활성화
- 민관협력생활문화 협치시스템 구축
 - 생활예술 활동의 자발성과 자생성을 확보를 위한 자치구·생활예술매개자(FA)·생활예술동아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세부사업별 성과 요약

[표 22]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2017)

생활문화 거버넌스25	<div>· 자치구 기반의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생활예술매개자(FA)-생활예술동아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 공모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18개 자치구 선정 및 지원- 지역축제 등 참여 동아리 인원 : 약 1200여명- 자치구 간 연간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 운영</div> <div>· 18개 자치구 생활예술동아리 현황 파악 및 그루넷 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예술동아리 조사탐색 1,943개, 그루넷 570개 구성-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 진행: 매월 자문회의(총 7회), 컨설팅 (총 108회), 통합워크숍(총 6회) 등 운영</div>
생활문화 지원센터	<div>· 생활문화활성화 인프라 확충<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지원센터 50개소 선정(생활권형 7개소, 디딤형 43개소)</div> <div>·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지원센터 개소식 지원- 사업선정자 대상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간담회 진행: 매월 운영자 간담회(3회) 진행 및 사업선정자 대상 사업설명 간담회(3회) 진행- 생활문화지원센터 홍보를위한 디자인 및 공간모음책자 제작</div>

생활문화 캠페인

생활문화 캠페인 주요 컨셉 구축 및 운영

- ‘누구나, 어디서나, 모든걸로, 예술하자!’(Let’s ART!)”

- ‘1인 1악기’ 시민참여형 오프라인 캠페인 행사 추진 : 총 3회/7,640명

- SICOF 연계 ‘1인 1악기 콘서트’ 개최 (9.18/광화문 KT드림홀) : 128명

-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8.31~9.3) : 총 1,390명 참여

· 파급효과 높은 매체협력 및 홍보대사 활용한 캠페인 확산 유도

- SBS 주관방송사 매체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공중파 광고채널 활용

채널	TV스팟	라디오스팟	TV스크롤자막	TV방송
집행내용	22회 (30초)	47회 (20초)	19회	2회 (8시뉴스,모닝와이드)

- 시내버스 외부광고 1개월간 집중홍보 집행 : 총 32대

생활문화주간 (아티팟카니발)

취향예술 발굴 및 기성장르 지원을 통해 생활예술의 저변확대

- 일상 속 다양한 취향예술 ‘아티팟’ 발굴 및 시민 프로젝트 운영

: 운영규모 : 114팀 신청 / 90팀 선정 / 66팀 축제 참여

- 일반장르(밴드, 연극, 시각, 감상) 지원사업 ‘삶은예술’ 공모·운영

: 운영규모 : 76팀 신청 / 63팀 선정 / 63팀 축제 참여

- 서울시민 생활예술축제 <생활문화주간> 개최(10.21~11.4)

- 생활문화주간 생활예술동아리 1,162개 참여(자치구,아티팟,삶은예술 등)

- 생활예술아외축제 <아티팟카니발> 개최 : 10.28 (서울숲 / 22,000명)

서울국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서울을 대표하는 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개최를 통해 장르모델로서 생활문화 저변 확대

- 해외우수단체 초청하여 국내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단체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SICO) 창단 및 쇼케이스 운영

- 『서울생활예술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생활예술중심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 주요실적

시민예술가 공연 참여		협력기관	공연장 관람집객	기타행사 관람집객	참여국
공연횟수	참여 인원				
20회	4,600여명	7개 기관	12,643명	2,200명	31개국

생활예술댄스 페스티벌 및 생활예술 댄스 활성화사업

생활예술로의 댄스장르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

- 2017 위댄스_세계거리춤축제 운영(2017.10.14.~15.)

: 운영규모 - 113팀 참여 / 1,452명 출연 / 485,285명 관람

- 위댄스_서울춤자랑 운영(2017.10.24.)

: 운영규모 - 30팀 신청 / 19개팀 선정 / 243명 출연 / 972명 관람

- 다양한 댄스장르 개인, 동호회,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

- 자발적 시민참여 동아리(위댄서) 운영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연구사업

서울시민의 자발적 생활예술활동을 촉진 및 활성화하기 위해 15년간 실행될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구축

- 향후 서울문화재단이 액션플랜을 실행함으로써 서울의 생활예술 사업 체계화·본격화

- 연구와 포럼을 통해 생활예술의 개념 정립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생활예술의 정착 및 확산 기반 마련

- 자문회의 및 1차포럼(9.21), 2차포럼(11.24.) 2회에 걸친 포럼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생활예술 가치 전파

▶ 2018년

- 생활문화 사업의 2년차로 생활문화 지원체계의 정립
 - 자치구별 생활예술동아리 발굴과 네트워킹을 통한 자발적 생활예술활동의 주체형성 및 주민 주도의 새로운 축제 모형 창조
- 자치구별 생활문화 거버넌스의 기초 마련
 - 서울시(보조금 교부) → 서울문화재단(컨설팅 등 지원) → 자치구(생활문화 사업 운영, 자치구별 조례 제정 등) 등 자치구별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정비 및 역할 분담 체계 마련
 - 대표 장르 축제의 성과 확산과 생활예술활동 방향 제시
 -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는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SICO) 창단을 통한 전 세계 생활예술오케스트라 간 교류확산 및 국내단원 역량 강화하고 민간영역의 자발적 축제 조직을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
 - 생활예술 춤 활성화사업 위댄스는 매니아층이 아닌 일반 시민이 누구나 일상적인 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정착
- 동아리 외에도 시민 개인의 일상예술로의 확장 계기 마련
 - 개인의 생활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해커톤을 통해 동아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 (생활예술 해커톤)하여 시민 개개인의 활동이 확장되고 촉진될 수 있는 계기 마련생활예술의 확장
- 세부사업별 성과요약

[표 23]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2018)

구분	주요성과		발전방향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정성	· 자치구별 생활예술동아리 발굴 및 네트워킹을 통한 자발적 생활예술활동 확대	· 우수자치구 사례발굴 및 공유 · 자치구 담당자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한 정성지표 마련 · 서울시 협의를 통해 자치구별 네트워킹 지원방안 모색 등
	정량	· 17년도 18개 자치구 참여 → 18년도 25개 전체 자치구 참여 · 1개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조례제정(관악구) · 2개 자치구 동아리 협의체 발족 · 17년도 1,943개 동아리 발굴 → 18년도 3,178개 동아리 발굴 · 17년도 570개 동아리 그루넷 참여 → 18년도 1,047개 동아리 그루넷 참여 · 기타 자문회의 3회, 컨설팅 62회, 워크숍 7회, 네트워킹 27회 등	
생활문화 지원센터 조성지원사업	정성	·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센터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방향성 정립 · 지원금 집행 가이드, 보조금 정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사업 안정화 · 생활문화플랫폼 내 맵 구축,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시민 접근성 강화	· 조기 공모진행 및 사업기간 확대 · 지원 단체 역량강화교육 시행 · 우수 지원센터 사례발굴 및 공유 · 동아리 및 생활예술인들의 모임, 활동 발표, 기타 실행 장소 연계
	정량	· 신규 센터 9개소 조성(신청건수 62% 증가), 기존 센터 11개소 연장지원 · 신규 센터 개소식 8회 진행 ·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19회, 워크숍 7회, 간담회 2회 진행 · 방송 2회, 지면보도 2회, 온라인보도 106회 등 언론노출 다수	
서울국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정성	· 서울시 대표 생활예술축제로 오케스트라를 통한 생활문화 저변 확대 · 서울시향 마스터클래스 협업을 통한 참여도 제고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서울역사 내 'SICO 아리랑 플래시몹' 진행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한 사업 이슈화	· 축제추진위원회 활성화 및 KOA MA 역할확장 등 민간의 주체적 활동체계 마련 · 시민참여형 공연, 교육프로그램 등 기획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
	정량	· 2019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 단원 56명(29개국) 선발 · 국내단원 대상 서울시립교향악단 마스터클래스 7개 악기 진행 · 제5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11일간 24회 공연 진행	

구분	주요성과		발전방향
생활예술 춤활성화사업 위댄스	정성	· 서울시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르특화 생활예술 축제모델 구축 · 장르/지역별 협의체 공모 및 운영을 통한 시민 주체적 사업의 가능성 확인 · '500인의 스윙댄스', '일일 춤 교습소'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한 홍보전략 수행	· 조기 공모진행 및 사업기간 확대 · 상설교습소 등 시민참여 확대 · 자치구별 문화재단,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등 협업을 통한 사업 확산 및 예산절감 방안 마련
	정량	· 위댄스캠프, 서울춤자랑 참가 생활예술 동아리 및 개인 93팀 1,367명 참가 · 장르 협의체 6개 구축 및 워크숍 17회, 마스터클래스 4회, 쇼케이스 6회 진행 · 서울시 생활문화주간, 시민청 대표축제 등 사업간 연계공연 3회 · 위댄스페스티벌 67,765명, 서울춤자랑(본선) 1,361명 관람	
생활문화 캠페인	정성	·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온라인 거점공간인 '생활문화 플랫폼' 구축 · 통합캠페인 및 뉴스, 영상, 극장광고 등 매체별 홍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전 사업을 관통하는 통합 브랜드 구축으로 홍보편의, 효과증가 · 온오프라인 연계 시민참여형 캠페인 진행 · 재단 홍보채널 및 인프라 활용
	정량	· 영등포, 왕십리 등 서울시내 15개 지역, 44개 스크린 극장광고 송출 · 서울시내 지하철 광고 4,272면 6,000회, 버스 광고 52개 노선 480대 운영 · SNS 광고 220,000건 도달 영상 조회 170,000회 · SMR 광고 노출 800,000건(클릭 2,720회) · 생활문화 사업 SNS(페이스북) 전 년도 대비 구독자 6,459명 증가	
동아리 네트워크	정성	· 지원 장르의 확장을 통해 시민 참여 및 지원 기회 증가 · SNS 집중 홍보 및 핫-스팟 홍보를 통한 생활문화 참여 시민 연령 다양화	· 뮤지컬, 합창 등 잠재수요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장르 동아리 집중 지원하여 오케스트라, 댄스에 이은 장르 특화모델 개발 · 지속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상설화
	정량	· 17년도 4개 장르 지원 → 18년도 6개 장르 지원(2개 장르 확대) · 17년도 대비 생활예술 동아리 신청률 111%(99건) 증가 및 135개 선정 · 아마추어페어 50개 동아리, 생활예술인 18팀 99명 참여 3,504명 관람 · 장르별 게더링 24회 진행, 100팀 3,609명 참여, 23,891명 관람	
시민일상예술 활성화	정성	· 생활예술 해커톤 운영을 통한 '개인 생활예술인' 공모 및 활동기반 마련 · 동아리네트워크 사업 연계를 통한 단체 활동 및 생활문화 정보획득기회 제공	· 전통예술 영역 외에 뜨개질, 요리, 종이접기 등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예술 활동 등의 지원 대상 및 네트워킹 확장 방안 마련 · 생활예술인 페어 개최 추진
	정량	· 미술, 음악, 사진영상, 제작 등 생활예술인 99명 선정 · 선정 생활예술인 대상 13개 팀 조직 및 팀별 활동지원 · 18년도 13팀, 17년도 아티팟 참가자 5팀이 함께 동아리 아마추어페어 참여 · 생활예술 멘토 및 사업참여자 50명 대상 네트워킹파티 진행	

▶ 2019년 “동아리 중심 → 시민의 자발적 예술활동”

- 동아리 중심 생활예술을 개인, 소모임으로 확대 및 참여방식 다양화
*생활문화전문인력 역량강화 연구(서울문화재단, 2018) 및 생활문화활성화사업 평가 모니터링 연구(서울시, 2018) 바탕으로 개선
- 단순 네트워크가 아닌 실질적 주제(동아리 리더 등) 발굴과 역량강화 추진
- 일반 시민들과의 일상적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날마다 예술”을 슬로건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한 느슨한 연대·참여 확산 시도
- 그 외 축제성 사업 관련, 참가자(팀) 간 경선·경합 등 경쟁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경쟁구도 약화를 위한 장치 마련
 - (오케)합동공연 마련, (춤자랑)시민상 신설, (동아리페스타)동등한 전시/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모두의 축제 방식으로 단계적 개선
- 지난 3년간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한 생활문화 정책 2.0 수립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생활문화정책 2.0을 수립하고, 2020년 이후 정책 전 환과정에 대한 설계 추진
- 세부사업별 성과요약

[표 24]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2019)

구분	주요성과		발전방향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정성	· 생활문화 개념 재설계 모색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목적 환기/관련 담론 형성 · 사진/영상 등 자치구별 니즈에 따른 홍보, 아카이빙 지원 · 워크숍, 결과공유회 등을 통한 자치구 사례 및 의견 공유	· 지역상황/보유역량 및 다양한 시민욕구를 반영한 사업방향 설정 · 인센티브 정량적 성과에 대한 실효성 검토 必 · 리서치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기간 제공
	정량	· 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25개 전체 자치구 참여 · 찾아가는 컨설팅 총 75회 추진 · 자치구 기반 활동 동아리 3,570개 유지 및 발굴 · 18년도 1,047 그루넷 참여 → 19년도 1,142개 동아리 그루넷 참여 (*위 두 개 성과는 서울시 관리실적과 연계)	
생활문화 지원센터 조성지원사업	정성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센터별 운영역량 진단과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원단체 현장 및 행정평가 진행하여 운영목표 달성여부 확인 및 차기년도 심의진행시 활용 가능한 자료 확보	· 자치구 주도 기초지원센터형 확대 · 생활권형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운영주체의 역량 중점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정량	· 신규 센터 6개소 조성, 2-3년차 센터 7개소 연장지원 · 지원단체 컨설팅 총 59회 추진 · 누적 방문이용자수 23,734명 / 동아리 이용건수 236건	
생활합창 활성화 사업	정성	· 자치구의 생활합창 장르에 대한 니즈·수요 파악 및 활성화 기반조성 ·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역문화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 · 자치구생활문화협력체계구축사업과의 사업 연계 및 확장 기반 구축	· 생활문화 2.0 연구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향후 본 사업은 자치구별 생활 합창 수요와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구생활문화 협력체계구축사업'내에서 운영 방안 검토
	정량	· 자치구문화재단 4개 선정 및 지원 · 찾아가는 컨설팅 총 9회 추진 · 네트워크 구축 141회, 합창 프로젝트 8회 추진 · 전문가/예술가 96명, 주제적 참여자 2,082명, 관람객 1,700명 참여	
서울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정성	·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직접 청취 플랫폼 구축 ·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함께 연주하는 협력무대, 단체 간 합동공연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존 동아리 중심의 경쟁적 사업 구조 전환 및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정립	· 축제 종료 후 진행한 참여단체 및 전문 자문단과 간담회(총 2회)를 통하여 사업 개선점 도출 · 국내 단체 중심의 축제 내실화가 우선이라는 참여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 프로그램 운영은 가까운 미래에 운영 불가. 국내 환경 조성 후 향후 단계적 접근 진행
	정량	· 8일간 41개 시민오케스트라 총 2,323명 참여, 14회 공연 · 총 관람객 수 10,144명 · 시민 54명 대상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교육프로그램(마스터클래스) 진행 · 전문가(25명)와 시민(83명) 총 108명의 협력무대를 폐막공연으로 기획·운영 · 총 6개 단체 참여, 네트워킹 및 멘토링 등을 통한 총 2회의 합동공연 진행	

구분	주요성과					발전방향								
생활예술 춤 활동기반 조성사업	정성	· 전문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 및 프로그램 다양화 · 프로그램 경연요소 줄이고 축제성을 강화하여 생활문화 확산효과 증대				· 춤을 추지 못하는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진행시 장르제한 완화 검토(위댄스캠프) · 비경연 방식으로의 사업 통합/개편 방안 검토(서울춤자랑)								
	정량	· 위댄스캠프, 서울춤자랑 참가 동호회 및 개인 78팀 2,574명 · 위댄스캠프 워크숍 14회, 마스터클래스 8회, 플래시몹 5회, 쇼케이스 4회 진행 · 서울춤자랑 프로필 촬영 2회, 네트워킹 댄스파티 1회, 본선공연 1회, 서울문화재단 전국문화예술축제 연계공연 1회 진행 · 위댄스캠프 쇼케이스 2,350명, 서울춤자랑 본선공연 548명												
위댄스 페스티벌	정성	· 개인 대상 신규 프로그램(막춤대회, 굿습소, 랜덤플레이댄스) 기획·운영하여 축제 접근성 및 이미지 제고 · 자치구 활동 춤 모임 및 춤꾼을 위한 개방형 무대(오픈 스테이지) 기획·운영하여 축제 확장성 마련				· 축제 총 연출, 홍보분야 전문인력(PD) 운영을 통해 연출 및 홍보 강화 · 운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인력 증원 및 조기모집								
	정량	· 위댄스 페스티벌 사전 홍보영상 유튜브 조회수 57만회 · 위댄스 페스티벌 랜덤플레이댄스 사후 영상 조회수 134만회 · 위댄스 페스티벌 44,270명 관람												
생활문화 캠페인	정성	· 서울형 생활문화 브랜드 개발 ‘날마다 예술’ · 생활문화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연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확대 운영 · 생활문화지원센터, 거버넌스 사업과 연동 · 주요 콘텐츠 : 영상, 카드뉴스, 축제 및 행사정보 등 * <2019 생활문화캠페인 수상>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드 공공정책 커뮤니케이션 혁신상 ‘동상’				· ‘일과 생활’의 균형, ‘여가’, ‘취미’의 가치 증대에 따른 생활문화캠페인 사업 다각화 필요 · 취미와 구분되는 생활문화 활동의 본원적 성격인 사회적 소통을 경유 하는 공공적 측면이 존재하므로, 관습화된 예술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일상의 문화적 욕구를 발굴·지원하는 방향의 생활문화캠페인의 형태로 재설계 필요								
	정량	· 온라인 플랫폼 개편 및 연간 상시 운영 ·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및 소셜미디어 업로드 수(12월말 기준) <table><tr><th>페이스북</th><th>유튜브</th><th>인스타그램</th><th>플랫폼</th><th>합계(회)</th></tr><tr><td>160</td><td>15</td><td>107</td><td>103</td><td>385</td></tr></table> · ‘날마다 예술 - 30일 프로젝트’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200명) · 생활문화 캠페인 영상 제작 및 확산 조회수 : 유튜브 57만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플랫폼	합계(회)	160	15	107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플랫폼	합계(회)										
160	15	107	103	385										
동아리 네트워크	정성	· 사업 참여 팀 모두에게 전시,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동아리 페스타’를 진행 하여 2018년 경연 방식이 유발한 경쟁 구도 탈피 · 동아리의 실질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동아리 메이트) 지원 · 장르 특성에 맞는 교류 장소, 기술진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동아리 간 네트워킹 확산 계기 마련				· 동아리로만 제한된 세부사업 대상 재고 ·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사업 방식 변경 검토 (프로젝트성 사업 시도 등)								
	정량	· 동아리 공모 126팀 선정 · 장르별 기획 회의 6회, 리더 워크숍 6회 진행 · 동아리 메이트 4회 진행 · 동아리 페스타 89팀(2,484명) 참여, 17회 진행, 1,652명 관람												
시민일상예술 활성화	정성	· 비공모 방식의 생활예술인 소모임 신설 등을 통해 개인 생활예술인 지원 확대 · 리더 워크숍, 멘토링, 해커톤, 성과공유회에 이르는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개인 생활예술인 네트워킹 강화 · 방송, 유튜브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진행				· 개인의 다양한 일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 진행 · 전통 예술장르 외 일상 생활문화를 포괄하는 다양한 주제의 소모임 운영 검토								
	정량	· 생활예술인 공모 194명 선정 · 생활예술 소모임(비공모) 5회 진행 및 156명 참여 · 멘토링 9회, 리더워크숍 3회 진행 · 생활예술인페어(성과공유회) 22팀(122명) 참여, 3,269명 관람												

▶ 2020년 “지역자율성 강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 다양한 네트워크 촉진 정책에서 지역중심 생활문화 발굴과 활동을 지원
 - *목표 : 동아리 활동가 양성 → 시민의 자리에서 문화적 삶의 주체로 성장
- 생활문화개념 확대 및 참여주체의 다양성 도모
- 일상 속 자발적 예술참여 및 느슨한 연대지원 확대
- 생활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실험사업 등으로 일반시민의 생활문화 유입 유도
 - *일상탐색 포럼, 목표달성 인증모임 등
-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소통채널 마련
 - *온라인 기반 비대면 방식의 포럼, 워크숍, 결과공유회, VR체험, 전시 등
- 세부사업별 성과요약

[표 25] 세부사업별 주요 성과 (2020)

구분	주요성과		발전방향
자치구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	정성	· 생활문화참여 주체 확대 및 사업유형의 다양화 · 정량성과 인센티브 미적용을 통한 자치구 실적부담 경감 · 활동가 선발과정 참여, 지역탐구기간 부여 등 자치구 관여권한 강화 · 이해관계자(담당자, 컨설턴트, 전문가) 간담회, 자문회의 등 개최를 통한 상시 사업진단 및 현황공유 · 결과공유회(온라인) 개최를 통한 사례/의견 공유	· 변화하는 일상, 시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사업반영 필요 · 자치구 중장기전략, 지역자원 현황 등과 의 사업연계 강조 필요 · 기존 공급형 컨설팅에서 실효성 있는 간접지원 방안으로의 변화 도모
	정량	· 3년 연속 25개 전체 자치구 참여 · 찾아가는 컨설팅 총 75회 추진(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온라인 뉴스레터 10회 배포, 플랫폼 기반 홍보 155회 지원	
생활문화 공간지원사업 (생활문화 지원센터)	정성	· 자치구 주도의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모델 발굴 및 범주 확장 · 컨설팅 및 평가·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운영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사용 및 사업 운영 가이드 제공 · 공동컨설팅, 역량강화워크숍 추진을 통한 운영주체 역량 증대	· 자치구 중심의 기초형 확대 및 공공 공간 발굴 강화 · 생활문화 사업간 연계 및 일원화 방안 필요 · 지원공간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정량	· 13개소 선정 및 지원 - 기초형 9개, 생활권형 4개 · 컨설팅 및 평가·모니터링 총 31회, 역량강화 워크숍 2회 추진 · 아카이빙북/리플렛 제작 및 배포, 온라인 홍보콘텐츠 13건 게재	
서울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정성	· 비대면 축제 전환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 확장 및 발전 가능성 확인 ·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참가단체)의견 청취를 위한 비대면 소통 창구 지속 운영 및 이를 반영한 사업 전환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규모 집합 공연 대안 등 포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발
	정량	· 총 26개 생활예술오케스트라단체 참여 (일반: 20단체, 학생: 6단체 / 총 인원: 1,187명) · 온라인 전시 관람객 총 6,018명(총 조회 수 146,538회)	
생활예술 춤 활동기반 조성사업	정성	· 위댄스캠프 장르제한 해제 및 개인 참여 사업(위무브) 신설을 통한 시민 접근성 향상 · 비대면 프로그램(위댄스캠프 온스테이지, 위무브 온라인 워크숍) 기획·운영을 통한 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문화 콘텐츠 가능성 발견	· ‘일상예술 활성화 사업’ 내 통합·개편을 통해 장르 구분 없이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가치 발굴 및 활동지원 도모 ·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온라인·비대면 생활문화 사업 또는 프로젝트 기획·운영
	정량	· 위댄스캠프 참가 동호회 42팀 및 위무브 참가자 253명 · 위댄스캠프 워크숍 5회, 마스터클래스 3회, 온스테이지 4회 진행 · 위무브 워크숍 25회, 위무브 투게더 2회 진행	

구분	주요성과		발전방향
위댄스 페스티벌	정성	·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페스티벌을 기획·운영하여 생활예술인 및 서울시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VR 춤 체험, 시민 댄스 영상 공모 등 온라인·비대면 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생활문화 콘텐츠 가능성 발견	· ‘일상예술 활성화 사업’ 내 통합·개편을 통해 장르 구분 없이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가치 발굴 및 활동지원 도모 ·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온라인·비대면 생활문화 사업 또는 프로젝트 기획·운영
	정량	· 위댄스 페스티벌 온라인 관객(유튜브 조회수): 2,664회 · 위댄스 페스티벌 노들섬 현장 관람객: 173명 · 위댄스 페스티벌 참여 춤 동호회: 34개(약 270명) · 위댄스 영상 콘테스트(시민 참여 프로그램) 참여자: 107팀 모집	
생활문화 캠페인	정성	·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진행, 생활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 생활문화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팀 사업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생활문화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서울시 생활문화 활동 종합 홍보 지원	· 단순 홍보성 차원이 아닌,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캠페인 필요 · 생활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SNS 채널 집중 운영 및 관리 · 생활문화 웹 플랫폼(artandlife.kr)을 재단 홈페이지로 일원화하여 이용자 편의와 정보 보안 강화
	정량	· 시민참여 캠페인 2회 운영, 총 723명 참여 · 생활문화전반 및 생활문화팀 사업 홍보 콘텐츠 총 398건 업로드 · 메인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전년 대비 88% 증가	
일상예술 역량강화	정성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대응 도모 ·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신규 도입으로 시민 만족도 증대 · VR기술을 활용한 ‘생활예술인 사이버 결과공유회’를 진행하여 생활예술인 대상 새로운 경험 및 발표의 장 제공	·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탈지역, 범장르 생활문화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구성 필요 · 생활예술인 자체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자율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방향 모색
	정량	· 생활예술인 공모 61팀 선정 · 전문가 멘토링 151회 진행 · 사이버 결과공유회 54팀(204명) 참여, 3,478명 관람	
일상문화 탐색지원	정성	·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삶의 활력을 도모 하는 새로운 형식의 생활문화 활동 제시 · 모집 3일 만에 신청가능 인원이 마감되고, 참여자의 96.9%가 만족으로 응답하는 등 수혜자 관점의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 크리에이터, 트레이너, 웹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활동가와 협업을 시도	·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로 대면할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돼 삶의 안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목표달성 인증 모임’을 범시민적 캠페인 형태로 확대 운영 ·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본격 생활문화 활동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 마련 및 유입 필요
	정량	· 목표달성 인증모임 10개 개설 및 운영, 294명 참여 · On-tact 일상탐색 포럼 1회 운영, 501명 시청(3시간) · 사업 과정 아카이브 전시 운영, 22일간 3,478회 방문	

6) 재단 다른 사업(교육사업 등)과의 연계성

▶ 예술교육과 생활문화

- 예술교육 변화흐름¹⁷⁾: 기량중심 예술교육 → 미적체험 예술교육 → 모두를 위한 교육, 삶으로 확장되는 교육
- 생활문화 변화흐름¹⁸⁾: 장르중심 예술동아리 → 일상과 시민중심 다양화 → 개개인이 문화적인 삶의 주체

- 두 영역 모두 “자기 정체성 탐구”하고, “개인의 삶의 접점(일상)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일상과 밀착될 수 있는 “생활권 단위”로 추진되는 점에서 각 사업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유사성이 나타나기도 함
- 대상, 방식, 내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은 원칙과 지향점이 달라 별도의 법과 정책, 추진체계로 작동되지만 앞으로는 시민의 문화생활 관점에서,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 주요 문화정책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 협력 체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봄
- 아쉽게도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예술교육과 생활문화 사업의 각 영역 간 직·간접 연계 지점이 없지만, 수직적 (중앙-광역-기초) 행정 전달체계와 다른 차원의 (광역 내에서의) 수평적 역할분담 및 시너지 강화를 위한 협력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기
-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해 누구나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 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광역의 역할에 집중하고, 생활문화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생활문화를 통한 사회 연결망 구축, 공동체 회복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 서울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생활문화가 지난 5년간 별도로 추진되어왔으며, 2021년은 아래의 구조로 역할을 분담함

[표 26]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구분 (서울문화재단)

구분	지역문화	생활문화
정의 (근거법)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핵심 개념	· 지역성, 관계성(결과물로서 문화도시) - 구체적 시공간으로서의 ‘지역’ 내 모든 문화 요소 포괄 : ‘관계’, ‘환경’, ‘구조’	· 시민의 자발성, 일상성(결과물로서 문화적 다양성) - 문화활동의 ‘방식’ 중심
사업화 방향	· [분권] 국가-광역-기초 협력체계 확립 · [생태계] 지역의 (행정/민간)역량 강화 · [효과]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문화도시), 시민의 문화권 제고(자치구 단위 생활문화)	· [양적 확대] 생활문화 활동 확산 · [질적 제고] 시민의 자발성, 문화욕구 충족, 문화활동의 다양성 · [사례 발굴] 새로운 모델 개발/발굴, 시범사업

- 지난 4년과는 달리 올해는 생활문화의 단계적 자치구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자치구협력형(지역문화팀)과 광역주도형(생활문화팀)으로 이원하여 추진하였고, 따라서 자치구 단위 생활문화 사업의 경우, 기존 지역문화 사업(N개의 서울)과 사업 간 연계, 상호 보완의 차원에서 크고 작은 시도가 있었음
- 다만 ‘22년의 경우, 예산 급감 등 내·외부적 변화 상황에 따라 올해와 같은 이원 구조로의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도 지역문화는 자치구문화재단 대상 분권과 자율 기반의 포괄적 지원, 기초-광역 간 정책협력 채널로서 역할, 자치구 별 여건에 따라 생활문화, 예술교육 등 모든 영역을 담아낼 수 있는 보충적 기능을 지속할 예정이고
- 생활문화는 개별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광역형 사업(서울 전역을 아우르고, 규모나 파급력, 대표성 면에서 특화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17) 문화예술교육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며 지역화 전략을 통한 기초 단위를 중심점으로 연계 협력 중(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18) 생활문화는 일상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삶을 살아가며 시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화적 활동’으로 확장 중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정책 2.0, 2019)

7) 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 생활문화의 가변성을 이해하고, 변화를 반영한 정책과 사업으로의 연결

- ‘생활’문화는 (문화의 일반개념과 다르게) 가변성을 지녀, 사회·환경이나 시민의 삶의 변화를 반영한 재개념, 재해석이 요구되는 영역. 이에 따라 정책과 사업도 이를 감안한 재설정(업데이트)이 필요하기도 함
- 『지역문화진흥법』이 정의하는 생활문화에서 ‘문화적 활동’은 매우 방대한 범위로 제시되고 있음. 그에 반해 ‘17년 서울시 생활문화정책 초기는 ‘장르예술과 동아리 활동’ 중심의 사업으로 다소 좁게 설정돼 추진되었음. 이후 ‘19년 발표된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정책2.0>과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안 연구> 양쪽 모두에서 “생활문화에 나, 삶, 일상, 관계 등”의 관점이 추가되고, “삶이나 일상을 구성하는 방식·양식”으로 생활문화를 재개념화 하는 등 전환 시작
- 그러나 이 또한 고정된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앞으로 변화하는 생활상을 반영한 확장된 해석과 개념이 다시 등장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타 영역(예술교육, 예술창작 등)과 달리 변화의 폭, 주기, 예측이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 발생. 동시대 일상 생활을 기민하게 감각하고, 이를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지점임

▶ 시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식 모색 필요

- 올해 서울문화재단이 시도해 본 신규 사업을 포함해 타 지역 생활문화 사업에서도 개인/동호회(모임)/단체 대상의 직접(예산)지원이 늘어가는 추세
- 일반적인 공모방식에 따라 시민의 생활문화를 지원해보니, 심사를 통한 선정과 비선정을 구분하는 것에서 일부 모순이 느껴짐. 개인의 문화 욕구에 기반해, 각자의 삶에서 일상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문화적 활동을 누가 심사·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들었음
- 공모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공공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의 생활문화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가 마련되어야 하고, 참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이 보다 보완될 필요 있음
- 나아가 (아직은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공모지원이 아닌, 시민의 생활문화에 맞는 새로운 지원방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 올해 광역형 생활문화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문화적으로 읽어내고 가치를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생활문화로 해석하고, 그 범위를 ‘의, 식, 주, 일, 놀이 등’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일상 반경으로의 확장을 시도함
- 이렇게 생활문화가 ‘시민 생활의 모든 접점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정책과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기도 함. 이는 곧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요소 안에서, ‘재단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 문제의 한계점을 실감하기도 하였음

8) 사업 운영 개선방안

▶ 광역주도의 생활문화 대표사업 기획·추진

- 잠정 중단했던 대표사업(위댄스페스티벌 등)의 리뉴얼 오픈 준비. 지난 2년간 온라인 비대면, 개인단위 활동이 중심이 되어, 관계와 소통이 위축된 상황. 계속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축제 모델을 마련해 개개인에게 행복감을 주고,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는 커뮤니티아트 축제 재개를 준비중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 생활문화 집중 지원(선택지원으로 전환)

- ‘22년 예산 감축 상황으로 불가피 지역문화↔생활문화 간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이 보다 중요해짐. 이전 대비 자치구 생활문화는 ‘생활문화 집중 지원 필요 자치구’로 한정해 선택적 지원을 하고, 지역문화는 25개구 전체의 보편적 지원을 하되,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하는 관점’으로 포괄적 지원 강화

▶ 동아리/주민단체 등 생활문화 주체의 다층적 발굴 맞춤 지원내용 개발

- 장르예술 뿐 만 아니라 공예, 식문화, 공간·환경, 놀이, 스토리, 취향·취미 등 문화전반의 활동까지 포함한 생활문화 활동 주체를 폭넓게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간접 지원내용을 설계해 지원 예정

9)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와의 사업 연계에 대한 의견

▶ 서울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현황

[표 27] 서울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현황

권역	생활문화센터	개관일	운영개요
서남권	①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12. 6.	· 신도림 역사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조성 · 미술, 전시 중심
도심권	②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18. 3.	· 체부동 성결교회를 매입하여 조성 · 생활오케스트라 중심
	③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20.10.	· 낙원상가 1층 주차공간에 재생사업으로 조성 · 악기강습, 악기나눔 중심
서북권	④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20.11.	·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내 지하공간을 기부채납 받아 조성 · 청년, 공연 중심

▶ 사업 연계 의견

- 서울문화재단과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4개소는 네트워크 기반 연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재단이 생활문화를 위한 거점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생활문화센터-재단 간 연계형 사업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중인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4개소는 각각 운영주체가 상이하고, 이전까지 4개소 간에도 협력형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으며, 정례적 네트워크 기반도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 간 내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파트너십은 구축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함
- 앞으로 서울시-생활문화센터-재단 간 네트워크 기반이 마련되고, 상호 간 연대 필요에 공감하여,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원한다면 단계적 목표와 계획을 세워 연계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생활문화 사업 현황 및 시사점 분석

1)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 구분

- 생활문화 사업과 재단 내외부의 타 사업과의 연계 강화 또는 중복성 감소 방안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역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연계와 중복여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임
- 일례로, 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구분할 때 분석대상이 되는 사업의 최소단위를 정하는 것부터 분석의 결과를 다르게 함. 예를 들어 <시민들의 문화향유>라는 포괄적 사업단위로 본다면 축제, 문화행사, 문화이용권, 심지어 예술교육 사업까지도 동일한 업무로 분류할 수 있고, 이들 사이에서의 중복성이 문제될 것이 없음
- 그뿐만 아니라, 사업 간 연관성에 대해 공유되는 개념에 근거한 구분과 공식적인 문헌 자료에 근거한 구분이 다를 수도 있음
- 이전의 문화재단 현황연구들에서는 (1) 상위 정부의 시책사업 구분에 맞춘 사업단위 구분, (2) 정관에 명시된 시책사업 구분, (3) 경영공시 되는 예산서와 사업성과 단위 구분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각 연구주체의 목적에 맞춘 선택일 뿐임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는 회원 기관들의 일반현황분석 시 기관별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영역의 비교, 그리고 사업 영역별 예산규모의 비교를 위해, (2)와 (3) 모두 파악해왔음. 이 또한 사업영역의 확장과 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함

[표 28]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영역 구분 (한광연 회원기관 일반현황 자료 중)

영역 구분	전문예술 → 지역문화환경 → 시민문화 → 전통문화 → 정책개발 → 문화교류 → 재원조성 → 정보서비스 → 문화산업 → 지역활성화 → 지자체 과제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 항목	문화 예술 창작 진흥 및 지원	문화 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운영	문화 예술 교육	시민 문화 향수 증진	전통 문화 계승 발전	문화재 발굴 문화 유산 보전	문화 정책 연구 개발 자문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	문화 정보 서비스	기금 조성 및 운영	기부 유치 및 회원 사업	문화 상품 개발	문화 산업 육성	기타 특수 업무 (지자체 위탁 사업 등)

[표 29] 예산 비교를 위한 영역 구분 (한광연 회원기관 일반현황 자료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예술 지원	문화 예술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생활예술 활성화	축제사업	문화시설 운영	도시재생	전통 문화/ 문화재	문화사업	홍보/ 교류	문화정책	문화정보 서비스	기금조성 및 기부유치
창작 지원 제도 등	학교, 사회문화 예술교육, 예술강사	문화 이용권, 기획 바우처 사업 등	동호회 지원 등	축제 개최 및 지원	창작 공간, 문예회관 운영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관광 등	문화재 발굴 등	스토리 텔링, 문화산업 등 기타 문화사업	국내외 교류, 출판 등	연구, 자문 등	홈페이지, 앱개발 등	메세나 지원사업 등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연구-지역문화재단 백서 발간 기초연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임학순, 2020)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을 대분류/중분류로 구분하기도 하였음

[표 30] 지역문화재단 사업영역

순번	대분류	중분류	예산	성과(계량)
1	예술 창작 지원	· 예술가,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청년/신진/유망/원로/장애인)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국비(지방비포함) · 출연금 · 자체재원 · 위탁 · 기부금	· 지원 예술인, 예술단체 수 (사업별/연령/성별 등) · 참여인원 수 · 참여기업 수
2	문화 예술 교육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회(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 자체 기획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	· 참여 강사, 단체 수 · 프로그램 수 · 참여기관 수(학교/사회) · 참여인원 수(생애주기별/ 일반·매개인력) · 기타(연구과제,회의개최수)
3	시(도)민 문화 향유	· 생활문화예술 참여·향유 활동 지원 · 예술동아리지원	"	· 활동인원 수 · 동아리 수 · 행사개최 수 · 관람인원
4	문화 복지	· 소외(취약)계층문화예술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 예술인복지	"	· 참여인원 수 · 서비스 건수
5	지역 문화 진흥	· 정책개발 자문 조사·연구, 포럼 등 · 지역 전문인력 양성 · 지역 특화 사업 ·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공연 등 포함) ·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	"	· 회의개최 수, 참여인원 수, 연구과제 수 · 참여인원 수 · 프로그램 수 · 교류건수/MOU체결 건수
6	문화 시설	· 공연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운영 · 창작공간 운영 · 생활문화공간 등 운영	"	· 대관 건수 · 이용자 수 · 관람객 수
7	전통 문화	· 전통문화 관련 조사, 연구 · 전통문화 공간 운영 · 전통문화 행사	"	· 연구과제 수 · 발굴건수 · 행사개최 수 · 참여인원 수
8	정보화	· 지역문화예술인/단체 DB 구축 · SNS 운영	"	· DB건수 · 활성화 비율(%)
9	기타	· 목적 사업에 따른 이행 사업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	· 사업 수 · 참여인원 수 등

- 본 연구는 생활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재단 내 타 사업영역과의 연계성과 중첩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조직 내 업무를 대외적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룹핑 하는, <부서 단위>와 <사업 단위>의 <조직 구분 및 편제>, <부서에 분장된 사업들의 그룹핑 현황>, <부서 명칭에 사용된 단어¹⁹⁾>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 본 연구에서 본부 단위 명칭의 비교를 위한 구분은 문화관련 법령들에 의해 강조된 정책 이슈 키워드 중심으로 나누었음. (예술, 문화, 시민, 생활, 교육, 지역, 시설 등)

- 광역문화재단들의 본부 단위 명칭은 1972년 제정된 문예진흥법의 정책 목표와 영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문예진흥>과 같이 포괄적인 명칭이 주로 사용되다가 크게 예술정책 차원에서의 <예술진흥>과 문화정책²⁰⁾ 차원에서의 <문화사업> 영역 담당 본부로 분화됨

[표 31] 본부 단위 명칭에 사용된 문화정책 키워드

키워드	빈도수	사례
예술	12	· 경기 (문화예술), 서울 (예술지원, 창작기반), 부산 (예술진흥), 대구 (예술진흥, 예술인지원센터), 대전 (문화예술), 경남 (문화예술), 광주 (예술상상, 예술인보듬소통센터), 충남 (문예진흥), 전북 (문화예술진흥), 세종시 (예술사업), 울산 (문화예술), 경북 (문화예술) (인천: 창작지원부)
문화	12	· 경기 (문화예술), 강원 (문화사업), 서울 (문화시민), 부산 (생활문화), 대구 (시민문화), 대전 (문화예술), 경남 (문화예술), 광주 (문화융합), 충남 (문예진흥), 전북 (문화예술진흥), 울산 (문화예술), 경북 (문화예술)
시민	2	· 서울 (문화시민), 대구 (시민문화), (인천: 시민문화부)
생활	1	· 부산 (생활문화)
교육	2	· 경기 (지역문화교육), 서울 (예술교육), (인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	1	· 경기 (지역문화교육), (인천: 문화 유산센터)
시설/공간	1	· 광주 (문화공간), (경기: 박물관, 미술관), (서울: 예술청운영단 극장운영단), (인천: 아트플랫폼), (대전: 문학관), (세종시: 공연사업 본부)
기타 (지역특화)	2	· 경남 (콘텐츠산업), 전북 (관광진흥)

19) 한 부서에서 해당 시책사업 이외에 다른 성격의 업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중점 또는 지향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전담부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부서 명칭에 해당 문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담성의 요소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음

20) <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문화예술정책>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초기 문화정책은 예술창작 진흥 중심의 <예술정책>에 집중되어 있었음. 최근 에는 문화도시, 생활문화, 문화다양성 등 문화차원에서의 이슈에 대응하는, 협의의 <문화정책>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음. 예술정책은 예술창작진흥과 예술 가복지, 문화산업으로서 예술콘텐츠 유통 등의 세부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음. 예술정책과 문화정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함

- 생활문화 사업 전담팀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팀 단위 명칭의 구분은 사업명칭과 직결되기도 하는 업무영역 단위로 구분하였음. 이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팀 단위 조직의 명칭,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명, 팀에 분장된 사업들의 키워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술지원, 문화사업, 시민문화(문화진흥,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하위 사업들을 그룹핑하였음. 이를 기준으로 사업영역 간의 중복성, 연계성을 분석하였음

[표 32] 광역문화재단의 팀 단위 사업영역 구분

부서명 ²¹⁾ 키워드	예술지원	문화사업 / 시민문화			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시설	기타 (지역특화사업)
		문화진흥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분장된 사업들	· 창작지원 · 예술인복지 · 예술단운영 · 레지던스 · 청년예술 · 융합예술	· 문화사업 · 기획사업 · 축제사업 · 문화교류	· 문화향유 · 문화이용권 · 문화의날 · 문화다양성	· 생활예술지원 · 동아리 지원 · 생활문화축제	· 학교예술교육 · 사회예술교육 · 예술교육인력양성	· 문화도시 · 문화재생 · 문화자원 · 문화분권 · 전통보전	· 문예회관 · 창작공간 · 문화공간	· 비엔날레 · 문화재연구 · 관광 · 문화산업

- 본부 단위 명칭은 정책이슈 키워드로, 팀 단위 명칭은 시책사업명 중심으로 분류한 이유는,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슈 변화에 상징적 동조 방식으로 대응하는 문화재단들의 조직전략이 본부 단위와 팀 단위 명칭에서 구분되어 나타나고 상보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즉, 본부 단위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상징언어로 표현되어 정책적 지향점을 나타내고, 팀 단위 명칭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 매칭되는 업무영역으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문화정책을 천명하는 법률의 구성요소로 보면 본부 단위 명칭은 법률의 <목적>, 팀 단위 명칭은 <시책사업> 부분에서 주로 사용된 언어들이 채택됨
- 최근 기관의 혁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서 명칭으로 <뉴텍>, <미래문화> 등 미래지향적 언어가 채택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본부단위 명칭 분석에서는 <지역문화 = 지역에서의 문화>, <생활문화 = 생활 속 문화향유>과 같이 <지역>, <생활>이 정책의제의 키워드로 구분된 것이고, 팀단위 명칭 분석에서는 생활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사업과 문화도시 지정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 등 <지역문화> 사업과 같이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광역시도문화재단들의 본부 단위 조직문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경영파트와 사업파트는 본부급 조직단위로 구분되어 있지만²²⁾, 사업파트는 기관 전체 조직의 규모와 관리감독의 효율성 차원에서 본부 직제 없이 최고 경영자가 직접 관리하는 “부”, “팀”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고려할 사항임(인천, 제주, 전남, 충북 사례)

2) 생활문화 전담부서의 명칭과 업무 분장 현황

-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의 본부 및 팀 단위 명칭에서 <생활문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사업단위 업무로 어느 부서에 분장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생활문화> 관련 시책사업의 위상과 운영구조를 살펴보았음
-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중 “생활문화”를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며 전담부서로 운영하는 경우는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세종시 등 총 6개 기관이 있었고, “생활문화”를 부서 명칭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명칭의 사업부서에서 “생활문화”로 구분된 사업을 별도로 분장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6개 기관이 있었음
- 반면 “생활문화”를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별도 사업으로 분장하지 않은 경우가 강원, 전남, 충남, 울산, 경북 등 5개 기관이었음. 이 기관들은 문화사업, 지역문화, 문화진흥 등의 시민대상 문화향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중심의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표 33] 17개 광역시도의 본부 및 팀 단위의 업무분장 및 부서명칭 비교 (*상세 분석자료 부록 별첨)

“생활문화”를 부서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 사업팀에서 “생활문화”를 별도 사업으로 분장하여 시행하는 경우	“생활문화”를 별도 사업으로 분장하지 않은 경우	사례 수 (총 17개)	비고 (재단(부서 명칭))
O	O		6	경기, 서울, 부산(본부단위명칭), 대구, 충북, 세종시
X	O		6	제주(일상문화 ²³⁾), 인천(시민문화 ²⁴⁾), 대전(시민문화), 경남(지역문화), 광주(문화사업), 전북(문화사업)
X	X	O	5	강원(교류협력 ²⁵⁾), 전남(문화사업), 충남(문화사업), 울산(지역문화), 경북(문화진흥)

- 경기문화재단의 정책사업팀과 생활문화팀, 대구문화재단의 시민문화팀과 생활문화센터운영팀, 충북문화재단의 생활문화팀과 문화복지TF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 제주, 인천, 부산, 대전, 경남, 광주, 충남, 전북,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부분의 재단에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등 생활문화 사업과 문화이용권, 문화다양성 등 문화기본권 관련 사업이 동일 부서 안에 분장되어 있음. 그런데 그 부서의 명칭은 문화사업(3개 사례) / 시민문화(2개 사례) / 생활문화(2개 사례) / 일상문화(1개 사례) / 지역문화(1개 사례) / 문화공유(1개 사례) 팀으로 나타남. 사업영역은 분화 수준 또는 정책이슈와 이를 상징하는 언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여기서 문화사업/시민문화가 생활문화/일상문화/지역문화 보다 포괄적인 개념어로 사용되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음

21) 본 연구가 생활문화 관련 현황 분석에 집중하므로 사업영역 중 메세나, 홍보, 정보화 등 주로 경영부서에 소속된 업무들은 제외하고 사업본부 소관 업무 중심으로만 살펴보았음

22) 경영파트는 본부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본부에 준하는 “실” 체제로 운영됨. 경북문화재단의 경우 “사무처”로 편제

23) 생활문화 사업이 분장되어 있는 부서의 명칭

24) 인천문화재단은 본부 체제가 아니고 “부”체제인데, 시민문화부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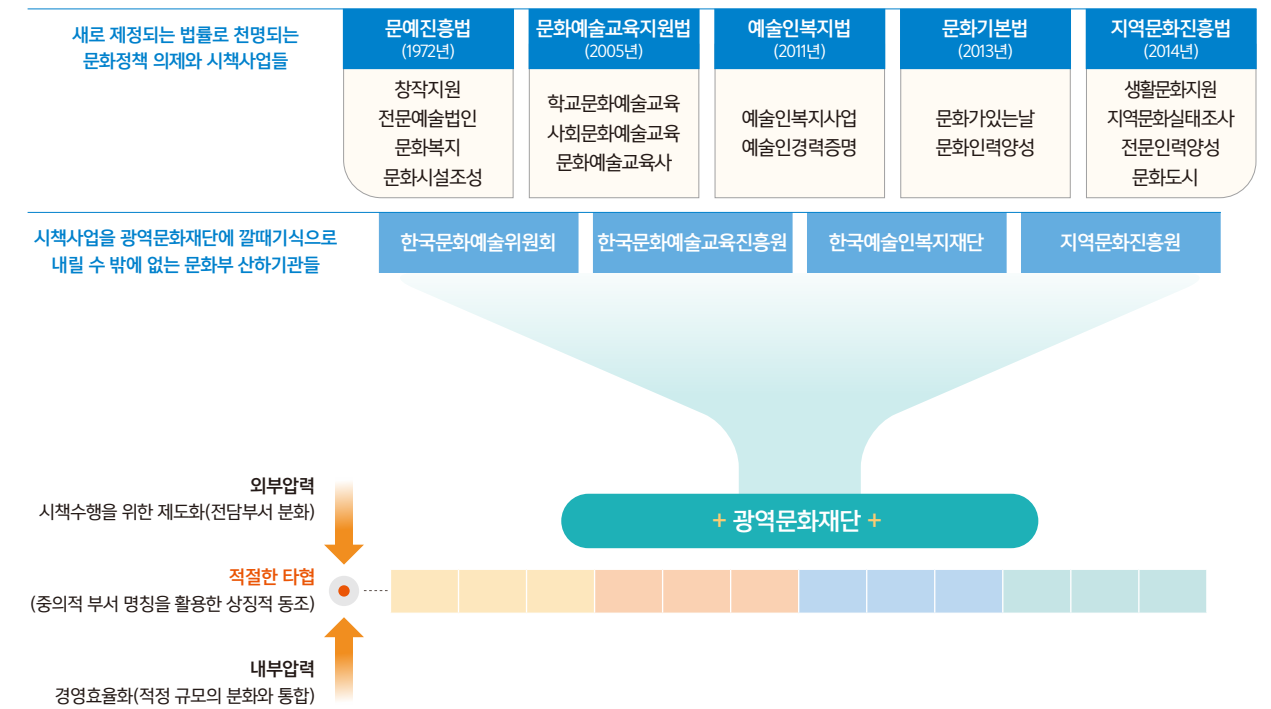
25) 시민 문화향수 관련 사업 담당 부서의 명칭

- 이 경우 같은 단어가 본부-팀-사업 단위 명칭에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서 해당 개념을 바라보는 기관의 인식을 확인할 수도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중시하는 [시민], [생활], [지역]은 본부 단위와 팀 단위 조직 명칭에서의 위계관계는 주로 [시민문화] > [생활문화], [생활문화] ~ [지역문화]인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역문화팀]과 부산문화재단의 [생활문화본부]와 같이, [지역문화 = 지역에서의 문화], [생활문화 = 생활 속 문화향유] 차원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함
- <시민>이라는 키워드의 경우, 본부 단위에서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 등의 정책적 지향점을 나타내는 상징어로 쓰이고, 팀 단위 업무 구분에서는 <문화진흥>,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영역에 속하는 시민문화향유 관련 업무 전반을 <시민문화사업>이라고 통칭하는 포괄적 개념어로 사용됨
- <시민문화>가 사업영역을 지칭하면서도 <시민참여>라는 정책적 지향성까지 포함하여 상징하는 반면, <문화사업>은 매우 중립적으로 사업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만 사용되고 있음. 특히 문화정책의 초기 분화단계에서 예술진흥 사업과 구분하여 시민 대상 문화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3) 문제점과 개선점 도출의 단서- 조직의 분화와 생활문화 사업 전담부서 존재 이유

- 광역시도문화재단 내 경영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분화 이외에 사업 담당 부서들의 분화 정도는 연혁이 오래된 재단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분화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²⁶⁾
- 갈수록 세분화되는 문화정책 이슈에 대응하여 [법령 제정]=>[전담기관 설립]=>[예산편성 후 지역배분]=>[이에 대응한 지역의 시책사업 시행] 방식으로 국가 문화정책 시책사업이 실행됨.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할 지역의 주체는 지역문화재단이 거의 유일하므로 지역문화재단의 업무영역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음. 이는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세분화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제도화 압력>임
- 정부시책사업에 달려오는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갈때기처럼 중앙정부 산하 기관의 사업들을 받아내야 하는 광역문화재단은 전담부서를 세분화하여 신설하기를 바라는 외부의 제도화 압력²⁷⁾과 경영 효율화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기관 내부의 압력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조직구조를 설정하게 됨. 즉, 상위 법령에 근거한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독립 부서로서 전문성을 강조해야 하는 동시에, 한 부서 안에 업무 분장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거나 본부 단위로 묶어서 사업부서들을 통합 관리·감독하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그림 12] 제도화 외부 압력과 경영 효율화 내부 압력 사이의 절충



- 이와 같은 조직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압력에 대응하여, 기관들은 경영여건과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를 선택하게 되므로, 구조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반면, 부서의 명칭은 이에 매칭되는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또는 각 기관의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상징언어로 선택됨. 특히 중앙정부의 의제 설정 영향력이 커지고, 산하기관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집행하는 예산에 비례하여 지역문화재단들의 재정적 종속성이 강해질수록, 시대별로 국가 차원에서 중시하는 문화정책 이슈, 특히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서 강조하는 시책사업 분야를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됨²⁸⁾
- 광역문화재단의 팀 단위 명칭은 초기에는 <문화사업> 등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언어와, <예술지원>, <축제사업>, <시민문화>, <예술교육>, <공연사업> 등 전통적인 문예진흥 영역구분 언어로 표현되었음.²⁹⁾ 최근에는 <문화복지>, <문화접근성>, <생활문화>, <지역문화>, <예술인복지>, <청년문화>, <융합예술> 등 정책이슈를 표현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
- <시민문화>라는 명칭은 본부 단위 명칭(서울(문화시민), 대구) 뿐만 아니라 팀 단위(인천, 대구, 대전) 명칭까지 포괄하면 <문화사업> (본부단위 1회(강원), 팀단위 3회(광주, 충남, 전북)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임. 이는 <문화사업>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생활 속 문화기본권과 민주시민의 문화참여를 강조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기조에 부합하여 <문화>와 <시민>을 모두 강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26) 기관 연혁과 조직 분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재단들을 설립연도별로 나열하여 분석해보았으나, 조직의 성장 과정 중에서 조직구조는 분화와 통합을 반복하게 되므로 분화정도가 기관의 연혁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양상을 보여줌

27) 예술교육사업과 생활문화/지역문화/시민문화 사업 간의 유사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따로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국비예산이 지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예술교육은 팀 단위에서는 명확하게 분화되어있는 양상을 보여줌.

28)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사업팀, 문화기획팀이라는 부서명이 2015년에 현재의 <시민문화부>로 변경된 것은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이 있음. 타 기관에서 <생활문화팀>이라는 부서명을 사용하게 된 것도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이 큼. 생활문화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국비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지정된 조직을 운영하고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압력이 존재함

29) [교육]이 본부단위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는 설립 초기부터 예술교육사업을 강조했던 경기문화재단과 전국 유일하게 독립된 예술교육본부가 존재하는 서울문화재단 2개 재단뿐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콘텐츠산업본부]는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통합된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관광진흥본부]의 경우는 향후 지역문화와 여가문화의 확장을 고려할 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범위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던져줌

- 재단들은 경영 효율화의 내부 압력에도 조응해야 하므로, 한정된 숫자의 부서로 정부 시책사업의 의미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부서 명칭을 선택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됨. 특히 지역분권과 시민자치,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기본권을 중시하는 문화민주주의 정책 기조 아래에서 [시민], [지역], [생활]은 각각 중요한 의제이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념임. 이 경우 기관들은 폭넓게 해석되는 단어를 선택하여 제도화 압력에 “상징적 동조”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됨
- 생활문화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문화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시민 문화향유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정 등 국비 시책사업예산이 배정되면서 생활문화를 부서 명칭에 내세우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부산문화재단이 본부 단위에서 생활문화라는 말을 사용하여 중앙정부 시책에 강한 동조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시민문화부> 아래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편제하여 상징적 동조로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키워드가 대변하는 정책이슈와 지향가치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치가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의 뜻과 시민이 인식하는 개념 사이에 차이가 적을수록 정책의 의도가 명확히 구현된 상황, 즉 제도적 가치(Institutional value)가 구현된 상황임. 이를 위해서 정책주체와 시민이 공유하는 “상징적 세계”(Symbolic Universe)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함³⁰⁾

[표 34] 정책기조에 대한 상징적 동조에 사용되는 키워드와 표현 가치

문화정책 이슈 핵심 키워드 ³¹⁾	연관어 (부서명/사업명에서 결합)	지향/표현하는 가치
예술 문화 시민 지역	창작, 진흥, 지원, 전문단체, 예술단, 시설, 예술가, 문화산업, 융합, 권리, 복지, 정체성, 전통, 다양성, 환경, 생활, 축제, 공간, 향유, 참여, 거버넌스, 자원, 교류, 공동체 개발, 재생, 문화도시, 사회적 가치 ...	수월성, 독창성, 자율성, 표현, 보편성, 다양성, 주체성, 개방성, 고유성, 일상성, 융합성, 혁신성 ...

30) “Symbolic Universes of European Societies” (Sergio Salvatore, 2019년, European Week of Regions and Cities 발표자료) 중 “상징세계와 공공정책의 관계 : Symbolic universes and politics” 부분 참조. 제도화와 정책의 정당성 확보, 이를 위한 상징세계의 구축 관련 내용은 “실재의 사회적 구성” (피터 버거, 토마스 루크만 저, 하홍규 번역, 문학과 지성사, 2013년) 참조
31)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 프레임을 위해 4개의 키워드를 선정할 것뿐, 문화정책에는 이보다 많은 키워드가 존재함

IV

광역생활문화센터 사례 분석

1. 운영 사례 분석

- 부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2. 경기도 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분석

- 부천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3. 주요 정책 쟁점 제시



광역생활문화센터 사례 분석

1. 운영 사례 분석

부산문화재단

1) 사업배경 및 경과

▶ 사업배경(근거, 조례, 정관 등등)

- 2012년 1월 “부산문화재단 2020 비전” 수립하여 전략과제 중 “나눔을 통한 예술문화 자생구조 창출”을 설정하고 시민 문화동아리 조사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시민 예술활동 간접지원 확대 등 시민의 문화예술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창조력과 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2014. 1. 28. 제정, 2014. 7. 29. 시행)
-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3장 생활문화진흥(2015. 11. 4. 제정)
- 부산문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
 - 1호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사업
 - 5호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 9호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기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사업경과(연혁 위주)

- 2013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사업” 재단 자체 기획운영
 - 2012년 수립한 “부산문화재단 2020 비전” 전략과제 실행
- 2014 생활문화예술축제 “날마다 생활문화 축제-일생예제” 운영
- 2015 생활문화 관련 부산시 재원 확보로 위탁사업 4건 운영
 -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전수조사 / 육성지원 / 축제 지원
 - 시민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육성지원
- 2015. 9.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방안 포럼 추진
 - 기획홍보팀 ‘부산 문화로 통’사업 연계
- 2016 지역별 및 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 최초 구성(지역 11곳, 장르 6개)
 - 생활문화예술제 14회 개최

- 2017 지역별 및 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신규 지역 3곳, 장르 1개)
 - 생활문화예술제 20회 개최
- 2017. 9. (가칭) 청자빌딩 생활문화센터 준공 공사 추진
- 2018. 4. (가칭) 청자빌딩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 2018. 6.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정 제정
- 2019 부산 생활문화페어 개최
- 2019 부산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계간지 “브로컬리” 최초 발간
- 2020 생활문화 페어 주간 ‘사우나’ 개최

2) 사업 운영 조직

▶ 운영방식: 직접, 위탁 등등

[표 35] 2013~2021 사업 운영방식 (부산문화재단)

구분	2013	2014	2015~2021
운영방식	재단 직접 운영	재단 직접 운영	재단 수탁 운영 (위탁처: 부산시 문화예술과)

▶ 전담부서 및 운영인력 현황

[표 36] 전담부서 및 운영인력 현황 (부산문화재단)

구분	2013	2014	2015.1.~		2015.4.~	2016	2017.1.~	2017.8.~	2017.9.~	2018.~
전담 부서	기획경영실 기획홍보팀	문예진흥실 문화복지팀	문예진흥실 문화콘텐츠팀	문예진흥실 문화복지팀	생활문화본부 문화사업팀			생활문화본부 문화공유팀		
운영 인력	팀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팀장 1명 팀원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팀장 1명 팀원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기간제 2명)	팀장 1명 팀원 3명 (기간제 2명)	팀장 1명 팀원 7명 (센터 3명)	팀장 1명 팀원 4명 (센터 3명)

※ 특이사항

- ① 2015. 3월 직제개편시 문화복지팀에서 담당했던 ‘시민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육성지원’ 사업을 문화사업팀으로 조정
- ② 부산생활문화센터 상주인력은 기본 3명이며, 필요시 임시직 운영

3) 사업 예산현황

▶ 최근 3년간 사업 운영예산 현황

[표 37] 2019~2021 사업 운영예산 현황 (부산문화재단)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2021
재단 총 사업비	29,959	32,790	34,729
비율(사업/총사업)	4.2%	3.0%	3.3%
사업 운영 예산	1,267	980	1,156
① 생활문화 활성화	660	546	656
인건비(급여, 제수당, 성과급, 퇴직금)	36	0	0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등)	592	525	635
운영경비(관리비, 4대보험, 제세, 비품 등)	32	21	21
②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607	434	500
인건비	99	45	47
사업비	302	213	259
운영경비	176	176	169
대행수수료	30	0	25

4) 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연도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요약

[표 38] 연도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부산문화재단)

2013 자체	2014 자체	2015 시비	2016~2019 시비	2020 시비	2021 시비
· 동아리 실태 조사 ·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지원	· 생활문화축제 운영	· 시민 생활문화 동아리 전수조사 · 시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 시민 생활문화 동아리 축제 지원 · 시민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활동 지원	· 생활문화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역량강화 등) ·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 생활문화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역량강화 등) ·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 생활문화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역량강화 등) ·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연계 주간행사

▶ 자체 기획 사업

- 2021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 지원 <사우나> 프로그램 운영
 - 6개 마을(구포동, 거제동, 봉래동, 영주동, 재송동)
- 부산생활문화센터 시민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2021
 - 전시, 답사, 강좌 등 기타 프로그램 운영
 - <한성살롱> 비대면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2020, 2019, 2018
 - 공간활성화 프로그램: 공감드라마, 음악이 보인다, 어쿠스틱 기타의 정석, 홀로뜨개, 함께 뜨개, 퇴근길 영화제, 한성1918 앙상블, 기획 전시 등
 -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 생활문화 확산 프로그램, 공동체 공간 프로그램, 한성1918 일상 등
- 2018 부산생활문화센터 개관 행사
- 2018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기획사업 진행
 - 양성 교육 29명 수료
 - 수료자 중 10명을 7개 생활문화센터, 2개 구, 1개 문화원에 배치
- 2018 부산국제영화제(BIFF) 연계 커뮤니티 행사

▶ 동아리 지원 사업

※ 연도별 동아리 지원 주요내용 요약

[표 39] 연도별 동아리 지원 주요내용 (부산문화재단)

2013	2015	2016~2017	2020
·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지원	· 동아리 예술창작활동 지원	· 장르별 및 지역별 생활문화 연합회 구성 지원	· 독립책방, 지역출판사 공간 기반의 생활밀착형, 지역친화적 인문활동 모델 구축 지원

- 2020 생활 인문 실험 프로젝트 지원
 - 일상에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인문탐구와 실천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과의 접점 확대 및 생활문화 활동 신규 유입층 발굴 목적으로 신설 운영
- 2016~2017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총 21개)
 - 2017 지역별 3개, 장르별 1개 신규 구성
 - 2016 지역별 11개, 장르별 6개 신규 구성

* 생활문화연합회 구성 목적: 단순 지원금 지원 방식에서 사업포맷을 대대적으로 변경, 동아리들의 네트워크를 조직 및 구축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구·군 및 타 장르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을 위한 월별 일정(2016년 기준)

[표 40]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을 위한 월별 일정 (부산문화재단)

1~2월	2~3월	4~5월	6~12월
· 16개 구·군 및 생활문화센터 관계자 간담회 운영 (지역별, 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 구성 논의)	· 권역별, 장르별 생활문화 동아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생활문화연합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지원	· 지역별, 장르별 생활문화 연합회 구성	· 지역별, 장르별 생활문화 연합회를 통한 축제 운영 등

- 2015 동아리 육성지원: 동아리 예술창작활동지원 73건
- 2015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육성지원: 구성원 50% 이상이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새터민, 장애인, 노숙인, 재한외국인, 청소년, 노년층인 동아리 27건 지원
- 2013 권역별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
- 3개 권역별(동부산권, 원도심권, 서부산권) 6개 커뮤니티 및 매개협력형 1개 단체 지원

[표 41] 생활문화연합회 운영형태 및 운영내용 (부산문화재단)

운영형태	운영내용	운영단체	선정 및 지원방식
공공·민간 영역 유휴시설 공간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공간으로서 기능적 역할이 가능한 공공기관 유헴공간 활용 · 기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영역의 공간기부 활용 · 주민과 아마추어 예술 동호회 창작 거점화 · 민간의 자발적 기획 존중 · 커뮤니티와의 연계방안 모색 · 권역별 2개씩 총 6개 공간선정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공기관/ 민간단체/ 공공·민간 컨서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단체의 협약 ▸ 간접지원 (발표, 연습, 홍보) ▸ 공공민간단체 공모 (6개 단체) ▸ 생활문화 육성 사업비지원 <p>*거점공간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중점사항 위주 지원</p>
매개자 협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커뮤니티 문화매개자 연계, 주민들의 참여 및 자율 운영 · 예술의 향유와 생산과 교육이 융합된 창작공간 · 거점공간과 연계방안 모색 · 1개 단체 선정 	문화기획자, 마을만들기 활동가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동아리와 커뮤니티 문화매개자 연계 ▸ 문화예술 동아리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비 지원 ▸ 동아리 교육 및 지도, 커뮤니티 아츠형 사업비지원

▶ 네트워크 사업(역량강화, 회의 등)

- 2021 생활문화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생활문화 클라쓰> 운영
 - 생활문화의 장기적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기획자 양성 및 사회적 다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 효과 기대
 - 일반시민, 생활문화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자, 생활문화연합회 및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함
 - 생활문화연합회 및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기획자로 양성하겠다는 체계를 갖추
- 2020, 2019, 2018, 2017 역량강화 워크숍, 전문가 컨설턴트 운영 등
- 2021, 2020, 2019 부산생활문화센터 원도심 네트워크 사업 등
 - 2021년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
 - 강강이, 두송, 장전 3개 생활문화센터 연계 프로그램
 - 강강이, 구락, 두송, 수영, 쇓골 5개 생활문화센터 연계 홍보 프로그램
 - 원도심 문화네트워크 회의 참여
 - 기초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운영기관 협의회 운영(2곳)
- 2017 토론회 등

▶ 생활문화축제 기획 및 지원

- 지역별·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가 주관하는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경비 지원
 - 2021 21회, 2020 19회, 2019 21회, 2018 21회, 2017 20회, 2016 14회
- 부산 생활문화 페어 개최
 - 2021 생활문화 페어 ‘프렌즈’ 11월 중 2일간
 - 2020 생활문화 페어 주간 ‘사우나’ 5일간
 - 2019 3일간
 - 2018 생활문화 네트워크 페스티벌 ‘다가치 놀자’ 1일간
 - 2017 생활문화 네트워크 페스티벌 ‘약기야 놀자’ 1일간
- 2015 생활문화동아리 축제 지원
 - (전시) 취미의 재발견
 - (공연) 전국민 춤추기 프로젝트-춤출까예
 - 생활문화축제: 공연, 전시 및 지축을 울려라(풍물패 1,005명 길놀이)
- 2014 날마다 생활문화 축제 ‘일상예제’
 - 공연, 전시 및 청소년 문학동인지 제작, 플래쉬몹 제작, 우리마을 생활문화 축제 지원 등

[표 42] 2014 날마다 생활문화 축제 관련 내용

구분	사업명	일시	장소	공모기간 (모집기간)	내용	비고
날마다 생활 문화축제 - 일생예제	공연 -얼씨구예-	10.25 ~ 10.26	용두산공원 야외특설무대	공고기간 7.4~ 7.29 접수기간 7.21~7.29	· 음악, 전통, 춤, 연극 등 분야별 생활문화동아리 및 개인 공연진행 · 동아리 소개마당 · 권역별 동아리 공연 지원	38개팀 신청 관람객수 2,500명
		8.9 ~ 9.27	· 8.9 드림홀 · 8.16 금정문화회관 · 8.23 영도문화회관 · 8.30 북구 학생예술문화회관 · 9.27 해운대 문화회관			
	전시 -싱니로 장비다툼-	7.29(화) ~ 8.24(일)	사상인디스테이션	7.3~7.16	· 만들기, 수집, 사진 등 시민 생활예술 활동 발굴(시각예술 포함)	19팀 참여 관람객수 4,000명
	청소년 문화동인지 제작지원	6월 ~ 11월	-	7.15~10.14	· 청소년 문화동인지 제작지원 · 총 2팀 지원 - 물푸레문화회/지팡이	2팀 선정
	퍼포먼스	2014. 8. 15	영화의 전당	-	· 춤출까예 - 140명 스트릿댄스 퍼포먼스	140명 참여 관람객 1,000명
		2014. 10.5	용두산공원 ~ 광복로	-	· 지축을 울려라! - 대규모 길놀이 퍼포먼스	450명 참여 관람객 3,000명
	플래쉬몹 제작지원	2014. 6월 ~ 11월	부산 시내일원	7.3~7.24 접수 7.17~7.24	· 플래쉬몹 공모 지원 - 공모를 통해 10개팀 내외의 작품선정 지원	9팀 지원
	우리마을 생활문화 축제지원	10월 중	공모로 선정된 지역	9월~11월	· 동래지역가을밤 평화콘서트 · 행복한 가족의 신나는 마을축제 (영도문화회관 마당) · 금정산성마을 상생문화축제 · 마을익는 공창대동제	4단체 선정 관람객 2,000명
끼룩끼룩 (끼,look 끼,look) 어워즈		2014.12.5	부산일보 10층 대강당	-	·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사업 전반에 대한 결과, 성과 공유장	93팀 참여

▶ 생활문화 조사

- 2015 생활문화동아리 전수조사
 - 조사방법
 - 직접조사: 2013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조사 및 발굴
 - 관련 기관을 통한 조사 및 동아리 직접 등록(온라인) 유도
 - 조사결과: 582건 확인, 16개 구군별 및 장르별 분포 현황, 연령대, 설립연도, 모임공간유무, 동아리 성격 등 파악

▶ 2013 자생적 문화예술 커뮤니티 실태조사

[표 43] 2013 자생적 문화예술 커뮤니티 실태조사 관련 결과

컨택 기관	구체적 대상	1차 컨택	최종 컨택 동호회 수
계			총 805개
행정기관	구청, 주민자치센터, 기타 기관 등	구청 16개, 주민자치센터 210개, 기타 기관 5개	214개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298개교, 중학교 165개교, 고등학교 155개교, 대학(교) 22개교	282개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복지관 61개	49개
공공문화시설	문화원, 미술관, 문화회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문화원 26개소, 미술관 46개소, 문화회관 8개소, 도서관 148개소, 평생학습관 61개소	119개
사설문화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백화점 10개소, 대형마트 20개소, 기타 3개소	6개
사설기관	학원, 아파트, 문화예술단체	학원 5,124개소, 아파트단지 561개소, 문화예술단체 48개소	12개
기타	종교단체, 종합병원	종교단체 1,716개소, 종합병원 34개소	123개

활동영역	동아리수(개)	비율(%)	동아리 평균 회원수(명)
음악	187	23.2	24.3
공연	31	3.9	24.6
미술	65	8.1	18.2
독서/인문	75	9.3	21.1
사진/영상/미디어	28	3.5	40.9
무용/댄스	106	13.2	20.1
생활문화/취미	75	9.3	27.6
학습/어학	65	8.1	19.5
종교/봉사	161	20.0	25.7
교육/생태	12	1.5	24.7

▶ 홍보사업: 부산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계간지 브로컬리 발간

- 200여개 문화공간에 연 11,000~12,000부 배포
- 2021년부터 웹진 형태로 변경

▶ 대관사업: 부산생활문화센터 공간 대관

- 2021 421건, 3,029명 이용
- 2020 547회 6,590명 이용
- 2019 1,024회 15,879명 이용
- 2018 378회
 - *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정”에 따름

5) 연도별 주요 운영 성과

▶ 사업운영 정책화 및 예산 확보의 측면

- 2013년 재단 2020 비전 실행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정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기획 및 운영으로 생활문화 사업 기반을 최초로 구축
- 2015년 부산시에 시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 육성지원, 동아리 축제 지원, 동아리 전수조사,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지원까지 총 4개 사업, 7억원의 예산을 확보
- 2017년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비는 신규 위탁사업비로 대행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었고 2020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대행수수료를 확보하여 재단 자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함
- 2018년부터 일부 부산시 위탁사업비가 출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해소되면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예산이 재단의 출연금 고유목적사업이 됨.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2020년부터 출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예산과목 해소 되었으나 2021년 다시 위탁사업비로 조정됨

▶ 부산생활문화센터 공간 확보 측면

- 2015년 부산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자빌딩(옛 한성은행 부산지점, 중구 동광동)을 18억5천만원에 매입 하여 국·시비 7억5천만원을 들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였고 2017년 8월 중 재단이 공간 조성 및 개관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수탁함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을 수탁하면서 센터 운영 고정인력 인원을 3명 확보하였음. 필요시마다 임시직, 문화전문인력 등을 활용하고 있어 사업운영 총 인원은 매해 변동사항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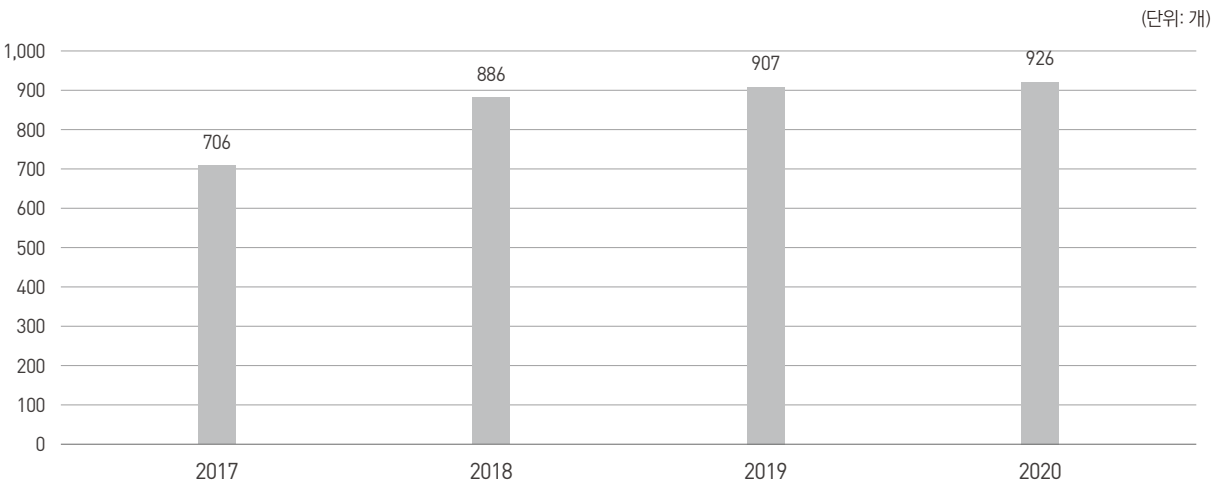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의 효율성 측면

- 2016년부터 기존 4개 사업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통폐합

▶ 생활문화 활성화의 정량적 성과 측면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1개 생활문화연합회 구성
 - 지역별 14개(16개 구·군 중 서구, 기장군 2곳 미설립)
 -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 장르별 7개: 국악, 기악, 무용, 문학, 미술, 밴드, 연극
- 아래는 2017년부터 생활문화동아리 누적 수

[그림 13] 생활문화동아리 누적 수



*출처: 2020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요약

- 2013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사업 기획운영 (자체 200백만원)
 - 자생적 문화예술 커뮤니티 실태조사(부산시 문화예술 동아리 조사)
 - 권역별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3개 권역, 6개 커뮤니티 거점공간 지원, 1개 매개자 협력형 단체 지원)
- 2014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사업 운영 (자체 200백만원, 국비 40백만원)
 - 생활문화예술축제 “날마다 생활문화 축제-일생예제” 운영
 - 우리마을 생활문화축제 지원
 - 열씨구예(藝): 생활문화동아리 공연부문 축제
 - 싱리로장비다툼: 생활문화동아리 전시분야 축제
 - 청소년 문학동인지 제작지원
 - 퍼포먼스(춤출까예, 지축을 울려라): 대규모 춤 및 풍물 퍼포먼스
 - 플래쉬몹 제작지원
 - 끼룩끼룩 시상식: 생활문화동아리 축제 참가자 네트워크 파티
- 2015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전수조사 (시비 50백만원)
 - 2013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조사 및 신규 발굴하여 시민생활문화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DB와 네트워크를 구축
- 2015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시비 200백만원)
 -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예술창작활동 지원
 - 동아리 연합공연, 전시 등 네트워크 기반 지원
 - 장르별 활동 지원
- 2015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축제 지원 (시비 200백만원, 자체 100백만원, 국비 50백만원)
 - 시민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전시) 취미의 재발견
 - (공연) 전국민 춤추기 프로젝트-춤출까예
 - 생활문화축제: 공연, 전시 및 지축을 울려라(풍물패 1,005명 길놀이)

- 2015 시민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육성지원 (시비 100백만원)
 - 동아리 구성원의 50% 이상이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새터민, 장애인, 노숙인, 재한외국인, 청소년, 노년층인 동아리 대상 지원
- 2016 생활문화 활성화 (시비 500백만원)
 - 지역별 및 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지역 11곳, 장르 6개)
 - 생활문화예술제 14회 개최
- 2017 생활문화 활성화 (시비 500백만원)
 - 지역별 및 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신규 지역 3곳, 장르 1개)
 - 생활문화예술제 20회 개최
- 2018 생활문화 활성화 (출연금 700백만원)
 - 지역별, 장르별 생활문화예술제 21회 개최
 - 교류형 생활문화예술제 3회 개최
 - 생활문화연합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전문 컨설턴트 운영
- 2019 생활문화 활성화 (출연금 660백만원)
 - 지역별, 장르별 생활문화예술제 21회 개최
 - 16개 생활문화연합회 대상 성장 프로그램 운영
 - 타 지역 우수 생활문화축제(행사) 참여
 - 부산 생활문화페어 개최
- 2020 생활문화 활성화 (출연금 546백만원)
 - 지역별, 장르별 생활문화예술제 19회 개최
 - 2020 생활문화 페어 주간 '사우나' 개최
 - 생활문화예술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
 - 생활문화연합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 인문 활성화 지원

* 본예산 656백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부산예술인 특별 지원 사업확대에 따른 긴급지원 대책 및 시책 수행에 따라 예산 감액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사업 주요내용 요약

- 2017. 9. (가칭) 청자빌딩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개관 준비 사업 (시비 400백만원)
 - '17. 9. ~ 12. (가칭) 청자빌딩 생활문화센터 준공공사 추진
 - '17. 11. 개관기념 네트워크 페스티벌 '악기야 놀자' 개최
 - '18. 1. ~ 3. 시설 조성 및 개관 준비
 - '18. 4. ~ 5. 개관식 및 시범운영
 - '18. 6. 시설대관 및 운영규정 수립 등
- 2018 (가칭) 청자빌딩 생활문화센터 운영 (시비 600백만원, 자체수익 5백만원)
 - 생활문화 네트워크 페스티벌 '다가치 놀자' 개최
 - 부산생활문화센터 개관 행사 개최
 -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시설 내 10명 배치
 - 기획 프로그램 3개 운영
 - 생활문화동아리 및 지역주민 대상 대관

- 2019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시비 600백만원, 자체수익 7백만원)
 - 기획 프로그램 4개 운영
 - 생활문화계간지 브로컬리 발간 3회
 -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 공간 대관
- 2020 부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출연금 434백만원)
 - 기획 프로그램 4개 운영
 - 생활문화계간지 브로컬리 발간 4회
 -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 공간 대관

* 본예산 504백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 예산 감액

6) 재단 다른 사업(교육사업 등)과의 연계성

▶ 2013 기획홍보팀 ‘부산 문화로 통’ 포럼 연계

- 주제: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방안
- 내용: 생활문화예술의 정의, 지원정책 현황, 국내외 사례 등을 나눔
 - 발표사례 내용 중 ‘부산 매축지 할머니 이야기 프로젝트’가 누구나 표현하면 예술이 된다는 생활문화예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됨. 해당 프로젝트는 2010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최한 콜로키움에 참여한 예술작가, 문화예술 교육 기획자들이 뜻을 모아 ‘이마고 그림책포럼’이라는 소모임을 만들고, 2011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BAL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진행된 사업임
 - “BAL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교육사례 등을 연구·토론하는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자율적 학습소모임을 지원하며, 연구모임을 통하여 습득된 성과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산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 위 자율연구모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 공모사업의 한 유형으로 추진되었음. 이후 중단되었다가 2020년, 2021년에 용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공간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지점이 있음. 그러나 문화교육팀 사업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음

7) 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체 사업평가 의견에 대한 기초분석

- 생활문화연합회의 조직 권력화 및 경직성 문제 발생
 - 2016년부터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구·군단위 및 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를 구성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부터 연합회 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점차 권위적인 조직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함. 이에

- 2019년까지 재단 담당부서 내 생활문화연합회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20년 생활문화연합회를 통한 축제 지원은 지속하되 지역 내 기초 생활문화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주간행사 추진함
- 생활문화 동아리에 대한 범위의 모호성
 - 생활문화 동아리에 대한 범위의 모호성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의 꾸준한 의견이 있었음. 생활문화동아리 회원을 예술가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짐
- 생활문화 동아리 수 증가 현황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문화예술제 지원 여건
 - 축제 지원만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역량강화 프로그램, 동아리 및 회원 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는 있음
 - 예산의 양적 증대도 중요하겠으나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체 사업평가 의견 요약

- 2015년 사업평가 문제점
 - 육성지원: 정산의 어려움
 - 축제지원: 학원 수강생들이 모여서 참가하는 동아리의 경우 단순 학원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팀이 대부분이었으며 자발적인 네트워크 교류가 사실상 어려움
 - 전수조사: 생활문화동아리의 특성상 꾸준한 업데이트와 발굴이 필요함.(자생적으로 형성된 3인 이상의 시민 아마추어 동아리라는 특성상 규모가 작아 신규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동아리들이 존재)
 - 문화소외계층 동아리: 문화소외계층과 일반 시민으로 지원 유형을 구분하여 진행한 결과 신청 및 사업 운영 시 혼돈을 야기하였고 정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아리가 많았음
- 2016년 사업평가 문제점
 - 연합회 참여 동아리 수 확보 부족에 따른 미구성 지역 및 장르 발생
 - 연합회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 2017년 사업평가 문제점
 - 생활문화연합회 가입 동아리 수 증가,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횟수 확대 요청 등으로 인해 예술제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 생활문화연합회 내 운영위원회 및 개별 동아리 간의 갈등·분쟁 발생
 - 생활문화예술제 지원금 정산 미흡
 - 연합회 미구성 지역 및 장르 발생
- 2018년 사업평가 문제점 및 애로사항(현장 및 자문의견 등 포함)
 - 지역 공동체로서의 생활문화연합회 역할 미흡
 - 생활문화연합회의 폐쇄성, 낮은 주체의식, 권력화 문제 야기
 - 생활문화연합회 내 운영위원회 및 개별 동아리 간의 갈등·분쟁 발생
 - 생활문화동아리의 범위에 대한 모호성 문제
 - 부산생활문화센터의 교대 및 주말 근무에 따른 상근자의 피로 누적 및 근무환경의 안전 문제(경비 체제가 없는 야간 운영)
 - 부산시 소유의 근대건조물로서 원활한 시설 운용 관리에 따른 행정적 제약
 - 하자 보수, 인테리어, 아트카페 조성 등 시설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 자체 프로그램 기획 미비
- 2019년 사업평가 애로사항

- 생활문화연합회 일부 운영위원들의 기득권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 생활문화동아리 간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증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
- 생활문화연합회에 가입하려는 동아리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술제 지원금의 한계로 인해 많은 동아리가 예술제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임
- 임시직 계약 만료에 따른 업무과다, 야간 및 주말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도 누적
- 부산생활문화센터 내 아트카페 사용료 연체 상황 발생
- 대관으로 인한 민원업무 과중으로 재단 각종 행정처리 등 작업 효율성 낮음
- 야근 근무 시 보안대책 미비
- 2020년 사업평가 담당자 의견
 - 지역별 14개, 장르별 7개 등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장소, 세부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
 - 건물 노후로 인해 잦은 누수 발생(외관 벽돌 사이 누수 침해, 건물 외벽 전체 보수 필요)

8) 사업 운영 개선방안 (위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조치사항 포함)

- 2015년 4개 사업으로 운영되던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관련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사업간 유사중복 및 지원대상의 혼란 제거(문화소외계층 동아리 및 일반 동아리 지원)
- 2016년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을 통해 동아리 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으나 내부 갈등, 분쟁 및 권력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조직화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연합회 혹은 동아리 간 비전, 미션 등을 수립하면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자발적 생활문화인 혹은 생활문화공동체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조직 내 제도화, 규칙화 등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생김. 조직화를 원하는 생활문화연합회와 개별 활동을 원하는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한 선택적·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의 충원 혹은 근무형태의 유연화가 필요해 보임. 현재 부산생활문화센터는 3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 주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맞추어 다시 주말 근무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음. 또한 월요일만 휴관,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임.(야간 및 주말 교대근무 관련)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연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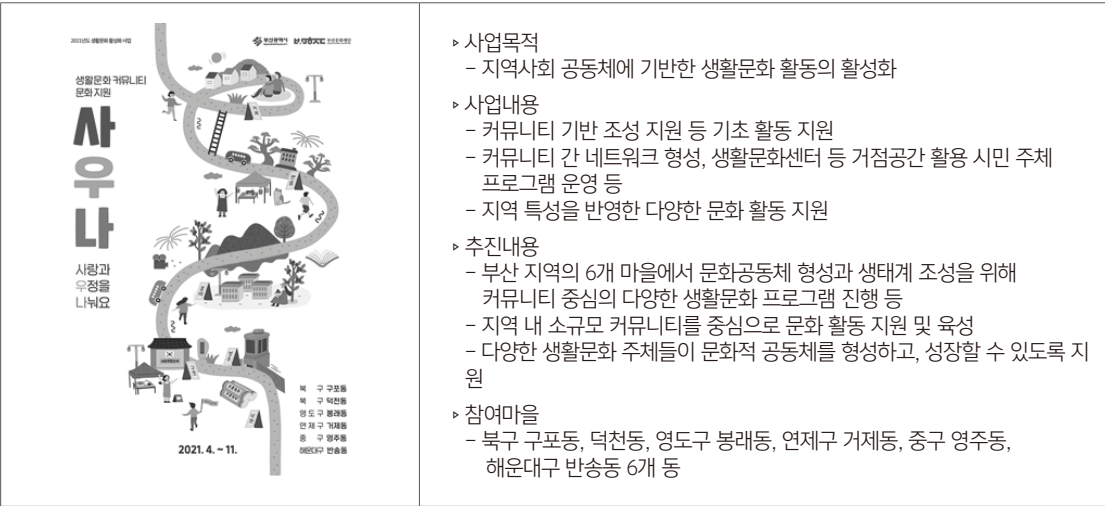
- 2020 생활문화 페어 주간 행사 “사우나”
 - 참여: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강강이, 수영구, 구락, 두송 5개 센터

[표 45] 2020 생활문화 페어 주간 행사 “사우나” 관련 내용



- 2021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지원 “사우나”
 - 2020년 생활문화센터 연계 사업에서 2021년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으로 사업 운영 방식이 변경됨

[표 46] 2021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지원 “사우나” 관련 내용



- 2021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자체 현안문제 분석 현황³²⁾

[표 47] 2021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자체 현안문제 분석

현안문제	추진방향
1. 기존 생활문화연합회 중심 지원의 한계, 새로운 지역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 부재 - 지역별, 장르별 생활문화연합회 중심 지원으로 시민 문화 활동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와 결합되는 지점에 대한 지원 부족 - 지역 내 특정 연합회에 소속되는 동아리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민 동아리도 수혜 받는 유연한 지원체계 마련	1. 지역 및 커뮤니티 중심 지원 및 시민-생활예술인-지역 기관 등 통합지원 2. 지역 내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화활동 지원 및 육성 3. 각 지역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 내 증대되는 생활문화 활동을 구군 기초 지자체 및 생활문화 센터, 지역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지원
2.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등 거점공간 증대에 따른 지원 필요 - 18개 생활문화센터 조성 완료(20. 12. 기준) 등 지역별 거점공간이 마련되었으나 지역 내 센터 공간 편차가 심하며, 실제 운영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	1. 해운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북구 구포이음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사무국장, 교육공동체 사람과 마을 협동조합 대표, 봉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영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해맞이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등 6명
3.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미흡 - 소외계층, 생활문화 동아리 등 대상자 중심 지원으로 문화향유 기회는 확대되었으나 문화적 공동체 형성에는 미흡 - 동, 마을 단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등장하였으나 장기적인 지원은 부족	2. 기능 및 역할 - 마을공동체 활동의 '커뮤니티 문화 지원' 추진방향 및 콘텐츠 기획, 자문 -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 지원 세부 분야별 세부 기획 및 운영, 실행

- 1차 실행위원회 결과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현황
 - 희망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청장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 우리동네 작은 오케스트라, 문화살롱, 연극, 춤(몸짓), 민속놀이, 글쓰기, 합주단 만들기 등
 - 희망 지원방식 및 운영공간: 마을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마을공방 및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활동 지원 등, 마을예술 창작소 중심의 지역단위 생활문화, 교육, 공유 프로그램 구축 등

▶ 부산지역 내 기초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역할의 확대로 인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축소

- (새로운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대상 지원으로 전환) 2020년 기초 생활문화센터와 협력을 통한 주간행사를 추진하였으나 2021년 기초 생활문화센터가 아닌 지역 내 다른 커뮤니티 공간을 거점으로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주간행사를 기획함. 담당부서의 현황분석에 의하면 기초 생활문화센터의 지역 내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그 수가 증대하였고 기능·역할이 확대될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 생활문화센터와 비교 시 운영 예산이 적어 새로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지역 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21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32) 부산문화재단, 2021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사업 기본계획

• (기초 생활문화센터의 자생력 강화 사례 1) 실례로 2017년 7월 개소한 동구 좌천동 좌천생활문화센터는 바로 옆에 2018년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으며 어린이집 2곳 중 한 곳은 폐업한 상황으로 지역 내 아동·청소년 인구가 적고 노령인구가 다수 있음. 지역 어르신께서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및 어린이식당 등을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 내 어린이 수를 차지하고서라도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그러나 지역 내 평생학습센터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음. (2019년 평생학습센터 지정, 2021년 부산시 평생학습 빌리지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1천만원 사업비 확보, 2020년 연속 선정) 그리고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공모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좌천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주체는 좌천2지구 주민협의회와 좌천역사문화행복마을(협동조합)임. 좌천역사문화행복마을은 2011년 마을 단위 통합 도시재생사업인 부산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로 선정된 바 있음

• (기초 생활문화센터의 자생력 강화 사례 2) 2015년 지역 내 최초 개소한 사하구 문화관광과 소관의 두송생활문화센터는 사하구가 2020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선정되면서 ‘사하예술교실’의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지정되었음. 주관부서는 다행복교육지원부서로 부산시교육청과 사하구가 협약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 운영 업무를 맡고 있음. 센터 운영 예산은 사하구에서 21년 본예산 기준 7천3백만원이고 이 중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는 2천9백만원 정도임. 이 중 행사운영비는 프로그램 결과보고회 비용으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강사수당이 약 2천2백만원임. 기타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7백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

10) 기타 의견

▶ 생활문화인 VS. 예술가, 그 경계의 모호성과 함께하기.

- 생활문화동아리, 생활문화인을 예술단체, 예술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018년 사업평가 의견)
- 실제로 부산 00마을 입주작가 공모에 예술전공을 한 예술가들과 주부로 지내다 민화를 배워 전시 참여 및 협회 회원 등록을 하여 5년 미만 활동한 예술가가 심사대상이었고 ○○마을 대표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후자가 선정되었음. 이를 과연 예술가로 볼 수 있을까?
- 또한 주로 시민들이 취미미술로 시작한 어반스케치 활동 단체들이 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상황임. 기초예술 지원사업에서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선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부산생활문화센터의 전시 기획사업으로 연계되어 어반스케치 단체의 전시가 이루어짐
-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큰 목적과 방향성 아래에서 생활문화(예술)인과 예술가를 구분 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생활문화 사업 내에서는 이의 구분이 무의미할 수도 있음. 동아리 회원, 생활문화(예술)인, 예술 비전공자 등을 예술가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사업대상을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술가도 시민 혹은 동아리 회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간 성장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생활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운영해나가는 것이 실무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도시재생 그리고 생활문화의 연계 혹은 통합 강화?!

• 201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아르떼)에서 ‘2019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로드맵(안)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지역화 전략의 하나로 ‘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평생교육 통합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제시됨. 더불어 2020년 아르떼의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단에 의한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공론화 이슈’ 보고서에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장을 위해서 “생활문화, 평생학습,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의 영역에 기반이 되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이라는 의견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의 제도적 차원에서의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3개 분야의 통합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인재)평생교육원 등의 기관 역할이 모호해질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이는 이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찌보면 예술적 관점을 기반으로 분야 간의 융합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음.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예술가, 예술교육가, 예술교육활동가 및 기획자들의 경우, 재단 혹은 아르떼의 문화예술교육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문화도시 조성 SOC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초 단위에서는 그 경계가 이미 모호해졌다고 볼 수 있음. 창작활동이기도 하면서 생활문화이기도 하며 문화예술교육이기도 하고 평생학습이기도 하고 경제적 자생력이 요구되기도 하기에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도 이어짐

• 2013년 기획홍보팀 포럼에서 자율연구모임을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가 생활문화의 주요한 지역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발적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음이 확인됨

• 2021년 문화공유팀과 문화교육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를 볼 때, 문화교육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단체 중 역량을 갖춘 단체가 문화공유팀의 ‘문화나눔 사업’ 및 ‘문화다양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음.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은 2018년 최초 문화공유팀과 문화교육팀이 사업을 나누어 담당하였고 2019년부터 문화교육팀이 전체 담당하였으나 2021년 사업명칭이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생활문화 동아리가 주된 대상인 사업으로 생활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공유팀으로 사업이 이관된 상황임

• 2021년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의하면 추진근거에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의 지원) 등이 기재되어 있음

*2021년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주요 사업내용

- 예술동아리 창작지원
- 생활밀착형 동아리 활동지원
- 비대면 동아리 활동지원
- 마스터클래스 등

• 다만, 조직 내 혹은 조직·기관 간 고유의 목적·역할이라는 것은 있으므로 문화교육팀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문화사업팀은 생활문화 사업을 하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최소화하거나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시 됨. 현재 생활문화 혹은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연계된 사업,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볼 때, 상호 정보공유와 협업 체계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는 유관기관 간의 연계, 협력 체계에서도 보이는 동일한 현상임

▶ 생활문화센터의 역할·기능 중첩인가? 확대(자생력 강화)인가? 그리고 광역생활문화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그림 15] 광역생활문화센터 역할



- 앞서 기초 생활문화센터의 역할·기능의 확대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생활문화센터와의 연계에서 지역공동체·도시재생센터 등과의 연계로 사업 운영 방식·내용이 변화되었음을 언급하였음. 그리고 좌천과 두송생활문화센터를 자생력 강화 사례로 언급하였음
- 이는 광역 혹은 기초의 생활문화센터가 별도의 공간 혹은 기초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이 되었으나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짐
- 이 또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도시재생 등과의 함께 어우러지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상황일 것임.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단위에서 다양한 분야에 문화예술이 접목될 수 있는 기회, 기초 생활문화센터가 평생교육센터도 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되고 기초 문화예술교육센터도 될 수도 있는, 지역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실천되는 문화예술의 역할 확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렇다면 광역단위의 생활문화센터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음.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는 광역단위 생활문화센터로서 기초 생활문화센터와의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생활문화 페어와 연계를 하거나 홍보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이행 중이나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님. 기초 생활문화센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취합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기초센터와 “광역센터=재단”(중간행정·지원조직), 지자체(상위행정·지원조직), 정부(최상위행정·지원조직)의 매개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음
-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초 생활문화센터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안정성, 즉, 인력이나 자원의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할 수 있음. 또한 기초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갖춰질 경우, 행정과정의 복잡함, 비효율성을 내세울 수 있음

▶ 생활문화 동아리 등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의 재실시

- 2020년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 발표한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활문화 프로그램 수조사를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수로 조사를 하였음.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의 내용(“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문화적 활동”³³⁾)과 조사의 수월성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음. 조사의 한계에 있어서도 평생학습관 외에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언급하나 조사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들어 한정하였음을 언급함. 이는 2013년과 2015년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넘어서는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환경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33)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rcda.or.kr/2020/>)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1) 사업배경 및 경과

▶ 사업배경(근거, 조례, 정관 등등)

-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19.01.07.]
- 인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제14조(시민문화부)
 - 시민문화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 중심의 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
 2. 예술 창작, 향유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문화활동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기획사업
-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 (비전) 함께 가꾸며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 인천
 - 전략 및 핵심과제 중 1. 문화자치 기반 조성 4. 문화자치 역량강화 등

▶ 사업경과(연혁 위주)³⁴⁾

[표 48] 연도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인천문화재단)

2018	2019	2020	2021
·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자체 205백만원) · 생활문화기획사업 (자체 83백만원) · 생활문화동아리지원사업 (시비 600백만원) · 찾아가는문화활동 (시비 75백만원) · 인천시민합창축제 (시비 120백만원) · 동네방네아지트사업 (자체 65백만원) · 인천왠츠 (70백만원) · 섬마을밴드음악축제 (70백만원) ·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100백만원) · 생활문화프로젝트 (45백만원)	·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자체205백만원) · 생활문화지원사업 (시비 400백만원) · 동네방네아지트사업 (자체 65백만원) · 인천왠츠 (89백만원) · 섬마을밴드음악축제 (70백만원) ·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100백만원) · 생활문화프로젝트 (45백만원)	·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자체 200백만원) · 생활문화지원사업 (시비 300백만원) · 동네방네아지트사업 (자체 65백만원) · 인천왠츠 (70백만원) · 섬마을밴드음악축제 (70백만원) ·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50백만원) · 우주인프로젝트 (55백만원)	·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자체 310백만원) · 생활문화지원사업 (시비 300백만원) · 예술동호회활동지원사업 (시비 100백만원, 국비 100백만원) · 동네방네아지트사업 (자체 65백만원) · 인천왠츠 (44백만원) · 섬마을밴드음악축제 (56백만원) ·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22백만원) · 우주인프로젝트 (60백만원) · 예술로돌봄사업 (200백만원)

34) 최근 4년, (前)생활문화팀, (現)시민문화부 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발췌함 (문화교육관련 사업 제외)

2) 사업 운영 조직

▶ 운영방식 : 직접운영

▶ 전담부서³⁵⁾ 및 운영인력 현황

[표 49]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현황 (인천문화재단)

구분	2019	2020	2021
전담부서	문화사업본부 생활문화팀	시민문화부	시민문화부
운영인력	팀장 1명, 팀원 6명 (기간제 2명, 무기계약 2명)	부장 1명, 팀원 8명 (무기계약 4명)	부장 1명, 팀원 9명 (무기계약 4명, 기간제 1명)

3) 사업 예산현황

▶ 최근 3년간 사업 운영예산 현황³⁶⁾³⁷⁾

[표 50] 2019-2021 사업 운영예산 현황 (인천문화재단)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단 총 사업비	29,307	34,312	37,726
사업 운영 예산	1,179	10,330	14,302
· 인건비(급여, 제수당, 성과급, 퇴직금)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등)			
· 운영경비(관리비, 4대보험, 제세, 비품 등)			

- 최근 3년간 사업 운영예산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천문화재단의 예산편성 및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5) 인천문화재단은 출범(2004) 이후부터 2015년까지 문화사업팀, 기획사업팀의 이름을 가진 부서에서 현재의 생활문화, 시민문화사업을 담당하였음. 이후 2016년~2019년까지 생활문화팀, 2020년~현재까지 시민문화부로 부서가 개편됨. 생활문화, 시민문화 관련 사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생활(시민) 문화가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전국문화재단도 공통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의 시행이 있을 것임

36) 경상운영비는 통합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운영비, 경비만 독립적으로 추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37) 2020년에 예산이 확대된 것이 아닌, 2019년까지 '문화다양성 확대' 분야로 관리, 운영되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2020년부터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분야 로 포함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의 차이가 있음

• 인천문화재단의 예산편성 구조는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방향 아래 각 단위사업을 배치하는 구조로 주요 연도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51] 2019~2021 인천문화재단 예산 총칙

2019	2020	2021
① 사회적 가치구현 경영체계구축 - 경상운영 - 인천역사문화센터 경상운영 ②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 시민문화 참여기회 확대 - 문화다양성 확대 - 문화인력양성 및 매개 ③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 - 문화거점예술서비스 확대 - 현장맞춤형 예술창작지원 ④ 지역문화의 창의적 발굴 - 문화자원활용 콘텐츠 개발 - 인천형 문화정책 개발	① 사회적 가치구현 경영체계구축 - 경상운영 - 인천역사문화센터 경상운영 ②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 ③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 - 문화거점예술서비스 확대 - 현장맞춤형 예술창작지원 ④ 지역문화의 창의적 발굴 -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 -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 확대	① 사회적 가치구현 경영체계구축 - 경상운영 - 인천역사문화센터 경상운영 ②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 ③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 - 문화거점예술서비스 확대 - 현장맞춤형 예술창작지원 ④ 지역문화의 창의적 발굴 -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 -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 확대

• 이에 앞의 장 3년간 사업 운영예산 현황의 예산현황은 바로 위 표의 ②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중 본 보고서의 주요 골자인 시민, 생활문화를 키워드로 한 사업과 예산만으로 한정함

[표 52] 2019~2021 인천문화재단 예산총칙에 따른 시민/생활문화 사업 현황

2019	2020	2021
· 생활문화활성화 · 생활문화지원 · 시민문화활동지원 · 인천왈츠 · 섬마을밴드음악축제 · 온라인플랫폼구축 · 지역문화인력지원 · 예술감상교육운영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 방방곡곡문화공감 · 작은음악회 · 공연산책 · 전시공간활성화 · 전시해설인력지원 · 지역문화인력프로젝트지원	· 생활문화센터운영 · 우주인프로젝트 · 동네방네아지트 · 생활문화센터협력체계강화 · 생활문화동아리지원 · 생활문화매개자운영 · 생활문화동아리사회공헌 ·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운영 · 지역문화인력지원 · 인천왈츠 · 섬마을밴드음악축제 · 시민문화활동지원 · 예술감상교육운영 · 방방곡곡문화공감 · 전시해설인력지원 · 전시공간활성화 · 통합문화이용권 ³⁸⁾	· 생활문화센터운영 · 동네방네아지트 · 시민문화활동지원 · 인천왈츠 · 생활문화지원 ·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운영 · 섬마을밴드음악축제 · 예술동호회활동지원 · 우주인프로젝트 · 클라우드펀딩지원사업 · 방방곡곡문화공감 · 전시해설인력지원 · 전시공간활성화 · 예술로돌봄 · 통합문화이용권

38) 2019년까지 '문화다양성 확대' 분야로 관리, 운영되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2020년부터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분야로 포함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4) 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자체 기획 사업³⁹⁾

[표 53] 자체 기획 사업 사례 (인천문화재단)

사업명	사업내용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 인천문화재단의 오랜 사업으로 초기 사업모델은 지역의 시민 주도형 축제, 생활문화형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 현재는 사업 내에서 2개의 공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1공모는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 환경, 성평등, 인권 등 문화예술만이 아닌 다양한 주제를 문화예술방식으로 풀어내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 2공모는 시민주도형사업이 사업의 주요 골자이지만 예술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 또한 가능함 · 지역에서 열리는 시민주도형축제, 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 탐방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음
우주인 프로젝트	· 우주인 프로젝트사업은 재단에서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부터 만들어진 사업임 · 동아리, 동호회지원사업이 3인 이상의 기 조직된 동아리(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삼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임 · 1인의 시민기획자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심이 있는 다른 일반 시민들이 기획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업임
동네방네 아지트	· 동네방네 아지트사업은 2017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에서 문화 혹은 문화를 기획하고자 하는 작은 공간과 시민들을 연결시켜주고자 만들어진 사업임 · 서점 혹은 카페에서 독서토론회를, LP바, 라이브클럽에서 음악감상회를, 목공방에서 DIY를 하는 등 지역에 산재한 공간들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 지역주민이 공간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서로의 교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임 · 본 사업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사업으로 인천시의 '천 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사업이 있음
생활문화동아리 사회공헌사업	· 인천시 위탁으로 진행되는 생활문화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인 생활문화동아리 사회공헌사업은 생활문화동아리가 단순히 자신들의 발표활동으로 활동을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문화적 기회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업임 · 궁극적으로 동아리 자신들의 활동이 단지 자기계발과 취미활동이 아닌 나아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문화적 경험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작지만 지역사회에 문화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마련된 사업임 · 주로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동아리들의 발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섬마을밴드음악축제	· 인천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섬마을 밴드 음악축제사업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게 됨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사업취소) · 인천은 지형학적으로 많은 섬들이 있음. 그리고 이러한 섬에는 문화프로그램, 문화적 활동들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있음 · 사업은 인천의 다양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주민들로 구성된 동아리들을 발굴, 지원하여, 여름, 가을에 모든 동아리들이 모여 발표회를 여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아리에서 원하는 악기강사를 섭외, 매칭해주고 있음

39) (前)생활문화팀, (現)시민문화부 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발제함 (문화교육관련 사업 제외)

▶ 동아리지원 사업

[표 54] 동아리지원 사업 사례 (인천문화재단)

사업명	사업내용
(인천시 위탁) 생활문화 지원사업 : 맞춤형 지원사업, 강사지원사업	· 동아리지원사업은 재단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인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내에서 동아리영역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었음 · 이후 인천시가 2017년 생활문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천 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을 마련하면 서부터 재단에서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한 위탁사업을 운영하게 됨 · 연도별 예산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3억원의 예산으로 동아리, 강사지원사업, 매개자육성지원사업, 동아리사회공헌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국시비 매칭) 예술동호회활동 지원사업 : 맞춤형 지원사업, 강사지원사업	· 동일한 형태의 사업인 예술동호회활동지원사업은 2020년까지 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재단 내 문화교육팀에서 운영되던 사업을 (現)시민문화부에서 동아리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시비사업, 국시비사업이지만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참고로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칭되던 국비가 2022년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되던 사업예산규모를 인천시에서 전액 보존함

▶ 네트워크 사업

[표 55] 네트워크 사업 사례 (인천문화재단)

사업명	사업내용
생활문화매개자 운영사업	· 생활문화매개자 운영사업은 인천시 생활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동아리의 활동을 서포트하고 동아리들간의 활동을 연계하여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임 · 9~10인의 지역활동가들로 선발된 생활문화매개자들은 동아리들의 기본적인 행정서포트활동 (교부신청, 결과보고 등)과 유사한 장르의 동아리들을 연계하여 연말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방식으로 기획함 · 생활문화매개자들은 매년 180건의 동아리, 강사활동을 조력하고 있음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 구축사업	·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지역내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임 · 생활문화센터의 기본적인 운영현황 공유, 생활문화와 관련된 이슈나 담론에 대한 논의, 공동사업 등을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연도별 참여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인천문화재단, 부평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미추홀구 학산문화원, 인천시가 참여하고 있음 · 2022년도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구문화재단, 남동구문화재단도 참여할 예정임
생활문화 온라인플랫폼 운영	·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은 인천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생활문화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집적화하여 제공(홈페이지)하는 사업임 · 동아리정보, 지역에 산재한 많은 생활문화공간, 강사정보, 각종 지원사업, 문화예술행사 등을 수시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인천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 개발, 현재는 운영의 안정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 생활문화축제 등

[표 56] 기타 사례-생활문화축제 등 (인천문화재단)

사업명	사업내용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 구축사업	· 인천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생활문화축제는 없음 · 하지만 앞서 소개한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 구축사업에서 올해는 인천의 생활문화축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인천시, 서구, 연수, 부평, 미추홀구에서 각각 진행하던 축제를 공동홍보하게 됨 · 당초 10월 한달을 인천의 생활문화축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관별 운영되는 시기가 상이하여 통합홍보물, 통합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역에 배포함

5) 연도별 주요 운영 성과

· 앞선 '4. 사업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언급하였듯이 재단은 재단의 핵심사업인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함께 생활문화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지원사업을 운영해왔음

· 이후 2010년 시민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의지를 표방하는 '인천왈츠'⁴⁰⁾사업을 필두로 다양한 시민, 생활문화 사업을 기획, 운영함

·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문화, 공동체, 도시 등의 키워드를 주제로 지역의 문화공동체와 관련한 사업들을 기획, 지원함

· 인천이라는 거대 도시,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도시,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이 속에서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도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문화를 매개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함

· 2016년도는 인천에서 최초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며 생활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함⁴²⁾ 이후 각 군구에서도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었고, 초기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에 많은 운영사례로 언급되었음

· 2017년부터는 인천시의 정책사업인 천 개의 문화오아시스, 천 개의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과 발맞추어 인천시 위탁으로 생활문화지원사업을 운영함

· 연도별 예산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4억원의 예산으로 생활문화동아리지원, 생활문화매개자운영, 동아리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들을 운영함

40) 인천왈츠사업은 최초 2010~2011년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됨.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제작하는 공연사업으로 2011년부터는 시민창작뮤지컬 인천왈츠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며 인천시민과 예술가가 지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을 창·제작함. 회당 50여명의 시민참여자가 매공연 15회 내외의 워크숍과 연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뮤지컬 사업임

41)

연번	일정	장소	내용
1	2010.12.08	부평아트센터해누리극장	함께 만드는 콘서트 / 출연 : 인천재조양상블(지휘 정성조), 해광오케스트라(지휘 이경구), 인천시민합창단(지휘 윤학원), 태식그룹
2	2011.12.08	인천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함께 만드는 콘서트 / 출연 : 동물원, 크라잉넛, I-신포니에타 희망오케스트라, 기타마루, 예그리나, 토마토, 인천직장인밴드연합 '밴하사'
3	2012.12.09	인천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시민창작뮤지컬 <어떤 여행> 연출 : 추민주 / 극작: 류미현 / 작곡: 김예림
4	2013.07.21	부평아트센터해누리극장	시민창작뮤지컬 <어떤 여행> 시즌2 연출 : 추민주 / 극작: 류미현 / 작곡: 김예림
5	2014.12.07	트라이보울	시민창작뮤지컬 <소원책방> 연출 : 추민주 / 연출: 강유미 / 극작: 류미현 / 작곡 : 김예림
6	2015.11.07~08	인천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시민창작뮤지컬 <꿈스터디 꿈스케치> 연출·극작 : 이재상 / 작곡 : 최경숙
7	2016.10.01~02	인천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시민창작뮤지컬 <1936 그날> 연출·극작 : 이재상 / 작곡 : 최경숙
8	2017.11.11~12	트라이보울	시민창작뮤지컬 <보물지도> 연출 : 송용일 / 극작 : 고훈희 / 작곡 : 최충혁
9	2018.11.17~18	트라이보울	시민창작뮤지컬 <강화 1866, 삼랑성 분투기> 연출 : 이상희, 드라마투르기 : 김지영, 음악 : 신영길
10	2019.11.09.~10	트라이보울	시민참여뮤지컬 <제물포의 상인> 연출 : 신재훈, 극작 : 정준, 작곡 : 김승진
11	2020.	뮤지컬 음원 및 영상제작	인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업로드

42) 현재 인천에는 총 12개의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별도로 생활문화에 대한 집적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도 함께 운영함⁴³⁾
- 동아리활동이 아닌 조금 더 주체적인 사업으로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이 있으며 2020년 부터는 문화다양성을 사업의 전면에 내세워 보다 폭넓은 시민문화에 대한 요구와 현장의 바람을 사업으로 풀어내고 있음
- 장르중심의 시민문화활동도 있는 반면, 문화다양성의 큰 범위에서 환경, 성평등, 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사업들이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에서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음

6) 재단 다른 사업(교육사업 등)과의 연계성

- 앞재단 내 여러부서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큰 관점으로 본다면 대시민사업에 해당함
- 하지만 모든 교육사업을 생활문화 사업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일례로 한국근대문학관, 아트플랫폼 등에서 진행하는 진행하는 교육, 강좌사업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명확한 장르가 구분되어 지기도 하며, 인문학, 장르중심적 교육, 강좌사업에 가깝기 때문임
-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사업에서는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사업들이 다수 존재함. 생애주기적 관점에 의거하여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교육사업들은 앞선 장르, 인문학 강좌라기 보다는 삶과 생활을 주제로 하기 때문임
-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음. 재단의 생활, 시민문화사업들은 대부분 본예산(출연금), 위탁사업(인천시) 등으로 진행되는 반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비는 거의 모든 예산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산이기 때문임
-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일텐데, 예를 들어 단일 사업을 두고 출연금, 국비, 시비 등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유사한 사업들이 제각기 진행되는 것보다는 통합 혹은 서로 연계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7) 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 연번 1~4번의 사업들은 전액 인천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9번의 사업들은 재단 자체예산으로 운영됨. 10~12번 우리미술관 사업은 구비로 운영되고 있음⁴⁴⁾⁴⁵⁾⁴⁶⁾
- 현장, 즉 사업예산을 지원받는 개인, 단체에서는 사업예산의 출처가 전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지만, 지원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출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음. 시비보조,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앞선 정책의 목적, 정책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책적 방향이 바뀌거나, 시정부,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는 경우 사업의 존폐가 있을 수 있는 것임

43) <https://www.ilcp.or.kr>

44) 4번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은 국시비 50:50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45)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에 별도 분류함

연번	사업명	예산(2021)	재원(천원)		
			국비	시비	자체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10,974,000	7,790,010	3,183,990	-
	계	10,974,000	7,790,010	3,183,990	-

46) 사업예산현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사업들은 현황에서 제외함

[표 57]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2021년 사업예산 현황

연번	사업명	예산(2021)	재원(천원)		
			국비	시비	자체
1	동아리 사회공헌	300,000	-	300,000	-
	매개자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구축사업				
2	생활문화온라인플랫폼	22,000	-	22,000	-
3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56,000	-	56,000	-
4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200,000	100,000	100,000	-
5	생활문화센터운영	50,000	-	-	50,000
6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200,000	-	-	200,000
7	동네방네아지트	60,000	-	-	60,000
8	우주인프로젝트	55,000	-	-	55,000
9	인천왈츠	60,000	-	-	60,000
10	우리미술관 전시사업	76,270	-	76,270	-
11	우리미술관 레지던스사업	16,600	-	13,600	-
12	우리미술관 교육사업	15,560	-	15,560	-
	계	1,111,430	100,000	583,430	420,000

- 현재 인천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 사업의 전체예산 중 43.0%, 재단 자체예산은 37.7%를 차지하고 있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천시의 보조금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결과적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이 시민, 생활문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예산은 자체예산 4억 2천만원이라는 것임. 이러한 현실적(정책적, 정치적) 어려움은 인천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군구문화재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실임

8)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와의 사업 연계에 대한 의견

-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와의 사업연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방식에서 오는 차이라 할 수 있음
-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12개의 생활문화센터 중 6곳이 직영, 6곳이 민간위탁의 운영방식임
- 직영은 쉽게 말해 군구청,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임. 문화재단 또한 행정기관이지만, 문화재단과 군구청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는 생활문화, 시민문화에 대한 논의의 깊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로써 발생하는 협업 혹은 논의의 어려움이 존재함

- 민간위탁 기관들 또한 다른 협업의 어려움이 있는데,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문화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규모의 차이, 예산의 차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음⁴⁷⁾

[표 58] 인천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연번	센터명	지역	운영	현황
1	계양 생활문화센터	계양구	직영	운영중
2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남구	민간위탁	운영중
3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동구	직영	운영중
4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	민간위탁	운영중
5	가정생활문화센터	서구	민간위탁	운영중
6	검암경서생활문화센터	서구	민간위탁	운영중
7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연수구	직영	운영중
8	연수고가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	연수구	민간위탁	운영중
9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옹진군	직영	운영중
10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옹진군	직영	운영중
11	개항장 문화마당 생활문화센터	중구	직영	운영중
12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중구	민간위탁	운영중

9) 기타 의견

▶ 단편적이지만 고민할 지점들

- 우리 모두는 우리의 문화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정책이 미치는 한계에 대한 고민, 해결책)
- 예술가의 육성, 지원과 같이 생활문화 또한 대상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육성이 가능한 영역인가
- 개인의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바람직한 것인가 : 일부의 시선
- 생활문화 ≠ 동아리/동호회 문화
- 생활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측정 기준, 척도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필요성과 위험성)
- 다양화되어가는 개인의 취향, 선호도를 정책, 지원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인가?
- 중앙에서 바라보는 동호회, 동아리의 범주와 기준의 문제
- 현장의 움직임과 동떨어지는 중앙의 지원, 방법 문제
-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내려지는 하달식의 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1) 센터 설립배경 및 경과

▶ 설립배경(근거, 조례, 정관 등등)

-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19.01.07.]
- 인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 제14조(시민문화부) 시민문화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 중심의 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
 2. 예술 창작, 향유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문화활동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기획사업
-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 (비전) 함께 가꾸며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 인천
 - 전략 및 핵심과제 중 1. 문화자치 기반 조성 4. 문화자치 역량강화 등

▶ 설립경과(연혁 위주)

[표 59] 센터 연혁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2015년	
5월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선정
6월	· <생활문화센터의 이해와 인천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세미나
10월	· 생활문화센터 비전 선포식
2016년	
3월	· 생활문화센터 시민준비위원회 구성
4월	· 생활문화센터 시범운영 시작
6월	·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개관 · 인천생활문화센터 기획프로그램 <미리 쓰는 자서전> 진행
9월	· 인천생활문화센터 시민문화활동 2차 공간지원사업 공모 진행 ·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해안동 아틀리에-심지프로젝트> 진행
10월	·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자료실 오픈 ·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미리쓰는 자서전> 결과 전시 개최
12월	·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북콘서트:북덕북덕 <종이배 타고 떠나는 인천 섬 여행> 개최
2017년	
1월	·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생활문화진흥원 네트워크 지원사업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최
8월	· 생활문화센터 기획사업 우주인 프로젝트 진행(우리가 주최한다 인천에서)
2018년	
	· 생활문화센터 일반운영 및 우주인 프로젝트 진행

47) 일례로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는 모든 시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반면, 다른 생활문화센터는 시설 사용에 있어 일부 유료로 진행하는 곳도 있음

2019년	
	·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구축사업 협의회 운영 및 사업진행 - 인천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미추홀구 학산문화원, 계양구 생활문화센터, 연수구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중구 개항장 문화마당
2020년	
	·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구축사업 협의회 운영 및 사업진행 - 인천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미추홀구 학산문화원,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인천생활예술협회
2021년	
	·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구축사업 협의회 운영 및 사업진행 -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미추홀구 학산문화원,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문화바람

2) 센터 공간 일반현황

▶ 비전/미션/주요기능(역할)

- 칠통마당은 현 하버파크 호텔(인천 중구) 뒤쪽 선창을 이르던 지명임. 하버파크 호텔 자리는 과거 경기도경찰국 청사가 있던 곳으로, “경찰국 뒤 해안 일대는 각지에서 실어오는 뱃섬을 받아 올리는 ‘칠통마당’이라 부르던 선창이었다.”고 『인천 한 세기』의 저자 고 신태범(愼兌範) 박사는 증언함
- 생활문화센터를 ‘칠통마당’으로 명명하는 것은 그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인천의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 고유 지명을 다시 상기함으로써 인천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임
- 그 시대 우리 선대들의 땀이 서린 이곳이 이제 어엿한 인천시민 생활문화 구현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음

▶ 휴관일, 이용시간, 대관료

- 생활문화센터 휴관일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명절연휴 및 명절 대체휴일
- 이용시간 : 오전 10:00~14:00, 오후 14:00~18:00, 저녁 18:00~22:00
- 대관료 : 무료
- 대관

[표 60] 대관 운영 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대관	접수기간		사용기간
정기대관	1분기	2020. 12. 20 ~ 12. 31	2021. 1. 1 ~ 2021. 3. 31
	2분기	2021. 3. 20 ~ 3. 31	2021. 4. 1 ~ 2021. 6. 30
	3분기	2021. 6. 20 ~ 6. 30	2021. 7. 1 ~ 2021. 9. 30
	4분기	2021. 9. 20 ~ 9. 30	2021. 10. 1 ~ 2021. 12. 31
수시대관	해당 월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가능 (예: 1월14일 사용예정 → 1월1일부터 신청)		
현장대관	안내데스크 예약현황판 확인 후 비어있는 시간 때 공간 현장예약 가능 (공간이용확인대장 작성 및 사무실 혹은 유선으로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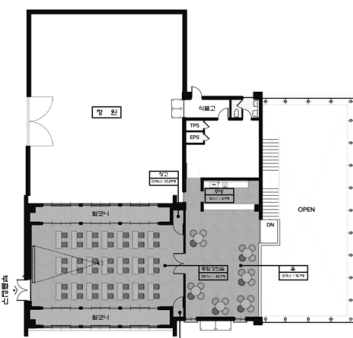
▶ 공간별 면적 및 수용인원

[표 61] 공간별 면적 및 수용인원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구분	공간명	면적	수용인원
A동	이음마당	222㎡/67평	제한없음
	갤러리디딤	47㎡/14.6평	제한없음
	연습실 1	80.6㎡/24.4평	최대 30명
	연습실 2	23㎡/6평	최대 15명
	모임방 소	12㎡/3.7평	최대 8명
	모임방 1	40㎡/12평	최대 12~18명
	모임방 2	40㎡/12평	최대 12명
	모임방 3	38.6㎡/12평	최대 12~18명
	옥상	203㎡/61.5평	제한없음
H동	자료실	120.2㎡/36.4평	제한없음
	프로젝트룸	24.6㎡/7.4평	최대 10명
	다목적실	139.1㎡/42.9평	최대 50명
	오늘한끼(공유주방)	51.9㎡/16.7평	최대 30명

▶ 센터 평면도

[표 62] 평면도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A동 1층	A동 2층	A동 옥상
		
H동 1층		H동 2층
		

3) 센터 운영 조직 및 예산현황

▶ 운영방식 : 직접운영

▶ 조직도 및 운영인력 현황⁴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조직기구 변경사항 포함)

[표 63] 전담 부서 및 운영인력 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담 부서	문화사업본부 생활문화팀	문화사업본부 생활문화팀	문화사업본부 생활문화팀	문화사업본부 생활문화팀	시민문화부	시민문화부
운영 인력	팀장 1명, 팀원 6명 (기간제 3명, 무기계약 1명)	팀장 1명, 팀원 6명 (기간제 3명, 무기계약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기간제 2명, 무기계약 1명)	팀장 1명, 팀원 6명 (기간제 2명, 무기계약 2명)	부장 1명, 팀원 8명 (무기계약 4명)	부장 1명, 팀원 9명 (무기계약 4명, 기간제 1명)

▶ 설립 시부터 운영예산 현황⁴⁹⁾

[표 64] 연도별 운영예산 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단 총 사업비	20,590	22,367	27,853	29,307	34,312	37,726
센터 운영 예산	100	100	103	72	90	50
· 인건비(급여, 제수당, 성과급, 퇴직금)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등)						
· 운영경비(관리비, 4대보험, 제세, 비품 등)						

4) 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표 65]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연도	대관
2016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간판제작_캘리그래피>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미리쓰는 자서전>
2017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원데이 홈 브루잉>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우주인 프로젝트>
2018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우리가 주인공 이야기 “나를 찾아줘”
2019~2021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우주인 프로젝트> · 대관중심의 사업운영

• 자체기획 프로그램 : 우주인 프로젝트

- 우주인 프로젝트사업은 재단에서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부터 만들어진 사업임

- 동아리, 동호회지원사업이 3인 이상의 기 조직된 동아리(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삼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임

- 1인의 시민기획자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심이 있는 다른 일반 시민들이 기획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업임

▶ 대관운영

[표 66] 대관 운영 현황 (인천문화재단 광역생활문화센터)

대관	접수기간	사용기간
정기대관	1분기	2020. 12. 20 ~ 12. 31
	2분기	2021. 3. 20 ~ 3. 31
	3분기	2021. 6. 20 ~ 6. 30
	4분기	2021. 9. 20 ~ 9. 30
수시대관	해당 월에 한하여 수시로 대관가능 (예:1월14일 사용예정 → 1월1일부터 신청)	
현장대관	안내데스크 예약현황판 확인 후 비어있는 시간 때 공간 현장예약 가능 (공간이용확인대장 작성 및 사무실 혹은 유선으로 확인 필요)	

5) 연도별 주요 운영 성과

•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사업선정

• 이후 2016년 3월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위한 시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문화센터의 방향성, 운영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함. 2차례의 종합회의와 1차례의 분과별 회의를 진행함 (정책, 프로그램, 공간/조직운영 등 3개 분야)

• 개관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민준비위원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4월 생활문화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함. 이후 6월 개관식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체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함⁵⁰⁾

• 2017년 인천생활문화센터 칠동마당 생활문화진흥원 네트워크 지원사업인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및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생활문화센터 기획사업 ‘우주인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함

• 자체 기획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2019년부터는 생활문화센터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 협의회를 운영하며 공동, 협력사업을 진행함

• 2019년 부평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미추홀구 학산문화원과 4개 프로그램 진행함. 2020년에는 부평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미추홀구 학산문화원, 인천생활예술협회와 공동으로 생활문화 온라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함⁵¹⁾

• 2021년에는 부평, 서구, 미추홀구, 인천시, 문화바람과 협력하여 인천의 생활문화축제 공동홍보를 진행함

50) 98쪽 ‘설립경과’ 내용 참조. 더불어 생활문화센터 대시민 명칭공모를 진행함

51) 생활문화센터 협력사업 생활문화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주제 ‘코로나 시대의 생활 문화 지남,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기획 및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현재의 상황에 생활문화를 주제로 시민,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

6) 재단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 현재 기준으로는 재단 내 타부서와 협업, 협력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음

7)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 인천의 경우 인천문화재단(광역, 거점형)의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생활문화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인천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 기초문화재단, 문화원, 군구청에서 차례로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함
- 하지만 과거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구 분 짓던 광역(거점형), 기초(생활형)형 생활문화센터는 현재는 거의 무의미한 구 분 으로 남겨지게 됨. 무수한 논의, 다양한 사례로 접근해 보았지만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뚜렷한 구 분 짓기를 하지 못했고, 현재는 생활문화센터 그 자체로 남아있음
- 이렇듯 광역, 기초 생활문화센터의 차이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산의 규모와 공간규모의 차이일 뿐 운영하는 프로그램 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임
- 일례로, 광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가 1개소이고 기초에서 조성된 생활문화센터가 20개소, 30개소가 되는 경우, 광역문화재단의 생활문화센터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의문임

8) 센터 운영 개선방안

-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자율적으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를 다른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물어보았으나, 현재로써는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 외에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없었음

대구문화재단

1) 사업배경 및 경과

▶ 사업경과(연혁 위주)

[표 67] 연도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대구문화재단)

(단위: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 내용	· 생동지기 모집시작 · 공연활동지원 (버스킹) · 프로그램지원(공모) · 우리동네생활문화 공간(공간지원) · 구군네트워크구축사업	· 공연활동지원(버스킹) · 프로그램지원(공모) · 우리동네생활문화 공간(공간지원) · 구군네트워크구축	· 협업프로젝트 · 코디네이터양성교육 · 시민자율갤러리 · 구군네트워크구축 · 우리동네생활문화 공간(공간지원) · 프로그램지원(공모)	· 우리동네생활문화 공간(공간지원) · 힐링버스킹 (명절버스킹) · 시민갤러리 · 프로그램지원(공모) · 전문인력파견, 멘토링, 연결고리(동호회교육) · 곁에on생활예술교육	· 우리동네생활문화 공간(공간지원) · 생동정보통 (온라인홍보) · 시민갤러리 · 생동버스킹 · 생활문화술회시원(공모) · 생동예담(좌담회) · 곁에on생활문화 (온라인)
국비 ⁵²⁾	-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280,000,000
시비	427,500,000	285,000,000	427,500,000	347,500,000	192,375,000
합계	427,500,000	585,000,000	727,500,000	647,500,000	472,375,000

2) 사업 운영 조직

▶ 운영방식: 직접, 위탁 등등

[표 68] 운영방식 (대구문화재단)

구분	2013 ~ 2021. 6	2021. 6. ~ 현재
운영방식	대구문화재단 위탁사업	'대구생활문화센터' 재단 수탁 운영(위탁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담부서 및 운영인력 현황: 시민문화본부 생활문화센터운영팀(팀장 1명, 팀원 4명)

52)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 *2021년 '예술동호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문화진흥원)

3) 사업 예산현황

▶ 최근 3년간 사업 운영예산 현황

[표 69] 2019~2021 사업 운영예산 현황 (대구문화재단)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2019 ⁵³⁾	2020 ⁵⁴⁾	2021
재단 총 사업비			
사업 운영 예산	727	627	472
· 인건비(급여, 제수당, 성과급, 퇴직금)	5	2.9	26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등)	150	134	263
· 운영경비(관리비, 4대보험, 제세, 비품 등)	176	8	1

4) 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70] 주요 사업 현황 (대구문화재단)

자체 기획 사업	· 우리동네생활문화공간(공모): 생활문화 공간 보조금 지원사업 · 시민갤러리: 시민 작품 전시 사업(갤러리 협약) · 공연활동지원사업: 버스킹(도시철도특화공연, 토요도심기획공연, 전국생활문화축제 참여, 문화도시START콘서트, DTRO문화한마당)
동아리지원 사업	· 프로그램지원사업(공모): 생활문화 동호회 보조금 지원사업(기획프로그램) · 전문인력파견: 동호회에 전문예술강사 파견(교육) · 멘토링: 동호회 멘토링(교육)
네트워크 사업	· 구군네트워크구축사업: 대구 8개구군 네트워크 구축(생활문화제 연계)
생활문화축제 등	· 전국 생활문화축제 참여 · 대구생활문화제 운영: 연 1회 8개구군 협력 사업(공연위주)

5) 연도별 주요 운영 성과

▶ 2013년~2016년 단기성 생활문화 사업운영

▶ 2017년 : 대구 생활문화동호회 지기 ‘생동지기’ 출범 및 모집을 시작으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화

- 전액시비 : 공연, 기획(보조금)지원, 공간지원, 구군네트워크 4개 사업으로 출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운영

▶ 2018년

- 시비 : 2017년과 동일하게 운영(2017년 대비 20%정도 감액)
- 국비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운영(국·시비매칭)
 - 전문인력파견교육(동호회에 강사파견), 멘토링교육(멘토/멘티)
- *시비(활동중심) / 국비(교육중심)으로 편성운영

▶ 2019년

- 시비 : 생활문화육성 &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분할 운영(2억 증가)
 - 육성 : 동호회의 예술활동 진입중심(코디네이터양성, 시민갤러리, 구군네트워크구축)
 - 우수 : 동호회의 기획프로그램 운영 중심(공간지원, 프로그램지원, 공연활동지원)
- 국비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운영(2018년과 동일)
 - 전문 인력 파견교육(동호회에 강사파견), 멘토링 교육(멘토/멘티)

▶ 2020년(2019년과 동일, 신규 사업만 기재)

- 국비 :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기획사업 2개 추가운영
 - 연결고리 교육사업 : 동호회-전문예술단체 매칭을 통한 교육운영
 - 곁에on생활예술교육 : 온라인 교육사업 운영(대구문화재단 유튜브 업로드)

▶ 2021년(코로나19로 인한 시비 예산 대폭 삭감)

- 시비(2020년 대비 50%정도 감액)
 - 육성 : 우리동네생활문화공간
 - 우수 : 시민갤러리, 생동버스킹
- 국비 : 예술동호회활동지원사업 *주관처변동으로 인해 교육→활동중심으로 변화 (작년대비 예산10%정도 감액)
 - 생활문화숲(기획프로그램 보조금지원사업), 생동예담(생활문화 간담회), 곁에on생활문화(동호회 활동영상 스케치, 온라인 영상제작)
- *2021년 6월 ‘대구생활문화센터’ 위·수탁 운영 확정 → 생활문화 사업, 시설운영 동시 진행 중

53) *2019년
육성237,500,000 : 인건비(49,619,220) / 사업비(150,689,660) / 운영경비(176,295,980)
우수172,021,120 : 인건비(29,644,850) / 사업비(134,126,000) / 운영경비(8,250,270)

54) *2020년
육성157,187,380 : 인건비(49,602,300) / 사업비(74,560,000) / 운영경비(33,025,080)
우수189,579,531 : 인건비(36,510,000) / 사업비(133,180,874) / 운영경비(19,888,657)
예술동아리299,534,150 : 인건비(29,519,340) / 사업비(269,719,810) / 운영경비(295,500)

6) 재단 다른 사업(교육사업 등)과의 연계성

- 2013년 생활문화 사업 초창기부터 ‘생활문화팀’이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현재까지 시민문화팀, 생활문화센터 운영팀으로 부서명칭 변동은 있었으나 한 부서에서 운영되었음. 단, 국고보조금(매칭)사업인 예술동아리교육지원사업(2018~2020)이 문화예술교육팀과 별개로 생활문화팀에서 운영되었음.⁵⁵⁾ 현재는 지역문화진흥원 ‘예술동호회활동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와 함께 운영됨
- 2017년부터 대구의 동호회 브랜드인 ‘생동지기’를 신청 받고 동호회의 개수와 장르, 인원 등을 파악하고 있음

7) 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등

- 동호회와 전문예술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순수 동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동호회 공모사업은 생동지기 가입 단체만 동호회로 인정하여 심사 시 전문예술단체와의 차별성을 두었으나, 실제 동호회에서는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아 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
- 교육-동호회 활동의 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문체부 지침상 교육과 예술동호회 활동을 분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예술동호회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함

8) 사업 운영 개선방안

- 2021년 생활문화센터 개관으로 인해 사업+시설운영에 대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 중
- 생활문화동호회(인) / 예술단체(인)에 대한 경계성의 문제 논의 필요
*‘전공자’의 경계는 ‘현재 활동 중인 전공자=예술인’으로 한정하고자 계획 중
- 문화예술교육지원/지역문화진흥의 교육방향 설정 필요

55) 사업 이관에 대해 재단 내부에서 논의 중에도 사업은 진행됨

경기문화재단

1) 센터 설립배경 및 경과

▶ 설립배경(근거, 조례, 정관 등등)

- 민선 7기 주요 문화정책인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 전담 조직 필요
- 광역형 및 생활권형 기능을 강화한 경기생활문화센터 운영 확대

※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설치) 도지사는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생활문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설립경과(연혁 위주)

[표 71] 재단 연혁 (경기문화재단)

연도	대관
2015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조성 시작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2016.6.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생활문화센터 개관 (생활1980, 생생1990)
2017	· 경기상상캠퍼스 명칭변경 - 상상캠퍼스 내 경기생활문화센터 운영시작
2017~2018	· 사업운영 (생활문화동호회 발굴, 공간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역장인발굴 등)
2019	· 생활문화센터 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생생1990 리모델링 · 생활창작공방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
2020.7~	· 경기생활문화센터 조직설치 요청(경기도청)에 따라 광역 생활문화 지원센터 역할을 위한 경기생활문화센터 조직운영 (센터장 1인, 직원 4인 배치) ·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경기상상캠퍼스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31개 시군 생활문화 거점발굴, 생활문화 활동가양성, 정책연구, 생활문화캠페인을 위한 온라인채널 운영 중심으로 전환

2) 센터 공간 일반현황

▶ 비전/미션/주요기능(역할)

- 일상 속 생활문화 확대에 따른 정책사업 확대
 - 생활문화 민간단체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도 생활문화거점 확산 도모
 - 생활문화거점인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교류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
- 사업을 통해 발굴된 생활문화 활동가 및 단체 교류 강화를 위한 연계작업 수행
 - 단체 교류회 확대, 생활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활동 연계 도모

- 도내 생활문화 현장 홍보 및 온라인 공유채널 운영 강화
 - 도민 참여 확대, 생활문화 정책사업 홍보, 현장 공유

▶ 휴관일, 이용시간, 대관료

- 경기생활문화센터가 경기상상캠퍼스 내에 있기 때문에 상상캠퍼스 이용수칙 적용
-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 이용시간 : 부지 24시간 / 시설 화~일 9:00~18:00
- 대관료⁵⁶⁾

[표 72] 공간운영 현황 (경기문화재단)

공간	명칭	면적(수용인원)	사용자	이용료	비고
생활 1980 2층	무궁화살롱	12.25㎡(5명)	도민	무료	온라인 예약
	딸기살롱	12.87㎡(5명)			
생생 1990 2층	생생살롱1	40.96㎡(20명)	등록 동호회 전용	무료	온라인 예약
	생생살롱2	20.48㎡(10명)			
	생생살롱3	20.48㎡(10명)			
	생생살롱4	20.48㎡(10명)			
	무아지경	78.72㎡(20명)	청소년, 등록 동호회 우선신청	무료	온라인 예약
생생 1990 3층	직물공방	40.96㎡ (20명)	전담운영단체 2일 (교육 1일, 자체활동 1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무료개방	무료	온라인 예약
	재단공방	40.96㎡ (20명)			
	커피공방	40.96㎡ (20명)			
	드로잉실	40.96㎡ (20명)			
	취미공방	40.96㎡ (20명)			
	사진촬영실	52.48㎡ (20명)			
	어린이창작공방	40.96㎡ (20명)	-	-	-
	공유오피스,제본실	40.96㎡ (20명)			

▶ 연면적, 수용인원, 평면도 (생생1990 기준)

* / 표시된 구간은 경기문화재단 사무실 및 문화예술기반 창업창직 입주단체 전용공간임

[표 73] 평면도 (경기문화재단)

창고

창고

사진 촬영실

어린이 창작공방

창고

창고

창고

창고

남, 여 화장실

공유 오피스

제본 실

창고

비상구

창고

창고

창고

창고

직물공방

재단공방

회의실

운영사무실

커피공방

취미공방

드로잉실

경기화 연구센터

인권 감사관

인권 감사 관실

고충 처리 실

남, 여 화장실

오픈공간

무아지경

비상구

캠프 216

캠프 215

캠프 214

캠프 213

캠프 212

캠프 211

한뼘 전시실

생생살롱 1

생생살롱 2

생생살롱 3

생생살롱 4

이끄미방

창고

동네부엌

남, 여 화장실

마주침공간

수유실

탈의실

비상구

마주침공간

운영사무실

출입구

놀이마루

책마루

작업제작소
(외부물품보관소)

도자랩

레이저커팅기

유리랩

목공랩

안내데스크

운영사무실

56) 생활문화센터 범주에 있는 공간은 대관료를 받지 않으며, 상상캠퍼스 내 연습실, 회의실, 공연공간, 강의실 등은 유료로 운영 중임

3) 센터 운영 조직 및 예산현황

▶ 운영방식: 재단 위탁운영 (경기도청 문화기반팀)

*공간기반사업은 도위탁으로 진행하며, 그 외 생활문화 사업은 출연금으로 직접 운영함

▶ 조직도 및 운영인력 현황

• 조직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조직기구 변경사항 포함)

[표 74] 전담 부서 및 운영인력 현황 (경기문화재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담부서	문화예술본부 문화재생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팀	문화예술본부 상상캠퍼스팀	문화예술본부 상상캠퍼스팀	문화예술본부 생활문화팀
운영인력	팀장 1인 팀원 13인	팀장 1인 팀원 23인	팀장 1인 팀원 26인	팀장 1인 팀원 26명	팀장 1인 팀원 23인	팀장 1인 팀원 16인
	(센터담당 3인)	(광역생활문화 업무담당 3인) (센터담당 4인)	(광역생활문화 업무담당 3인) (센터담당 5인)	(광역생활문화 사업 +센터담당 5인)	(광역생활문화 사업 +센터담당 5인)	(광역생활문화 사업 +센터담당 5인)
참고	재단 내 생활문화팀 별도 편제 (31개 시군 대상사업 운영)	생활문화팀과 문화재생팀 합병으로 지역문화팀 신설 및 운영		상상캠퍼스팀 신설에 따라 경기 북부에 지역문화팀 이전 신설 및 운영		경기북부 지역문화실 격상 운영

- 2018년도까지는 상상캠퍼스 및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시기로, 문화재생, 지역문화팀이 전담 하였음. 2019년부터는 상상캠퍼스(7개 건물 공간 조성 및 프로젝트 운영)의 비중의 커짐에 따라 상상캠퍼스팀이 신설됨. 상상캠퍼스팀은 문화예술기반의 창업·창직 및 생활문화 거점공간인 상상캠퍼스 운영확대를 위한 전략사업 수행. 2021년부터는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형 생활문화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문화팀으로 전환하고, 상상캠퍼스는 생활 문화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 운영사업으로 전환함
- 생활문화센터는 각 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는 상황이나, 재단 조직도에 명기되지 않는 구조임. 실제로 생활문화팀에 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도 담당하고 있는데, 생활문화팀에 경기문화나눔센터와 경기생활문화센터 두 개의 하부조직이 있는 상황임
- 운영인력은 시설직(용역 17인- 미화, 경비, 영선, 조경 등)을 제외한 인력이며, 공간리모델링과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임. 경기상상캠퍼스 총 7개 건물 리모델링 및 관리에 따른 인력이 방대하고, 경기상상캠퍼스 예산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만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1:3 으로, 매년 정규직 3~5인과 비정규직 10~20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음. 매년 기간제 신규채용으로 인해 인력 교체가 매우 잦으며, 경력직을 뽑기 어려운 구조여서 조직 불안정성이 큼

▶ 최근 3년간 운영예산 현황

- 재단 총 사업비 산정에 있어, 경기도문화재연구원, 박물관, 미술관 사업비는 제외하고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 교육본부 사업비만 산출하였음
- 생활문화센터 조성예산 1,000백만원 별도편성 및 집행함 (2019~20년)

- 운영경비는 산정이 어려우나, 상상캠퍼스 시설운영비가 연간 1,570백만원임을 감안할 때 1개 건물당 224백만원이 소요된 다고 유추할 수는 있음

[표 75] 운영예산 현황 (경기문화재단, 최근 3년)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	2019	2020	2021
재단 총 사업비		69,205	78,884	79,673
센터 운영 예산		1,560	1,500	1,360
· 인건비(급여, 제수당, 성과급, 퇴직금)		약 200백만원 별도편성	약 200백만원 별도편성	약 200백만원 별도편성
· 운영경비(관리비, 4대보험, 제세, 비품 등)		별도산정어려움 약 224백만원 추정	별도산정어려움 약 224백만원 추정	별도산정어려움 약 224백만원 추정
· 조성예산		500백만원	500백만원	

4) 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21년 기준)

▶ 자체기획 (총 사업비 800,000천원)

[표 76] 자체기획 사업 사례 (경기문화재단)

사업구분	내용	예산(천원)
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확산 및 연계 사업	· [유관기관 기획사업] 생활문화 유관기관 교류, 간담회, 연계사업 추진, 생활문화 이슈 발굴을 위한 포럼운영 1) 고양문화재단-지역 워킹그룹 구축, 생활문화 거점조성 2) 오산문화재단-생활문화주체 교육 및 워크숍 3) 동두천생활문화센터-지역유관기관 교류 및 정책탐구 4) 경기도문화원연합회-지역특성화콘텐츠발굴 5) 한국문화의집협회 경기도지부-경기권역 문화의집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및 역량강화 교육 → 경기권역 기초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집 등 생활문화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권역별 생활문화 확장을 위한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 목표, 단계적 확대 예정	154,000
	· [홍보채널 운영] 경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및 SNS 활용, 경기도 생활문화 현장 홍보를 위한 생활문화 포털 운영	100,000
생활문화 인적자원 양성	· [생활문화 활동가 양성] 생활문화 활동가(디자이너) 학교 '뚝뚝(입문)학교', '활짝(성장) 학교' 운영(남부, 북부 각각 2개프로그램 , 10회차 교육 / 총 40회차), 지역 생활문화 인력 발굴 및 지속가능한 현장 활동을 위한 강의, 현장 답사 등 교육	100,000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경기권역 기관 및 단체공모)	· [민간단체 공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지역 내에서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지원 (17개 단체 내외, 244,156천원 지원) · [기관공모] 일상 속에서 터득한 장인의 기술과 지식을 지역 내 공동체적 기여 기회를 제공 하는 지역장인발굴프로젝트 지원 (2개 기관 / 20,000천원 지원) · [민간단체 공모]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경기 생활문화 축제 [온 마을 상상 ○○○] 지원 (11개 단체, 총80,000천원)	344,156
기타 운영비	· 기타 운영비 (포럼, 컨설팅 운영 등) 100,000천원 포함	101,844
		800,000

▶ 대관, 공간운영 (총 사업비 360,000천원)

[표 77] 대관/공간운영 사업 사례 (경기문화재단)

구분	사업명	예산(천원)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동행'	· 도내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강의, 행사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총 98개 동호회 등록)	360,000
생활문화 거점공간 운영	· 도민 생활문화 향유 공간 프로그램 운영 (생활창작공방 8곳, 상상실험실 4곳, 디자인스튜디오 2곳)	

▶ 기타 (총 사업비 200,000천원)

[표 78] 기타 사업 사례 (경기문화재단)

구분	사업명	예산(천원)
예술동호회 지원	· [기관공모] 경기도 내 생활문화 유관 기관에서 활동중인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간 교류촉진 (3개 이상 동호회 연계시 지원)	국·도비사업 200,000

5) 센터 운영사업 추진 체계 현황

▶ 추진 체계 별 역할, 협력사항, 과제

[표 79] 추진 체계별 역할

문체부, 지역문화진흥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연계협력 및 경기도 사례공유	· 생활문화 정책방향수립 협력 및 현장 의견 전달	-
기초문화재단	운영자치위원회, 자문위원회	시민 참가
· 생활문화 현장 발굴을 위한 이슈발굴, 연계협력사업 추진	· 자문단 구성을 통한 사업운영 방향 수립 · 사업컨설팅단 구성 및 현장연계성 강화	· 사업현장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반영

• 지역 유휴공간 발굴 등에 있어 기초지자체 협력이 중요하였으나, 생활문화 사업 관련 기초지자체의 연계는 부족한 상황임

6) 연도별 주요 운영 성과

▶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내용

[표 80] 2019~2021 주요 이슈 (경기문화재단)

구분	주요이슈
2019	· 생활문화센터 기능전환을 통한 광역형 모델 구축(생활문화 네트워크 및 이슈발굴,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기능 통합) · 경기권역 생활문화 거점기관 간 연계협력사업 확대(도내 생활권역 현장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홍보역할 수행) · 도민중심 생활문화 창작공간조성 및 운영예산 확보 (랩 조성을 통한 도민 상상력의 실현 공간 운영) · 지역문화전문인력(다사리문화학교)-경기생활문화플랫폼사업, 경기상상캠퍼스 문화예술기반 창업창직 입주 단체 연계를 통한 문화일자 리 창출 및 선순환 구조마련 (경기형 지역문화전문인력사업 모델 구축 및 확산)
2020	· 경기도내 생활문화 유관기관 교류 추진을 통한 생활문화 이슈발굴 - 도내 문화원, 문화의집, 기초문화재단 교류 및 시범사업 추진(공동포럼, 연구 등) - 경기권역 생활문화센터 지도 (온라인 페이지) 구성 및 홍보채널 운영 ·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문화 현장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경기생활문화플랫폼 발굴지원, 생활문화공동체 교류 확대 ·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 기능강화 - <다사리문화기획학교>7기 운영, 경기권역 생활문화 현장활동가 교육추진 · 공간을 거점으로 한 생활문화활동 촉진 기반 마련 (생활창작공방 및 메이커스페이스) - 생활창작공방(생활예술공방, 재방, 재봉, 바리스타 등), 상상실험실(도자랩, 유리랩, 제작랩) 조성을 통한 생활기술 기반의 제작문화 활성화 및 활동지원
2021	· 도내 생활문화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략사업 확대 - 생활문화 연계를 위한 기관-민관 협력체계 구성 강화 - 광역-기초 연계를 통한 생활문화 이슈 발굴 (공동포럼, 연구 등) -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오산문화재단-생활문화 활동가 양성 등) · 경기지역 시범사례를 기초단위 생활문화 기관과 연계 - 공모사업은 기초문화재단 등으로 점진적 이관 추진 논의 - 지역장인발굴프로젝트(2021년), 경기생활문화플랫폼(2022년 목표)등 경기권역 생활문화 활성화 모델 공동협력 추진 · 생활문화 주제인력 육성지원을 통한 생활문화 저변확대 도모 - 2020년 생활문화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구성 - 현장중심 생활문화 활동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재교육 추진 · 경기권역 생활문화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확대 - 홈페이지 및 SNS 정보제공을 통한 경기권역 생활문화 현장 홍보 확대 - 경기권역 생활문화센터 지도구성 및 기관 홍보채널 운영 강화

▶ 연도별 사업운영에 따른 특이사항

[표 81] 2017~2021 주요 사업 사례 (경기문화재단)

구분	사업명		비고
2017	광역단위 생활문화 사업	[생활문화 기반조성] - 생활문화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문항 270개 개발, 시범 적용연구 추진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력] - 생활문화 기초조사연구 지원 5건, 담당자간담회, 연수 4회 추진 [생활문화 육성 및 확산] - 민간단체 중심의 생활문화플랫폼 17개소선정, 사업운영자교육 1회, 성과공유회 1회, 권역별 축제 19회 개최 -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 : 경기도내 활동중인 생활문화예술단 22개 동호회 총 55개 기관 파견(참여동호회원 242명, 시설 참여자수 3,933명) - 생활문화 캠페인을 위한 '현대 생활문화진단시리즈' 총 3회 추진	생활문화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생활문화 기관 협력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
	공간중심 사업	[경기생활문화센터(생활1980), 생생공화국(현 생생1990) 운영 - 생활공방 총 5팀 지원 : 상시체험 3,913명, 정규수업 60회, 243명 참여 - 어린이, 가족프로그램 : 총 11회, 2,679명 -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목공, 청소년기자단, 요리 등) : 총 101회, 1,644명 - 성인프로그램 (자전거, 민화, 공방, 우쿨렐레 등) : 총 79회, 425명 - 생생공화국 교육(도자, 유리, 섬유, 목공 등) : 총 266회, 4,879명	경기권역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인지도 확대

구분	사업명		비고
2018	광역단위 생활문화 사업	[생활문화 기반조성] - 생활문화 정책연구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3.29), 생활문화 기초현황조사 완료 (공간 및 생활문화 동호회) -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력 : 생활문화 기초조사연구 지원 5건, 지역현장 탐방 및 관계자 간담회 4회, 역량강화 연수 (퍼실리테이션 교육, 일본 생활문화 사례조사 해외연수) [생활문화 육성 및 확산] - 지역거점 주민주도형 생활문화플랫폼 선정 및 지원 : 18건, 344,100천원 지원 - 생활문화예술단 선정(29개 동호회) 및 도내 소외지역 순회파견(61회) -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축제 개최 (10.13~11.30 / 경기도내 18곳) - 2018년 생활문화플랫폼 나눔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개최 -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개최 (117팀 / 556명 참여)	경기권역 생활문화 기초조사 완료, 생활문화거점 활성화를 위한 연차지원제도, 컨설팅 운영 확장
	공간중심 사업	[경기생활문화센터] (생활1980, 생생1990) 운영 - 생활공방 : 총 5팀 → 방문객 및 상시체험 21,795명, 손살이장날투어 21회, 238명 - 정규 프로그램(어린이, 가족, 성인, 동네장인) : 30개 프로그램, 총 216회, 2,728명 - 학교 연계 프로그램(자유학년제, 학교 협력) : 18개 프로그램, 총213회, 4,512명 - 생활문화동호회 46개 동호회(637명) 운영, 공간 및 활동지원 총600회, 3,379명	생활문화센터 기반으로 다양한 연령층 유입, 활동확대 지원
2019	광역단위 생활문화 사업	[31개 시군 생활문화 현장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 - 경기권역 생활문화 유관기관 및 네트워크 4회 운영 -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운영 : 경기권 생활문화 거점 32곳 발굴 및 지원 성과견인을 위한 모니터링 42회, 컨설팅 67회 운영 ('19. 3~12) - 경기권 생활문화축제 총 67회, 16,690명 참여 ('19. 8~12) - 생활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24개 연합동호회 총 1,724명 운영, 12,900명 참여 - 생활문화 취재단 운영 (19명, 42회 취재) ('19. 6~12)	생활문화 현장연계 및 컨설팅 강화, 개별단위 동호회 지원을 지양하고, 교류를 위한 예산확보 추진
	공간중심 사업	[일상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활동 확대지원] - 경기생활문화센터 (생활1980, 생생1990) : 총 44,434명 방문 - 다사리문화기획학교 운영 (총57회 운영/ '19. 8~20.1) · 정규 6기 13명 수료, 포스트다사리 4명 수료, 야학 8회, 240명 수강 -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총 794회 운영/ '19. 1~12) · 신규 28팀, 218명 활동(총69팀, 809명 활동), 우수활동동호회 특강지원18회 - 지역장인발굴프로젝트 운영 (총20회 운영/ '19. 8~12) · 신규 11명 모집, 총20명, 간담회 / 동네장인학교 운영 19회, 195명 참여 - 생생문화데이 (교류의 장 및 성과나눔) (총 1회/ '19. 12) · 생활문화 동호회 11개 팀, 지역장인발굴 프로젝트 9명 체험,전시,참여	생활문화거점공간 확대, 조성을 통해 메이커 문화기반구축 (생활창작공방, 상상실현실 등)
2020	광역단위 생활문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직설치] - 민선7기 중점사업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경기생활문화센터 구성 및 조직설치 (7월) [31개 시군 생활문화 현장발굴 및 지원] - 생활문화플랫폼 공모지원 (23개 단체 선정, 324,990천원 지원) · 사업운영자 교육 1회, 컨설팅 운영 27회, 모니터링 7회, 성과공유회 6회 - 생활문화 유관기관 내 동호회 연계 활동 지원(13개 기관 선정, 130,000천원 지원) 45개 동호회(315명 회원), 108회 활동, 총 6,626명 참여 [생활문화 디자이너 발굴] - 생활문화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 생활문화디자이너 교육(9.24~12.22), 온라인강의 3회(조회수 870회), 온라인토코쇼 1회 (조회수 577회), 온라인워크숍 3회(102명 참여), 워크숍 기록집 1권 제작 · 생활문화디자이너(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진행 [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확대] - 경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구축(7월~12월) 및 SNS 운영 · 생활문화 활동 온라인 콘텐츠 16편 제작 및 성과공유 1회(12.14) 실시 (애니 1편, 다큐영상 1편, 유튜브브 5편, 오디오북 5편, 웹툰 3편, 카드뉴스1편) · SNS 운영 홍보, 활성화 (153개 콘텐츠 등록) - 생활문화플랫폼 포럼 추진 (12.04) · 포럼 유튜브 라이브 송출 및 게시 (조회수 627회)	생활문화플랫폼 현장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내 생활문화디자이너 (활동가)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예산 확대를 통해 생활문화 캠페인 확대

구분	사업명		비고
2020	공간중심 사업	<p>[도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공간 운영 및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동호회 (총 누적 89개 동호회, 982명)- 지역장인 발굴프로젝트(21명 선정), 지역장인영상 15편 제작(조회수 4,713회)- 다사리문화기획학교(정규 7기 16명, 포스트다사리 10명 수료), 강의, 멘토링, 워크숍, 수료식(총 209회) 운영, 야학 강의(6회, 683명 참여, 104명 수료, 유튜브 조회수 281회) <p>[생활창작공방 및 상상실현실 조성 완료,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창작공방 직물(직조, 뜨개질), 재단, 커피 공방 4개의 프로그램 운영 (38회, 124명 참여)- 상상실현실(유리, 도자, 목공, 제작법) 전문운영 단체 선정 및 운영 비대면 교육 (32회, 255명 참여)	생활교류 형태의 공간지원에서 생활기술, 생활예술 확대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2021	광역단위 생활문화 사업	<p>[경기권역 생활문화 교류 확산 및 연계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유관기관 교류(총 5개 기관 및 3개 민간단체 연계), 간담회(3회 운영), 연계사업, 생활문화 이슈발굴을 위한 포럼- 경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및 SNS 활용, 경기도형 생활문화 포털 운영 <p>[생활문화 인적자원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활동가(디자이너) 학교 [똑똑(임문, 활짝(성장)학교] 운영(남부, 북부)- 지역 생활문화 인력 발굴 및 지속가능한 현장 활동을 위한 강의, 현장 답사 <p>[생활문화 활성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지역 내에서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지 원하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지원 (17개 단체 내외, 최대 244,156천원 지원)- 일상 속에서 터득한 장인의 기술과 지식을 지역 내 공동체적 기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장인발굴프로젝트 지원 (2개 기관, 최대 20,000천원 지원)-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촉진, 경기 생활문화 축제 [온 마을 상상 ○○○] 지원 (11개 선정, 지원금 76,000천원 지원)	광역 생활문화센터 역할 모델을 위해, 공모사업은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기초단위의 생활문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맞춤형 생활문화 모델개발/생활문화 디자이너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자료를 기반으로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확대
	공간중심 사업	<p>[도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공간 운영 및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강의, 행사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도민 생활문화 향유 공간(생활창작공방, 상상실현실, 디자인스튜디오) 공간운영을 통한 생활문화 확대 도모- 도내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공간 운영 및 활성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98개, 1,037명 등록)· 생활창작공방 운영단체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7개 프로그램, 47회, 229명)· 상상실현실 운영업체 선정 및 공간 조성·운영(143회, 244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업체 선정 및 공간 운영(148회, 182명)	생활창작공방 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단체 선정 및 공간활성화 도모

7) 재단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 생활문화팀 사업성격과 유사한 팀은 경기북부의 지역문화실과 예술교육팀 사업임. 지역문화실 내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지역문화자원신규공모지원> <경기에코뮤지엄> <보이는마을> 등의 공모사업에서 지역 이슈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확장 하는 프로젝트로 구현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주력사업이었던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서 일상성,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확산, 지역 공동체성이 강조된 사업 방향으로 진행. 실제 지역문화실 사업 성격과 중복되는 지점이 없지 않고, 2017~2018년 지역 문화팀 당시 사업의 유사성을 이유로 통합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음
- 예술교육팀 <경기청소년공연예술지원>은 실제 경기도에서 공연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동호회의 공연기획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아마추어 동호회 지원성격임
- 또한, 예술진흥실 사업 중 모든예술 31(경기예술활동지원)은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도로 구현되는 사업이나, 경기 북부지역 및 예술단체가 적은 지역을 경우, 아마추어 예술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선정되는 경향이 있어, 예술지원과 생활문화의 모호한 경계에 있음

8)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 민선 7기 생활문화 사업 공약에 따라, 출연금 사업도 광역지자체 관여가 타 사업보다 심한편 (자율성 저하)
- 광역생활문화센터 기능 확장에 제약이 있는 요소들
 - 생활문화 정책사업보다 비중이 큰 공간운영 사업 진행
 - 개별 동호회 지원 영역은 기초단위에 이양하고자 하나, 도에서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동호회 및 아마추어 예술인 대상 사업은 생활문화팀으로 전부 이관
- 예) 2021년 예술동호회활동지원 (2억)
2020년 도민공감공연 (아마추어 예술인 버스킹 지원 / 2억)
- 카드 발급 및 이용촉진 위주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생활문화의 개념과 인식의 문제
- 생활문화 사업은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사업으로 인식
- 동호회의 지속적인 공모요청 및 수요발생

9) 센터 운영 개선방안

- 현재,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경기권역에 생활문화센터는 총 22개소 (개관 및 개관예정) 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2곳은 경기생활문화센터임. 실제로 경기상상캠퍼스 조성 당시, 리모델링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산을 2차례 확보하여, 생활1980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2015)하였고, 2019년에는 생생1990공간 리모델링을 추가로 진행하였음. 이는 같은 공간에 2개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기금을 받아 운영하는 상황이 되어 문화예술기반 창업창직을 위한 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 내 경기생활문화센터가 하위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림
- 센터 운영 초창기(2016~2018)에는 생활문화센터 공간 인지도 확대를 위해 공간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활용 (도시농업, 환경, 생태, 로컬, 웰빙 등)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간 알리기에 힘썼으며, 센터 내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 (도자, 유리, 목공, 제작랩, 디자인스튜디오) 조성(2019~2020) 이후에는 공간을 활용한 제작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생활문화 확대에 기여한 부분은 없지 않음
- 단, 경기생활문화센터 지정 당시 생활권형이 아닌 거점형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원 컨설팅 당시에도, 경기생활문화센터는 다른 생활문화센터와 비교하였을 때 독특한 구조이므로, 경기권역에 다른 생활문화센터와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조한 바 있음. 또한, 재단 내에서도 광역형 생활문화센터의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경기상상캠퍼스의 영역과 경기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이슈화 됨. 실제로 조직에서 2019년 상상캠퍼스 팀을 편제한 이후 2년뒤 생활문화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런 과정에서 광역형 생활문화센터에서의 ‘공간 운영’이 기능은 축소되는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광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됨. 예산도 광역형 생활문화 사업 예산 (800,000천원) 보다 경기상상캠퍼스 운영예산 (1,922,000천원)이 2배 이상이어서, 실제로 생활문화팀의 전략사업이 복합문화공간운영으로 보여지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경기권역의 생활문화센터와의 네트워크가 쉽지 않은 상황임. 장기적으로는 경기권역 생활문화센터 확대에 따른 연계협력과 교류가 목표이나, 현재 운영구조 및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회의 개최 시 많은 기관의 참여도 쉽지 않은 상황임. 현재는 기초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집까지 생활문화 유관기관의 범주로 두고 연계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기권역 생활문화센터 간의 연계를 염두 해두고 확장할 예정임
- 인력의 불안정성 등으로 센터 공간운영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임. 공간 중심으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시민조직, 생활문화 기반의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생활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확대 강화 필요

※ 참고자료 : 경기도내 생활문화센터 (총 22개소)

[표 82] 경기도내 생활문화센터 현황

번호	센터명	지역	운영방식	개관
1	777 생활문화센터	양주	직영, 주민자율	2015.10.12
2	경기생활문화센터	수원	위탁	2016.6.11
3	군포시생활문화센터	군포	민간위탁	2019.12.17
4	동두천 생활문화센터	동두천	민간위탁	2015.2.10
5	보정역생활문화센터	용인	민간위탁	2015.10.31
6	생활문화센터 하다	하남	직영	2020.12.11
7	소사생활문화센터	부천	민간위탁	2017.11.20
8	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성남	민간위탁	2017.7.3
9	수원 생활문화센터	수원	민간위탁	2016.9.21
10	아람마당 생활문화센터	고양	민간위탁	2015.8.17
11	오정생활문화센터	부천	민간위탁	2017.8.16
12	월곶생활문화센터	김포	민간위탁	2018.10.28
13	지동 창릉 창작마을 센터	수원	직영	2016.4.29
14	현덕생활문화센터	평택	직영	2018.8.6
15	호수마당 생활문화센터	고양	민간위탁	2015.9.7
16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	민간위탁	2017.5.30
17	경기 광역생활문화센터	수원	위탁	2020년
18	고양 어울누리 생활문화센터	고양	민간위탁	개관예정
19	과천 생활문화센터	과천	민간위탁	개관예정
20	산림조합 (양평생활문화센터, 어울림센터)	양평	주민자율	개관예정
21	수지 생활문화센터	용인	민간위탁	개관예정
22	파주시 생활문화센터	파주	민간위탁	개관예정

2. 경기도 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분석

경기도 생활문화 사업 현황

[표 83] 경기도 생활문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현황

구분	부천	고양	성남	화성시	안양	용인	수원	하남 ⁵⁷⁾	오산	안산 ⁵⁸⁾	군포
설립시기	2001.10.	2004.01.	2004.12.	2008.08.	2009.02.	2011.07.	2012.01.	2012.02.	2012.07.	2013.01.	2013.02.
전담부서	○ 시민문화 본부 -생활문화 센터	○ 생활예술팀, 위탁사업 생활문화 센터	○ 문화국 -생활문화 지원부	○ 시민문화 본부 -생활 문화팀	X	○ 문화도시 센터 -문화 도시팀	X	○ 하남 문화 예술회관 -시민 문화팀	X	○ 지역문화부	○ 예술진흥 본부 -생활 문화팀
문화향유 (공연, 축제 등)		○		○		○		○	○	○	○
문화예술지원	○	○	○	○	○	○	○	○	○	○	
· 시민 참여형			○	○		○	○	○	○ ⁵⁹⁾	○ ⁶⁰⁾	
문화예술교육	○	○	○	○	○		○	○	○	○	○
· 지역 특성화 사업	○										
· 시민 참여형							○	○		○	○ ⁶¹⁾
지역 문화		○	○	○ ⁶²⁾			○				
· 도시 재생							○			○	
· 네트워크											
문화도시 관련	○					○	○		○		
· 생활문화 네트워크	○						○		○		
· 시민문화 기획자 양성							○		○		
· 시민 회의	○						○		○		
· 생활문화 축제	○										
생활문화	○		○	○				○			○
· 생활문화 동호회	○		○	○		○		○			○
· 생활문화 축제	○		○	○	○			○			○
· 생활문화 네트워크			○	○							○
· 생활문화 교육				○				○			○
· 생활문화 인력양성	○			○							
· 생활문화 공간조성			○								
· 생활문화 지역사회공헌			○	○							
· 생활문화 활성화 연구											
· 문화 다양성											
생활문화센터	소사 문화센터, 오정 문화센터	아림마당, 호수마당+ 어울림생활 문화센터 ⁶³⁾	-	화성시 생활 문화센터	-	보정역 생활 문화센터	-	-	-	-	군포시 생활 문화센터

57) 하남 역사박물관/ 하남문화예술회관 통합
58)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개편
59) 커뮤니티 센터
60) 표 채우기 한 3개(안산, 여주세종, 포천)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이 문화예술지원 카테고리였음
61) 평생학습원
62) 화성시 축제 기획 학교
63) 어울림 생활문화센터 2021년 11월, 12월 시범운영

구분	김포	광명	여주세종	의정부 ⁶⁴⁾	평택시	구리	과천	광주시	이천	양평	포천
설립시기	2015.12.	2017.03.	2017.11.	2019.11.	2020.04.	2020.07.	2020.07.	2020.12.	2021.01.	2021.01.	2021.06.
전담부서	X	○ 문화사업팀		X	○ 생활문화팀	X	○ 문화사업팀	X	X	○ 생활문화팀	X
문화향유 (공연, 축제 등)	○		○		○	○	○	○	○		
문화예술지원	○	○	○		○						○
· 시민 참여형		○	○		○						○
문화예술교육	○	○		○	○	○	○	○	○	○	콘텐츠 준비중
· 지역 특성화 사업											
· 시민 참여형	○				○						
지역 문화	○	○	○								
· 도시 재생											
· 네트워크											
문화도시 관련											
· 생활문화 네트워크											
· 시민문화 기획자 양성											
· 시민 회의											
· 생활문화 축제											
생활문화		○	○ ⁶⁵⁾		○		콘텐츠 준비중				
· 생활문화 동호회	○	○			○						
· 생활문화 축제		○									
· 생활문화 네트워크					○						
· 생활문화 교육	○	○	○								
· 생활문화 인력양성											
· 생활문화 공간조성		○			○						
· 생활문화 지역사회공헌											
· 생활문화 활성화 연구		○	○								
· 문화 다양성	○				○						
생활문화센터	월곶 생활 문화센터	하안 문화의집, 광명 문화의집	-	-	-	-	과천시 생활 문화센터	-	-	양평생 활문화센터 (21년 10월 개관)	-

64) 의정부 예술의 전당 개편
65) 카테고리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생활문화 사업과는 내용이 다름

경기도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례

부천문화재단

1) 센터 설립경과

▶ 설립경과(연혁 위주)

- 2014년: 부천시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 2016년 ~ 2017년: 소사·오정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
- 2018년: 생활문화공간 5개소 54실 운영(생활문화센터 2개소, 예술마당 3개소)

2) 센터 운영 조직 및 예산현황

▶ 운영방식: 부천문화재단 직접 운영

▶ 운영인력 현황

-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센터 직원 8인, 계약직 2인
(센터장 1인 / 사업기획 4인 / 공간운영 3인 / 지역문화전문인력 2인)

▶ 최근 3년간 운영예산 현황

[표 84] 2019~2021 운영예산 현황(부천문화재단)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단 총 사업비	8,108	8,355	11,886
센터 운영 예산	640	756	734
· 인건비(급여, 제수당, 성과급, 퇴직금)	325	335	367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등)	227	329	280
· 운영경비(관리비, 4대보험, 제세, 비품 등)	88	92	87

3) 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자체기획 : 지역문화활동가 중심 공동체 형성 및 안전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 <우리마을 문화코디> 오정·소사 기반 매개자 양성 및 공동체 발굴(4개 단체)
- <지역문화인력프로젝트지원> 오정·소사 중심 지역문화자원 발굴

▶ 대관운영: 코로나 19 대응 생활문화 공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분기별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운영
- 2021년 대관 현황 (2021년 11월 말 기준)

[표 85] 2021 생활문화센터 대관 현황(부천문화재단)

명칭	2019년		휴관일
	이용인원	동호회	
소사생활문화센터	연 14,474명	1,302팀	매주 일요일
오정생활문화센터	연 4,143명	1,317팀	매주 일요일

* 도당, 상동, 사례이 예술마당은 코로나 19로 인한 휴관

▶ 기타: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 생활문화축제 운영 등

- (생활문화활동지원)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시민 생활문화 활동 확대
- 동호회지원<시민아트밸리>, 생활문화활동지원 <키위>, <라온>운영
- 생활문화 단체 72개 단체 선정 및 지원
- (생활문화축제) 시민 주도 과정 중심 온라인 생활문화페스티벌<다락> 운영
- 시민회의 및 시민축제기획단 운영: 시민기획자 28명 발굴, 37회 회의 운영
- 방역수칙 준수 700여명 시민 참여, 88건 온라인콘텐츠 제작·송출

4) 재단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 문화도시 사업 연계: 문화자치 기반의 시민 주도적 문화사업 확대

- 생활문화 축제 및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 사업
- 시민기획자 및 지역문화활동가 발굴 및 양성(32명), 생활문화공동체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

5)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 대관 중심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 생활문화 초창기 사업방식이 장르 중심의 동호회 지원으로 진행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식 또한 동호회 연습활동을 위한 대관 중심으로 운영됨
-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내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 부족

▶ 생활문화동호회의 성장 프로세스 고민

- 지원 대상 생활문화동호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으로 생활문화가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질적 성장을 위한 긴 호흡이 필요

군포문화재단

1) 센터 설립경과

▶ 설립경과(연혁 위주)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 공모신청
 - 2017. 3월 문화체육관광부 현장실사 거쳐
 - 2017. 4월 생활문화센터 국비지원대상 선정
 - 기존공간에 수평증축 통해 생활문화예술 활동 거점 공간 조성 추진
-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건립
 - 기존동 연면적 529평방미터, 증축동 연면적 846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를 합쳐, 총연면적 1,375평방미터
 -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9.5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시비 5.4억원을 포함하여 총 25억원으로 건립

2) 센터 운영 조직 및 예산현황

▶ 운영방식: 문화재단 위탁 운영

▶ 운영인력 현황

- 정직원 4명 (팀장(1), 대리(2), 주임(1))
- 문화인력 1명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인력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운영예산 현황

[표 86] 2019~2021 운영예산 현황 (군포문화재단)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	2019	2020	2021
재단 총 사업비		21,484	22,352	15,648
센터 운영 예산		385	341	327
· 인건비(급여, 제수당, 성과급, 퇴직금)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등)		204	223	222
· 운영경비(관리비, 4대보험, 제세, 비품 등)		180	118	105








3) 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대관운영

- 대관료: 일반실 1시간 5,000원 / 개인연습실 1시간 3,000원 / 다목적스튜디오 1시간 15,000원
- 대관방식: 정기대관 (분기별 4분기),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잔여 공간), 당일대관
- 대관실

[표 87] 군포시생활문화센터 공간 관련 내용

구분(대관여부, 최대수용인원)			면적(㎡)	주요용도	사진
본관	1층	다목적스튜디오 (부분대관 / 80명)	161.66	· 센터 자체사업 우선 배정 (자체 프로그램, 행사 등) · 음향이 필요한 중대형 기악, 성악 및 연극 등 리하설 및 연습공간, 소규모 공연 및 발표	
		밴드연습실 (대관 / 8명)	29.21	· 밴드동호회 합주 및 연습공간	
		개인연습실(1) 드럼비치 (대관 / 각1명~2명)	12.4	· 관현악, 타악, 보컬 등 개인연습공간(2실)	
		개인연습실(2) (대관 / 각1명~2명)	15		

구분(대관여부, 최대수용인원)			면적(㎡)	주요용도	사진
본관	2층	마루연습실 (대관 / 25명)	142.97	· 국악 및 무용동호회 연습공간	
		어쿠스틱연습실 (대관 / 10명)	48.03	· 음향이 필요없는 중소형 기악 및 성악 연습공간	
	공용	커뮤니티룸 (대관불가 / 8명)	17.95	· 생활문화공동체, 자원활동가 소통 및 회의 공간 · 직원 회의공간	
별관	1층	커뮤니티갤러리홀 (부분오픈갤러리 대관 / 50명)	235.46	· 모임, 교류 열린 소통공간 · 전시, 소규모 세미나 동호회 회의 등	
	2층	다목적공방 (대관 / 20명)	89.40	· 수공예 창작공간	
		아틀리에 (대관 / 10명)	45.01	· 서양화 및 동양화 창작공간	
		문화나눔터 (부분대관 / 18명)	31.65	· 자체사업 문화나눔학교, 교육플랫폼 우선 배정 · 시각, 문학 창작공간	

▶ 자체기획

[표 88] 2022년 사업계획(군포문화재단)

2022년 사업계획		
생활문화 네트워크	· 생활문화주체 간 교류 및 축제를 통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	
생활문화축제	·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의체의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자발적 축제 기획 지원 및 운영 (과정중심의 축제 기획) ·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축제(공연, 전시, 체험, 생활문화 부스운영, 캠페인 등) · 문화공동체 취향 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인 부스 운영으로 머물며 교류하는 축제 (생활문화활동 소개, 홍보, 체험, 모집 등)	
생활문화 청년활동 청취방 (청년취향모임방)	· “MZ세대”니즈 및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공동체 모임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	· 다양한 생활문화주체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단체만의 자체행사가 아닌 사회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소외지역·계층을 비롯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	
생동감 아카데미	· 전문예술가의 교육으로 시민의 문화예술역량강화 및 새로운 예술 동호회육성 기반 마련	
생활문화 활동가 양성 (우리동네 생활문화 디자이너)	· 경기문화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스스로 일상의 문화를 발견하고 재구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기문화재단	<양성교육>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군포 포함 4개 기관 예정)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주체 교육 및 공동 워크숍
	군포문화재단	<프로젝트 기획> 예)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프로젝트 공동 기획 등 청년형, 관심·주제형 생활문화센터 활용형 등 다양한 형태의 거점 공간 시범 운영

4) 재단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 생활문화활동가 양성(우리동네 생활문화디자이너)

- 경기문화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스스로 일상의 문화를 발견하고 재구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5)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 현재 동아리 공모사업 지원금을 재단이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나, 담당직원이 멘토 지원과 관리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원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대책 → 전체 교부 방식으로 전환
- * 단 원천세,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 복잡한 절차의 인건비만 재단의 직접 집행 검토로 정산의 간소화

3. 주요 정책 쟁점 제시

아래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생활문화 사업 실무자 FGI에서 도출된 내용임

(※ 1,2차 생활문화 사업 실무자 FGI의 주요 내용은 부록에 수록함)

1) 생활문화 사업 차별화 지점

- 생활문화 사업은 정책용어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등 재단 내 유사 타 분야 사업들과 중복되는 지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활문화 사업의 차별화 지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 (1) 시민의 주체성, 자발성, 당사자성 : 예술 교육이 매개자, 예술 강사 중심이라면 생활문화 사업은 시민 중심임.
즉 사업의 시발점이 수월성을 가진 전문가의 욕구가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임
- (2) 공동체 중심 : 생활문화 활동가 양성 시, 강사 역할 아닌 커뮤니티 형성하는 역할 강조
- (3) 높은 자율성 : 형태적 요소는 타 사업과 비슷하나, 생활문화 사업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한 부분 많음
- (4) 일상성 : 시민의 일상 속에 생활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동네 문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둠

2) 거점형 광역생활문화센터 역할과 기능

- 공간 운영 개념에서 광역생활문화센터와 기초생활문화센터 간 차이가 거의 없음. 따라서 광역생활문화센터가 거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생활문화센터로만 역할을 하게 됨. 또한 광역·기초생활문화센터의 지원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 있음
- 이는 광역생활문화센터에 부여된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
- 아래는 FGI에서 언급된 거점형 광역생활문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임
- (1) 지역 공동체의 허브 역할
-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 (3) 공간 개념에서 벗어난 플랫폼 기능
- (4) 기초생활문화센터 사업 홍보를 포함한 생활문화 정보 온라인 플랫폼 운영

3) 생활문화센터의 적합한 운영 주체

- 생활문화 사업이 시민의 주체성,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다면, 문화재단이나 공공기관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의지를 가진 지역 활동가들이 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민간단체 운영 시 폐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음
- 현실적으로 민간-공공의 중간적 입장에 있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 짐

V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과 개선과제

2. 개선방안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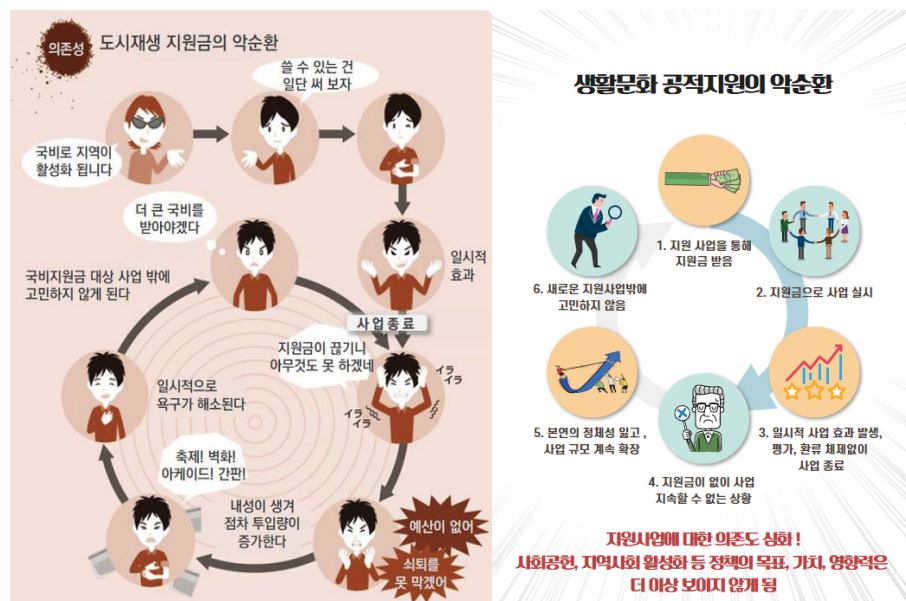
1) 주체성, 자발성에 대한 논쟁

-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된 '생활문화'는 주체성과 자발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17개 광역문화재단에서 실행하는 생활문화 사업은 공급자 중심 사업임. 따라서 생활문화의 취지인 시민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사업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그동안 자생적으로 존재해 왔던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협회'와 '연합회'를 구성해 이익단체화 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생활문화 동아리를 지탱해온 자발성과 주체성이 점차 약화 되고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공적 지원 의존성

- 아래는 생활문화 동호회의 공적 지원 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임
 - 광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국가, 지자체 예산 확보로 생활문화지원 사업을 실시함. 사업 방식은 대상이 생활문화동아리라는 점 외에는 예술 지원 사업과 유사함
 - 생활문화동아리는 자생적, 자발적으로 하던 활동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주니 만족도 높음
 - 정책적으로는 사업 종료 후 각종 결과보고서, 홍보자료 등이 쏟아지니 일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임
 - 평가·환류 체계 없이 사업종료 되고, 생활문화 동아리는 지원 사업 의존도가 심화됨. 이에 따라 사회공헌, 지역사회 활성화 등 정책의 목표, 가치, 영향력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됨
 - 이는 일본의 도시재생 지원금의 악순환과 거의 동일한 구조의 모습을 띄게 됨

[그림 16] 일본 도시재생 지원금의 악순환과 생활문화 공적지원 악순환 비교



- 특히, 생활문화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생활 예술인이 양적으로 증가추세임. 이들은 지역과 지원사업의 영역을 넘나들며 공적지원의 수혜대상이 되고 있어, 전업(전문)예술인과 사업 수혜에 있어 갈등 구조를 낳고 있음. 결국, 이러한 경향은 일선 현장에서 생활문화 사업 공적지원의 정당성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음
- 시민 중심의 일상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 접근성 및 시민의 창조적 역량 배양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 문화 활동을 매개로 지역 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지역사회 의 제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문화공동체'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있음
- 즉, 생활문화 사업의 중심이 공간 대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결과 발표가 되면서 참가자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 대상이 제한된 점은 문화행정의 공정성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 됨. 또한, 지역사회 공헌으로 얻는 성취감이 참가자들의 지속적 활동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 행정과 문화재단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점 온도차

- 예산의 구조로 살펴보면 광역생활문화센터 주체는 광역시도, 생활문화 사업 주체는 광역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 이원구조가 일반적임. 즉, 광역문화재단은 광역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위탁 사업(민간위탁금 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지자체 보조를 받고 있으며, 생활문화 사업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출연금 사업이 되고 있음
- 행정은 하드웨어인 시설운영을 통해 재단의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가 결합되기를 바라는 반면, 문화재단은 광역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을 물리적 공간중심 운영에서 탈피하여 플랫폼 역할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두 차례에 걸친 FGI를 통해 나타난 광역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 결과 역시, 공간적 개념의 센터에서 플랫폼 기능의 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3) 광역·기초문화재단 간 생활문화 네트워크 부재

- 광역·기초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설립이 가속화 됨.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활문화 사업은 지역문화재단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함
- 현재 17개 광역문화재단은 생활문화 사업을 각 재단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기존에 시설운영 중심이었던 기초문화재단도 '문화도시'사업과 보조를 맞추고자 시민문화사업의 대표사업인 생활문화 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음
-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광역인 경기문화재단 외에도 부천, 군포 등 대다수의 기초문화재단에서도 생활문화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여전히 광역과 기초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는 미진한 편임

4) 생활문화 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 부족

[표 89] 생활문화 사업 관련 문제들

생활문화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		
차별성	사업 차원	· 예술교육, 문화향유사업 등과 조직 내 사업 중첩
	정책 차원	·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정책영역의 사업들과 차별성 부족
연계성	효율성 관점	· 자원 및 조직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효과성 관점	· 사업과 주체 간 연계로 시너지 창출 필요

- 우선 조직 내부의 <사업> 차원과 대외적인 <정책> 차원에서의 <차별성> 부족 현상이 생활문화 사업의 문제로 제기됨. <사업> 차원에서는 “생활문화 사업은 예술교육, 문화향유 사업 등과 명확히 구분되지 못한다”는 문제, <정책> 차원에서는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이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정책에서 교육 및 주민참여 사업 등과 차별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는 독립된 사업영역으로서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짐
- <연계성>은 <차별성>과 모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독립된 사업영역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원투입과 효과 산출의 경영적 측면에서의 문제임. 이를 <효율성>과 <효과성>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필요가 있음. “유사사업끼리 자원 및 조직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효율성 관점>의 문제 인식과, “타 사업, 주체들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는 <효과성 관점>에서의 문제 인식으로 나누어 봐야 함. 왜냐하면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가진 두 관점을 균형감 있게 적용하지 않으면, 자칫 축소지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임

▶ 처방을 위한 진단 – 정말 문제인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표 90] 제기되는 문제들과 처방 위한 진단

제기되는 문제들		처방을 위한 진단
차별성	사업 차원	· 현상의 중첩성보다 주체의 인식역량의 문제
	정책 차원	
연계성	효율성 관점	· 비효율보다 다양성이 문제
	효과성 관점	

- 문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므로 연구진의 진단 입장을 먼저 밝히고자 함. <차별성>과 <연계성> 문제는 비단 생활문화 사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단 사업 전반에 걸쳐서 같은 문제가 존재함. 그리고 특히 <연계성> 문제는 현재의 문제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지만 향후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 요구임
- <차별성>의 문제는 실제로 생활문화 사업 관련 프로그램 또는 결과가 현장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문제 인지, 같은 현상을 놓고도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인식>의 문제인지 엄정하게 따져봐야 함. 그리고 그 인식의 주체를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을 상정한 것인지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 직원 또는 이를 평가하는 상위기관을 상정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같은 현상이라도 <차별성 있게 인식되는> 양상은 달라짐
-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그것을 목격하는 주체들이 가진 각자의 인식 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과 그 사건에서 경험하는 내용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비판적 실재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개

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경험>의 영역만이 아니라 <경험적/현실적/실재적>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는 세계 관에 입각해서, <현실적> 영역 너머에서 사건을 발생시키는 <실재적> 작동 기제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함⁶⁶⁾

- 예를 들어, 생활문화/지역재생/평생교육의 사업주체들이 협업하여 주민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최종 성과로 동주민센터에서 <생활문화동아리의 발표회 공연>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서술조차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성과발표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식>, <도시재생 주민 커뮤니티 활동>으로 각 주체별로 다르게 보고서에 기입될 것임
- 더욱이, 행사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는 내용은, 어떤 행정가에게는 <지역문화정책 가치가 발현된 현장>으로, 또 다른 행정가에게는 행사를 진행하느라 <숨 가뻔던 주민참여 행사>로 경험될 수 있음. 참여한 주민도 <예술강좌 연습결과의 뿌듯한 발표회>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즐거운 여가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도 있을 수 있음.
- 만약 문화행정가가 이 사건을 문화정책 관점에서 파악하고 싶다면, 본인의 보고서에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성과발표회>로 기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기제>와 그 사건에 참여한 시민들이 <교육적 성취감>이나 <여가의 즐거움>이외에 <예술적 성취감> 또는 소위 생활문화 사업이 기대하는 어떤 성과를 느끼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제>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함

[표 91] 비판적 실재론을 적용한 현상 인식

존재의 3가지 영역		적용 사례
실재적 영역(the real)	작동기제	? (시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이 내포한 본질적 가치)
현실적 영역(the actual)	사건	생활문화동아리 발표회 공연 <문화정책 보고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성과발표회 <평생교육 보고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식 <도시재생 보고서> 주민 커뮤니티 활동
경험적 영역(the empirical)	경험	<행정가 1> 지역문화정책의 가치가 발현된 현장 <행정가 2> 숨 가뻔던 주민참여 행사 <주민 1> 뿌듯한 예술 강좌 발표회 <주민 2> 즐거운 여가시간...

- 이때, 발생한 <사건>의 형식이 동아리 발표회가 아닌 공연 또는 마을축제로 나타났다고 해서 어떤 경우는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로 서술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없는, 또는 뚜렷이 차별화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님
- 문화사업의 결과를 차별성 있게 파악하는 데는, 나타난 <현상>의 차별성보다는 그것의 의미를 구별해서 파악하는 <인식>이 보다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임. 문화재단 안에서 생활문화 사업과 타 사업 사이의 중첩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각 사업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의 제도화 압력에 대응하여 상징적 동조 차원에서 사용되는 정책 언어 아래에 숨겨진, 본래의 정책 이슈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는 역량을 키워야 함. 즉, 시민문화, 지역문화, 문화사업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생활문화 사업이 원래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서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 안에서 그 가치가 구현된 것이 확인된다면, 사업 간 중첩성에 대해 문제 삼을 이유는 없음
- <연계성>의 문제도 <효율성> 제고 보다 <효과성> 제고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함. 기관 차원에서는 경영효율이 중요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취향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함. 생활문화 사업 2개와 예술교육사업 2개를 통합해서 3개의 사업으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시민들이 문화향유권 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66)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 (김해보.장원호, 2020, 문화정책논총) 참조

2. 개선방안

1) 생활문화 지원시스템 재검토

- 전업예술인과 생활예술인 분리를 통한 맞춤형 지역문화예술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술적 수월성(excellence)의 창작지원과 접근성(accessibility) 향상의 생활예술 활성화라는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안함
- 또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광역·기초를 넘나들며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증가하여, 중복지원, 과다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문화의 정책 목표, 사업 수혜 대상의 성격과 필요(needs)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거점 생활문화센터의 개념 규정을 통한 역할 정립

- 현재 4개 광역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광역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와 운영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는 광역생활문화센터에 부여된 거점 역할의 부재를 보여줌. 다시 말해 지역 내 존재하는 다른 생활문화센터와 운영 주체만 다를 뿐, 거점 생활문화센터로서의 명확한 역할에 대해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아래는 생활문화 플랫폼으로서 광역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제안한 것임

[그림 17] 광역생활문화센터 역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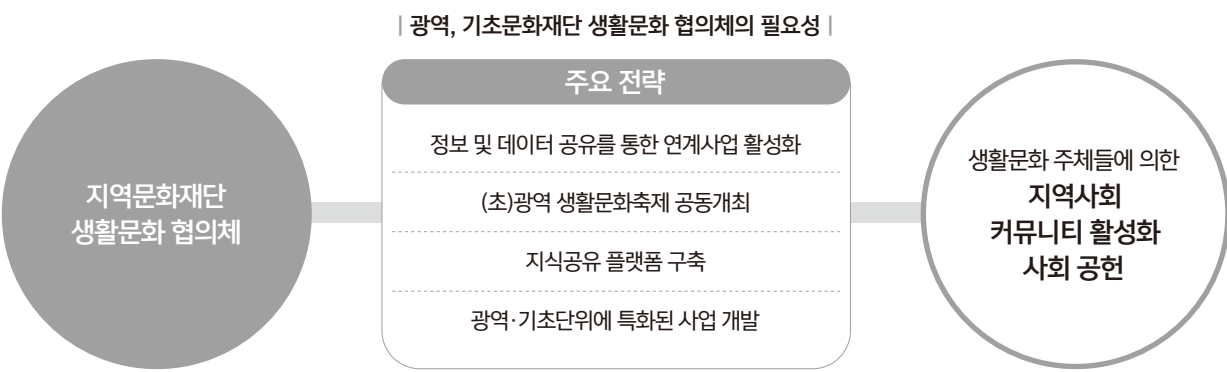


3) 광역·기초문화재단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현재 17개 광역문화재단과 다수의 기초문화재단은 생활문화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다만 광역과 기초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는 미흡한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특히,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생활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광역-기초문화재단 간 문화정책 역할 분담의 관점 논의는 결국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을 위한 구체적인 실증적 사례가 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광역·기초 간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아래의 4가지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함

▶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그림 18] 생활문화 네트워크 협의체



①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한 연계 사업 활성화

- 현재, 광역과 기초 간 생활문화 관련 정보 및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기관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정보 및 데이터 공유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중복, 과다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의 입장에서 생활문화 지원을 둘러싼 명확한 정책기조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광역·기초 간 생활문화 지원 규모, 시설, 프로그램, 동아리 현황 등의 정보 및 데이터의 공유는 사업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사업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이 가능함
- 향후,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지역 내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이러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광역·기초 문화재단 실무 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할 것임
- 광역·기초 문화재단의 실무협의체 공동으로 생활문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 역시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선결과제로 필요함

❷ 광역 생활문화축제, 초광역 생활문화축제 공동 개최

- 대규모 생활문화축제를 통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광역·기초 간 공동으로 축제 개최를 고려할 수 있음. 현재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인 생활문화축제를, 지역을 넘어 광역, 나아가 초광역(문화권역)으로 확대 개최하여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광역·기초 간 생활문화축제 공동개치를 통해 지역 간 시민들 교류와 협력을 위한 문화이동 활성화가 필요함

- 또한, 지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생활문화축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지역 축제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창의 인력들 (Creative Practioner)을 위한 활동의 장과 지역 창조의 공론장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❸ 인력 교류, 교육을 통한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 지역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계자들의 정기적이고 조직화된 인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간 프로그램 연계성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적 교류의 부재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라운드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라운드 테이블 활성화를 통해 쌓인 인적 네트워크는 사업 간 인적 교류, 센터 간 인적 교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

- 인적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는 운영 사례의 지식 공유를 통한 동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동 교육 커리큘럼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음

- 교류와 교육을 통한 지식은 생활문화 동아리와 시민들에게 개방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유의 확장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❹ 정형화된 형태의 사업 탈피, 광역·기초단위에 특화된 사업 개발

- 광역, 기초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의 차별성 부족은 동아리 지원, 공간대관, 교육, 네트워크라는 사업의 정형화에 있음

- 이처럼 규격화된 사업운영 방식으로 인해 예술지원과도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생활문화의 가치인 참가자의 주체성, 자발성을 고려한다면 생활문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함

- 특히, 광역, 기초단위 운영 주체들의 사업에 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예컨대, 기초는 생활문화 주체들과 지역문화에 근거한 풀뿌리 예술 사업(grassroots arts)을 직접 기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광역은 이를 지원하는 생활문화 사업의 플랫폼 역할을 구상할 수도 있음

4) 생활문화 관련 광역문화재단 사업 간 연계방안

·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 사업의 차별성과 연계성 관련 문제에 대해 <현상의 변화보다 인식의 전환>, <통합의 효율성보다 다양한 효과성>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차별성과 연계성 관련 생활문화 사업의 개선 방안

- ①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지향가치 중심으로 사업의 차별성 이해
- ②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다양성 제고 지향
- ③ 투입 절감보다는 산출된 가치에 대한 해석력 제고로 효율 높이기
- ④ 재단 내 자원 공유와 교류의 플랫폼 역할

❶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지향가치 중심으로 사업의 차별성 이해

- 문화정책 분야에서 법들이 제정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슈, 즉 정책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천명되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업의 중첩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인식 프레임의 한계에서 오는 것임

- 문화정책 기초가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1972년에 제정된 문예진흥법의 [전달/현상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문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들을 구현하고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문화정책 사업영역의 분화를 통해 현재 시점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 4가지 키워드를 [예술/문화/시민/지역]으로 설정해볼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요소들에 대한 문화정책의 접근법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전달/현상 프레임]과 [재생산/주체 프레임]을 제시함

[전달/현상 프레임]

· 문예진흥법에 근거한 초기 문화정책의 문화진흥은, “우수한 예술/문화가 확산되어 사회 안에서 융성해진 <현상>을 지향”하는 접근이었음.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수한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유통>하여 시민들이 <향유>하게 하는 <전달체계> 정립이 중요한 과제였음. 이런 유통과 전달의 체계는 시장과 문화행정시스템이 담당하였음.

· 반면 2010년대 이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민주주의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문화주체들의 참여를 중시하면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필요해졌음. 서울시의 서울문화플랜과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예전과 달리 <개인>, <공동체> 등 문화주체를 중심으로 정책 틀을 짰 것은 이런 변화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나 사업수행 방식은 여전히 우수한 예술콘텐츠 또는 문화서비스를 지역격차 없이 누구나 누리도록 <전달>하고, 이로 인해서 지역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현상>을 기대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전달/현상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로 함

· <전달/현상 프레임>에서 <시민>은 우수한 예술과 문화의 소비자이고, <지역>은 문화예술이 융성하게 진흥된 <현상>이 발현되는 <장소>로 인식됨. 우수한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전문가 또는 예술가, 문화국가로서 위상이 높아진 국가가 주요한 문화의 주체로 인식됨

· <지역 격차 없이 전달된 문화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생활문화 사업에서도 여전히 동아리 활동 참여자 숫자가 중요한 성과지표가 됨. 지역문화진흥의 성과로 문화가 융성한 <현상>을 지향하니 관광객 숫자의 증가 등 문화도시의 경쟁력이 여전히 중요한 지표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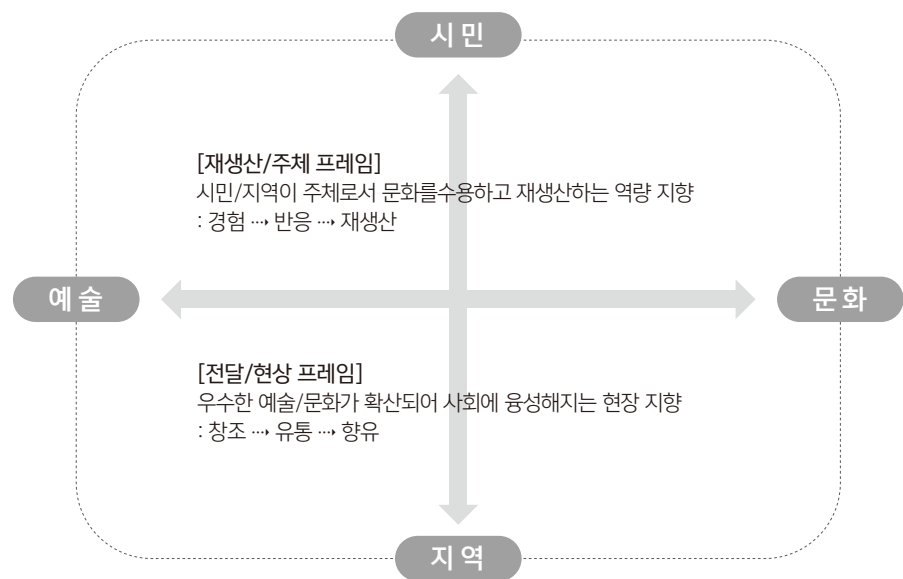
[재생산/주체 프레임]

· 하지만, <주체> 관점으로 전환하면, 문화는 전달받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며 주체적 재생산 활동의 결과이어야 함.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속한 환경 속에서, 또는 주체적인 선택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통해 스스로의 문화를 <재생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역할이어야 함. 이때 시민은 문화서비스 소비자가 문화생산의 주체로, 지역은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의 주체로 인식됨. 이런 프레임은 <재생산/주체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로 함

-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생활문화 사업을 바라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문화 주체인 시민이 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스스로 재생산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임
-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환경에 노출되거나, 예술교육프로그램, 공연, 전시 관람 등의 적극적인 경험을 통해 자기가 속한 동시대 문화에 대해 반응, 해석하여, 결국은 문화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문화 경험이 반드시 생활문화동아리 형태일 필요는 없음. 시민과 예술가가 <서로 배움>의 자세로 만나서 예술적 경험을 나누는 예술교육프로그램도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

[그림 19] 현재 문화정책의 4가지 핵심요소와 접근 프레임



- <재생산/주체 프레임>으로 보면 전달된 문화서비스, 또는 일어난 문화 현상의 형식과 수량보다는 그로 인해 주체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문화를 재생산 할 수 있는 문화 역량이 키워지는 변화를 기대할 텐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
- 이처럼 문화사업으로 구현된 사건의 형태나 사용된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지향가치의 차별성이 사업의 차별성과 중첩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동일한 콘텐츠도 다른 맥락에서 쓰여서 다른 가치를 구현한다면,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제각기 다른 정책영역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음. 평생교육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처럼,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는 <목적>이 되는 행위가 타 정책영역에서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오히려 바람직하고 장려할 현상임. 이를 정책영역 간 중복, 또는 차별성 부족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님
- 법령은 정책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천명한 것임. 이에 따라 공공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을 확보하는 정당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됨.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평생교육법 등 현재 존재하는 법령들은 현재 시민

의 인식 수준에 맞추어 각 정책사업이 차별화되는 가치를 구현하도록 공공자원을 배분하고 있는데, 사업 주체가 그에 합당한 창의적 기획으로 그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합당함

- 특히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담론화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새로운 문화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함. 이를 고려하면, 기존에 이미 제도화되었고 확보된 사업영역을 통합, 축소하기보다는, 그 영역의 문화사업이 구현해야 할 본래 가치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생활문화 사업이 지향하는 <시민의 문화 주체로서 역량 강화>, <문화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은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타 정책영역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일부 달성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정책의 한정된 재원으로 서비스 커버리지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광역문화재단은 평생교육, 도시재생 등 타 공공정책 영역으로 추천해줄 우수한 사례를 기획/발굴/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우수한 콘텐츠는 적재적소에 연결되면 스스로 확산되는 힘이 있음. 광역문화재단은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 직접 제작하고 실행하기보다는 확산을 위해 매개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함

2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다양성 제고 지향

- 문화사업은 경영의 효율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에 대응하는 것이 그 본래 존재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
- 문화 또는 예술 경험의 계기와 경로, 선호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름을 고려해야 함. 어떤 시민은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으로, 어떤 시민은 친구들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어떤 시민은 예술가와 진지한 대화로 이어지는 예술교육으로 강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공간과 경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기획으로 다양하게 문화를 만나는 접점을 제공해야 함
- 시민들이 생활문화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욕구나 동기를 고려하여 접점의 성격과 소구하는 매력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심리학자 매슬로(Abraham Maslow)의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이나, 알더퍼(C.Alderfer)의 “ERG이론(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에서 공통적으로,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존재 욕구(Existence needs)> 이외에도 더 충족해야 할 많은 욕구가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문화 활동에 참여함

[표 92] 매슬로우와 알더퍼의 이론상 욕구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관련 요소	알더퍼의 ERG
자아실현 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	자신감	성장욕구 (Growth needs)
존경 욕구 (Esteem needs)	대인 관계	관계욕구 (Relatedness needs)
소속감과 애정 욕구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사회적 관계	
안전 욕구 (Safety needs)	대인 관계	존재욕구 (Existence needs)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물질요소	

- 그런데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예술 활동을 함께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서 욕구가 충족되는 양상은, 사업 주체가 기획한 것보다 더 다양하고, 참가한 시민이 기대한 것과 다른, 예측불가능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사람들은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해 각자의 기대와 친교를 맺고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하는 <애정·소속 욕구(love/belonging)>, 자아존중, 자신감, 성취, 존중, 존경 등에 관한 <존중의 욕구(esteem)> 또는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자기계발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또는 <성장욕구(Growth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음

- 같은 욕구를 가진 시민이 생활문화지원센터의 문화프로그램에 접속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센터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도 있음.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이든지 국민들이 더 많은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이런 측면에서 경영 효율을 위해 사업단위로 생활문화 사업과 예술교육 사업 등을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함. 결국 분장되는 사업의 유사성과 규모를 고려해 팀이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문화팀과 예술교육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함

- 반면 사업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자원의 공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본부 단위의 통합은 고려할 사항임. 하지만 협업을 가로막는 요소는 조직구조보다는 조직문화일 가능성이 더 큼. 같은 부서에 분장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 간 연계가 반드시 원활한 것은 아님

❶ 투입 절감보다는 산출된 가치에 대한 해석력 제고로 효율 높이기

- 경영 관점에서 효율성은 투입대비 산출량의 비율임. 현상적으로 사업들이 중첩되어 보인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사업간 통합과 투입량의 감소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산출을 늘리는 게 궁극적으로 문화정책이 사는 길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생산하는 문화정책은 자칫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입을 계속 줄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 산출로 인지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산출로 해석해서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만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이 구현할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 가치가 만들어 내는 효과를 산출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함

- 따라서 가치의 <생산>뿐만 아니라 <해석>과 <추출> 능력이 중요한 경영역량이 됨. 이렇게 해석과 추출을 통해 인식된 가치가 곧 기관의 경영성과임

- 특히 시민이 함께 인식하는 가치가 더 보편적인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의 가치 해석력을 높이는 것, 즉 본인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가치를 공감하게 하는 것 또한 투입을 줄이지 않고 문화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임

- 시민들은 먼저 사업의 홍보물에 사용된 언어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인식하고,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 언어에 포함되었던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됨.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책 주체가 사용하는 언어와 가치체계가 시민들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어떤 시민이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정책의 가치목표에는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개다리>라는 브랜드에 매력을 느껴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무지개다리>라는 상징과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정책 언어 사이의 인식 간극이 줄어들게 됨. 그리고 공유된 가치를 통해 참가 시민이 난민캠프에 기부를 하는 등 사회적 행위가 바뀌거나,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바뀌는 효과가 부가될 수 있음. 이런 효과들이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변화를 해석하고 추출할 수 있으면 사업의 성과로 활용될 수 있음. 이렇게 새로 파악된 효과를 사업의 산출을 고려할 때, 이전보다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파악될 수 있음

- 그런데 만약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이 간극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은 <참가자 1>인 밖에 없음. 이런 측면에서 성공적인 문화사업은 <서비스 전달>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가치 공유> 과정이 되어야 함

[그림 20] 정책 언어와 사업브랜드 사이 인식의 갭



- 가치 공유의 관점에서 정책과 시민이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소통되고 가치를 공유하는 <상징 세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함. 지나치게 공적 가치만을 주장하는 정책 언어도, 지나치게 트렌디한 사업브랜드도 두 언어 사이의 인식의 갭을 넓히는 요인이 됨

- <생활문화> 사업은 그 표현형은 <생활 속에서의 친근함>인데,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가치가 사회 계몽적이고 무거운 측면이 있음. “문화로 행복하게 살기” 정도의 친숙하고 가벼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시민과 정책의 언어 인식의 갭을 줄이고, 공감되는 <상징 세계>를 만들기 쉬운 방편일 것임

❷ 자원 공유와 교류의 플랫폼 역할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화사업에서 자원투입 축소 혹은 조직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는 득보다 실이 많지만, 똑같은 투입을 하더라도 업무절차 과정에서 공유할 자원을 찾는 것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임

- 생활문화팀과 예술교육팀, 또는 예술지원팀 등 서로 분리된 사업부서들이라도 문화 행정의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때 생산되는 정보나 자원을 공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사업영역이든 지원 또는 계약의 방식으로 전문단체와 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 그리고 사업성과물을 남기는 것, 일반시민 참가자 모집을 위해 홍보하고 그들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은 공통적인 절차임

-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단체정보, 프로그램 정보, 참여자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는 우선 사업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다르고, 통용되는 DB 체계를 갖추지도 않고 있기 때문임.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합 사용을 고려한 개인정보수집과 회원 관리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67)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계약과 자금지출을 위한 ERP 시스템 이외에 지원사업관리는 NCAS, e-나라도움, SCAS, 기타 사업별 별도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CAS를 개발하여 그 사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국비 보조금 사업은 선택의 한계가 있음. 회원관리의 경우 재단 대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운영하는 SNS의 회원이 통합관리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사업 간 협업과 연계는 이런 정보 공유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가로막는 것은 분절되거나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은 조직구조라기보다는 조직의 행정시스템, 조직문화,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큼. 이 경우 **재단 내 경영 시스템이 기관 내 자원 공유와 협력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되어 주어야 함**

- 우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참여자 정보, 성과물 아카이브, 홍보활동이 공유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함. 최근 예술교육, 지역문화 등 각 사업 영역마다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협력증진 차원에서 온라인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이 진행 중인데, 조직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난립할 경우 그 폐해가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임

- 자원 공유와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플랫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자원이 필요함. 온라인 자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플랫폼 역할에도 공간 등의 자원이 소요됨.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의 욕구,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치밀한 기획임. 현실적으로 각 영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합한 기획이 불가능하더라도, 향후 합의에 의해 필요한 자원의 DB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 모든 측면에서의 플랫폼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기관이 가진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평생학습진흥원과 문화재단이 온라인 예술강좌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문화재단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투자하기보다는 기 구축된 평생교육포털플랫폼을 활용하고, 문화재단은 콘텐츠와 예술단체 정보를 총괄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협업을 장려하려면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사업 주체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각자의 가치(성과)를 추출해가는 방식의, 소위 <가치 공동 창출 및 분배형 협업>이 가능하도록 조직 내 성과관리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생활문화팀과 예술교육팀이 시민예술동아리 활동 지원과 발표회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도 각자의 성과를 추출해갈 수 있음

- <재생산-주체 프레임>을 적용해 볼 때, 예술교육과 생활문화 사업은 서로 단계적으로 협업할 여지가 있음. 시민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수용 또는 비판의 <반응> 과정을 거쳐 스스로 자기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예술교육프로그램이 특히 예술가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써 <경험>과 <반응>의 단계에 집중한다면, 이후 시민이 주체적으로 <재생산>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생활문화프로그램이 작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임

- 생활문화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문화 활동이라는 성격상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영역임. 아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영역확보, 우수한 사례 만들기 차원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향후 그 역할이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임. 기초-광역 문화재단들 간의 적절한 협력관계 위에서 생활문화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 정책협력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작동되어야 함

VI

결론

1. 생활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2.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생활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 어느 분야에서나 공공정책 주체가 해야 할 일은 <영역 확보하기 / 사례 제시하기 / 의미 공유하기>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생활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지자체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과 광역/기초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 우선 공공정책이 개입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부응한 담론형성과 제도화 노력이 필요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적개입의 정당성과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게 됨. 생활문화 사업 관련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근거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이나 공유재산 등 공공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광역문화재단은 주로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는 정책영역 확보 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근거와 전문성 제공해야 함
- 제도적으로 확보된 정당성은 사업을 통해 실제로 정책의 지향가치가 구현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유지될 수 있음. 공공정책 주체는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함. 생활문화 사업의 실행을 통한 <사례 제시하기> 영역에서의 역할은 대부분 광역문화재단이 담당하게 됨. 생활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생활문화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파악됨. 예술교육프로그램이나 전문강사 지원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체험을 통해 주체적인 문화재생산 활동에 진입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술과 시민이 공생하는 생활문화의 생태계를 지원하는 적절한 방편으로 파악됨
- 생활문화 사업이 개인의 취향 추구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공적 지원이라고 공격받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문화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 우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하지만, 문화정책의 존재 가치 증명 차원에서 생활문화 활동이 사회공동체에 가져오는 가치와 순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담론형성 활동이 필요함. 이 과정은 또한 누구나 생활문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히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온라인 정보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위와 같은 정책담론 활동을 통한 <의미 공유하기> 영역에서는 공공행정과 민간영역의 중간에 위치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표 93] 공공의 세 가지 정책적 역할

세 가지 역할	① 영역 확보하기	② 사례 제시하기	③ 의미 공유하기
실천 방식	· 제도와 자원 확충 - 법령/조례 만들기 - 법정 계획 수립 - 전담 기구 지정 - 자원 배정 또는 확보	· 투자와 실행 - 직접 실행: 투자, 개발 - 간접 실행: 생태계 만들기 (정책적 신호 발신, 공적 활용)	· 관찰과 공유 - 현장소통(요구 파악) - 관찰·연구(대세 파악) - 담론과 의제 만들기 - 기록, 정보 공유 - 가치 공유(홍보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역문화재단 역할	· 지자체의 영역확보 활동 지원 - 조례 제정 -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의 생활문화 인프라 건립 시 기획, 자문 · 전담조직 설치(생활문화팀) · 타 정책영역으로 생활문화 확산, 연계 - 평생교육, 지역재생, 마을공동체 등 - 자원 공유와 교류의 플랫폼	· 생활문화 사업 - 생활문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광역,기초 단위 특화 사업 개발 · 광역생활문화센터 운영 -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 운영, 컨설팅의 컨트롤 타워 · 생활문화생태계 활성화 지원 - (초)광역생활문화축제 개최	· 생활문화 정책공론장 펼치기 - [재생산-주체]로 프레임 전환 위한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운영 - 광역-기초문화재단 생활 문화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 생활문화 정보플랫폼 운영 - 지역 생활문화 정보 및 데이터 센터 역할

2.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내부문헌 조사 위주 연구 방법론의 한계

- 2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코로나 19로 인한 이동의 물리적 제한 등 연구 실행의 제약으로 각 재단별 내부 자료와 문헌 조사 위주의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세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음.
- 특히, 코로나 19는 광역생활문화센터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의견과 니즈를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또한, 재단별 사례의 경우도 각 지역의 환경과 정책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재단 실무자들의 의견과 쟁점을 제시하는 데 그친 측면도 있음
- 광역생활문화센터를 운영 중인 곳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광역시/ 광역도의 제반환경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세밀하게 나누어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보고서의 한계임

2) 전문가 및 수혜자 의견 수렴 한계

-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전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활동 조사가 불가능해져, 생활문화 동아리 등 정책수혜자들의 의견과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2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생활문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FGI 등이 진행되지 못해 다양한 의견이 전문적으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제안의 다면적인 측면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본 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부록에 수록된 '정책위원 자문회의 회의록' 참고 가능함

3) 향후 과제

- 향후 광역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 분석을 중심으로 조직 운영, 정책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출이라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각 재단별 축적된 정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연구조사의 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며, 문화재단의 통계,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분석을 통한 지역문화정책 제언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한광연 회원 기관의 업무보고, 경영평가, 연차보고서 자료 취합 및 분석을 통해 광역문화재단 직원의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성 제고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지속적인 문화정책 보고서, 이슈페이퍼를 발간해야 할 것임
- 향후 포럼을 통해 주요 쟁점 및 보완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VII

참고문헌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 ▶ 김해보, 장원호, 「문화정책의 소통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적용 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2018.
- ▶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정책2.0 수립연구」, 2019.
- ▶ 정광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 임학순,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연구-지역문화재단 백서 발간 기초연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020.
-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2018.
- ▶ 지역문화진흥원,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2018.
- ▶ 지역문화진흥원, 「2020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2020.
-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원 재단 현황자료(종합)」, 2020.

단행본

- ▶ 피터 버거, 토마스 루크만 저, 하홍규 번역, 『실재의 사회적 구성』, 문학과 지성사, 2013.

웹페이지

- ▶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wcf.or.kr/ko/>
-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ggcf.kr/>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gcac.or.kr/index.php>
- ▶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gacf.kr:2035/coding/main.asp>
- ▶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jcf.or.kr/cf/index.do>
-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dgfc.or.kr/main>
-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dcaf.or.kr/web/index.do>
- ▶ 두송생활문화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dosong59>
- ▶ 부산문화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bscf2009>
-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scf.or.kr/00main/main.php>
- ▶ 부산사하구청 홈페이지, <https://www.saha.go.kr/main.do> (2021 사하구 문화관광과 예산서)
- ▶ 부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1918.bscf.or.kr/index.php>
- ▶ 부산시 및 부산동구청 홈페이지 / 이바구길 홈페이지 http://www.2bagu.co.kr/index_bsdonggu
-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index.do>
- ▶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jcf.or.kr/>
- ▶ 울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uacf.or.kr/>
- ▶ 인천광역시 생활문화플랫폼, <https://www.ilcp.or.kr>
-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ifac.or.kr/>
- ▶ 전남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jncf.or.kr/jact/index.do>
- ▶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s://www.jbct.or.kr/>

문화재단 내부 자료

-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jfac.kr/>
- ▶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rcda.or.kr/2020/>
- ▶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cacf.or.kr/_kor/
- ▶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cbfc.or.kr/home/main.php>

- ▶ 강원문화재단 2020년 경영전략
- ▶ 강원문화재단 2021년 경영전략
- ▶ 경기문화재단 2020년 종합경영계획
- ▶ 경기문화재단 2021년 종합경영계획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20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 ▶ 경북문화재단, '2021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주관 기관 공모' 공고문
- ▶ 광주문화재단 2020 주요업무계획
- ▶ 광주문화재단 2021 주요업무계획
- ▶ 대구문화재단 2021 경영계획(본예산)
- ▶ 대전문화재단 2020년 예산서
- ▶ 대전문화재단 2021년 예산서
- ▶ 부산문화재단 2013 부산 문화로 통 시민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방안 포럼 자료집
- ▶ 부산문화재단 2013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사업 결과보고
- ▶ 부산문화재단 2014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 일생예제 정산 및 실적보고서
- ▶ 부산문화재단 2016년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 ▶ 부산문화재단 2020 연차보고서
- ▶ 부산문화재단 2020년도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 ▶ 부산문화재단 2021년도 경영목표 및 예산운영계획
- ▶ 부산문화재단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서
-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추진 계획
-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 지원 실행위원회 개최 결과(1차)
-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 지원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 커뮤니티 문화 지원 추진계획
- ▶ 서울문화재단 2018 「2017년 생활문화 활성화 결과보고」
- ▶ 서울문화재단 「2018년 생활문화 활성화 결과보고」
- ▶ 서울문화재단 「2019년 생활문화 활성화 결과보고」
- ▶ 서울문화재단 「2020년 생활문화 활성화 결과보고」
- ▶ 서울시 2016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 ▶ 서울문화재단 2021 주요업무계획
- ▶ 서울문화재단 2021 세출예산 세부내역
- ▶ 세종시문화재단 2020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 ▶ 세종시문화재단 2021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 ▶ 울산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울산문화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인천문화재단 2020년 세입세출예산 총괄최종예산
- ▶ 인천문화재단 2021년도 경영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 ▶ 인천문화재단 사업기본계획
- ▶ 인천문화재단 사업결과보고
- ▶ 전남문화재단 2020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 ▶ 전남문화재단 2021년 경영목표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0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0년 본예산
-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1년도 예산서
-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1년도 종합경영계획
- ▶ 제주문화예술재단 2020년 주요업무계획
- ▶ 제주문화예술재단 2021년 주요업무계획
- ▶ 제주문화예술재단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 충남문화재단 2020 주요업무계획
- ▶ 충남문화재단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 충남문화재단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
- ▶ 충남문화재단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충북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 ▶ 충북문화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1. 17개 광역시도 본부 및 팀 단위 업무분장
및 부서명칭 상세 분석자료
2. FGI 주요 내용 정리
3. 정책위원 자문회의 회의록



부록

1. 17개 광역시도 본부 및 팀 단위 업무분장 및 부서명칭 상세 분석자료

[분석자료 1] 광역문화재단의 본부 단위 명칭사용 현황

재단 (출범 연도 순)	사업 ⁶⁹⁾ 담당 본부 명칭								경영/정책 담당 본부 명칭	비고 (설립일)
	예술	문화	시민	생활	교육	지역	시설/공간	기타 (지역특화)		
경기 문화재단	*	문화예술 본부			*	지역문화 교육 본부	박물관, 미술관		경영본부, 정책실	1997.07.03
강원 문화재단		문화사업 본부						평창대관령 음악제 운영실, 강원국제 예술제 운영실	경영기획 본부	1999.12.28
제주 문화예술 재단 ⁷⁰⁾	(예술지원팀)	(미래문화팀)		(일상문화팀)	(문화예술 교육팀)	(지역문화팀)	(공간기획팀, 서부권사무소)		경영기획실	2000.12.30
서울 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창작기반 본부	문화시민 본부			예술교육 본부		극장운영단	예술청운영단	경영기획본부, 정책협력실	2004.03.15
인천 문화재단 ⁷¹⁾	(창작지원부)		(시민문화부)		(인천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인천문화 유산센터)	(인천 아트 플랫폼)	(평화문화 예술 교류사업단)	경영본부, 정책협력실	2004.12.10
부산 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생활문화본부					기획경영실, 정책연구센터	2009.01.21
전라남도 문화재단 ⁷²⁾		(문화사업팀)			(문화 예술 교육팀)	(문화재 연구소)	(공연예술 진흥팀)	국제수목 비엔날레 사무국	(기획경영팀)	2009.05.29.
대구 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예술인 지원센터		시민문화본부						경영지원본부, 문화정책실	2009.07.29

재단 (출범 연도 순)	사업 담당 본부 명칭								경영/정책 담당 본부 명칭	비고 (설립일)
	예술	문화	시민	생활	교육	지역	시설/공간	기타 (지역특화)		
대전 문화재단	*	문화예술본부					박물관		기획경영본부	2009.09.24
경남 문화예술 진흥원	*	문화예술본부						콘텐츠산업 본부 ⁷³⁾	경영기획본부	2010.02.18 기관통폐합 2013.7.1
광주 문화재단	예술상상본부, 예술인보듬 소통센터	문화융합본부					문화공간본부		경영혁신본부	2010.12.27
충북 문화재단 ⁷⁴⁾		(문화예술팀)		(생활문화팀, 문화복지TF)	(예술교육팀)			(무예 영화제팀)	(기획전략팀, 행정지원팀)	2011.11.30
충남 문화재단		문예진흥본부							기획경영본부	2013.12.17
전라북도 문화 관광재단		문화예술 진흥본부						관광진흥본부 공연기획 추진단	경영기획본부	2015.12.24.
세종시 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						공연사업본부			2016.11.29
울산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정책연구실	2016.12.28.
경북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한복진흥원, 문화재연구원	사무처	2020.01.02

69) 홍보, 국제교류, 기부 사업 담당 부서가 경영본부 소속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업담당 본부의 명칭만 파악함. 국가단위 문화정책 이슈가 지역에
서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기위한 것으로서, 본부명칭에 사용되는 언어에만 집중함
70) 경영기획실 이외 사업부서는 “팀제”로 대표이사 직속 편제. 이하 본부 직제가 아닌 “부”, “팀”제 조직의 경우 ()로 표시
71) 경영본부 이외 사업부서는 “부”제로 대표이사 직속 편제
72) 사무처장 아래 “팀제”로 편제

73) 콘텐츠진흥원이 문화재단과 통합되면서 문화산업 업무영역이 별도 존재하는 독특한 사례임을 감안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분류함
74) 사무처장 아래 “팀제”로 편제

[분석자료 2] 광역문화재단의 팀 단위 명칭사용 현황

재단 (출범연도순)	예술지원	문화사업 / 시민문화			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시설	지역특화사업
		문화진흥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창작지원 예술인복지 예술단운영 레지던스 청년예술가지원 융합예술	문화사업 기획사업 축제사업 문화교류	문화향유 문화이용권 문화의날 문화다양성	생활예술지원 동아리 지원 생활문화축제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예술교육 인력양성	문화도시 문화재생 문화자원 문화분권 전통보전	문예회관 창작공간 문화공간	비엔날레 문화재연구 관광문화산업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예술인지원팀 경기예술인 지원센터	정책사업팀	(정책사업팀)	생활문화팀 경기생활 문화센터	예술교육팀	지역문화실 경기학센터 공공예술팀	박물관 미술관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교류협력팀)		교류협력팀		문화접근성팀			평창대관령 음악제운영실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
제주 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	미래문화팀	(일상문화팀 ⁷⁵⁾)	일상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지역문화팀	공간기획팀 서부권사무소	
서울문화재단	예술기획팀 예술지원팀 융합예술팀 예술청팀 청년예술청팀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창작공간들)	축제팀	(생활문화팀)	생활문화팀 (지역문화팀)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용산예술교육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지역문화팀	시민청팀 창작공간들 기획제작팀 무대기술팀 삼일로창고극장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인천아트플랫폼)		시민문화부	(시민문화부)	인천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 유산센터	인천아트 플랫폼 트라이보울 한국근대 문학관	평화문화예술 교류사업단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⁷⁶⁾ 청년문화팀 뉴택트TF팀 (문화공간팀)	(문화공유팀)	문화공유팀	(문화공유팀 ⁷⁷⁾)	문화교육팀	문화유산팀	문화공간팀	(문화유산팀 ⁷⁸⁾)
전라남도 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공연예술 진흥팀 ⁷⁹⁾)				문화예술교육팀	문화재연구소	공연예술 진흥팀	국제수목 비엔날레사무국
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대구예술발전소운 영팀 예술인지원팀 창작창업지원팀	축제운영팀	시민문화팀	생활문화센터 운영팀	문화예술교육팀			

재단 (출범연도순)	예술지원	문화사업 / 시민문화			예술교육	지역문화	문화시설	지역특화사업
		문화진흥	문화기본권	생활문화				
	창작지원 예술인복지 예술단운영 레지던스 청년예술가지원 융합예술	문화사업 기획사업 축제사업 문화교류	문화향유 문화이용권 문화의날 문화다양성	생활예술지원 동아리 지원 생활문화축제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예술교육 인력양성	문화도시 문화재생 문화자원 문화분권 전통보전	문예회관 창작공간 문화공간	비엔날레 문화재연구 관광문화산업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예술경영 복지팀 ⁸⁰⁾		시민문화팀	(시민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전통진흥팀)	전통진흥팀 문화공간 운영팀 ⁸¹⁾ 문학관운영팀	
경남문화예술 진흥원	예술진흥팀 예술인복지센터		지역문화팀	(지역문화팀)	문화예술 교육센터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콘텐츠진흥팀 차세대 문화산업팀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듬소통센터 창작지원팀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창의도시팀 지역콘텐츠팀	시설관리운영팀 빛고을 시민문화팀 전통문화팀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문화복지TF)		(생활문화팀) 문화복지TF	생활문화팀	예술교육팀			국제무예엑션 영화제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사업기획팀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예술교육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예술인복지 증진센터		문화사업팀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팀			공연기획추진단 관광진흥팀 관광사업팀 관광마케팅팀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대중문화진흥팀	축제문화팀	(생활문화팀)	생활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전략기획팀 ⁸²⁾)	공연장운영팀 공연장기획팀 문화예술회관팀 시설안전팀 무대예술팀 (대중문화 진흥팀 ⁸³⁾)	
울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축제추진단	지역문화팀	(지역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정책연구실 ⁸⁴⁾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문예진흥팀)	(문화사업팀)	문예진흥팀		문예교육팀			한복진흥원 문화재연구원

75) 본부단위 분석과 달리 팀 단위 분석은 분장된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영역에 기입한 것임. <문예진흥>, <지역문화>, <문화사업>을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 성격과 관계없이 <지역문화팀>, <문화사업팀>, <문예진흥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문화사업/생활문화/시민문화/문화복지 업무영역으로 분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사업의 중요도 파악이 불가하므로 부서명칭으로 주요 지향점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 분장된 기타사업 영역에도 ()로 표시함

76) 팀 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77) 팀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

78) 조선통신사 사업은 국제교류사업이라기보다 부산의 특화사업으로 분류함

79) 독립국악단 운영, 대표 브랜드 공연 제작, 남도소리올림터 운영

80) 예술인복지사업을 담당하는데 기획경영본부에 소속됨

81) 대전예술가의집 등 수탁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데 기획경영본부에 소속됨

82)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업무가 경영기획실 내 전략기획팀에 편재

83) 음악창작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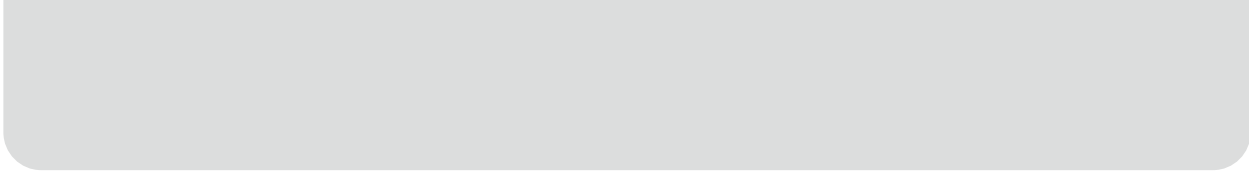
84)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정책연구실에서 담당

2. FGI 주요 내용 정리 (2021. 12. 03.)

	질문 내용	1차 광역문화재단 의견	2차 경기지역 문화재단 의견
1	생활문화 사업의 차별화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업보다 시민의 주체성, 자발성, 당사자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교육이 매개자, 예술 강사 중심이라면 생활문화 사업은 시민 중심 - 시발점이 수요자의 욕구 (수월성을 가진 전문가의 욕구 X) · 높은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특성에 따른 자율적 공간 구성 등 · 눈에 띄는 차별화 전략 없음 ·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네 문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교육이 강사 중심의 사업이라면 생활 문화는 공동체 중심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활동가 양성 시, 예술 강사 역할이 아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역할임을 강조함
2	거점형 광역생활 문화센터의 역할과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군, 시군 기관들 간 네트워크 형성 · 교류 및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지자체 행정구역 하나가 하기에 효율성이 낮은 사업 찾아서 연계 · 생활문화 정보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공간 운영 개념에서는 기초 생활문화 센터와 차이가 거의 없음 · 기초 생활문화센터 사업 홍보 · 온라인 생활문화 쪽에서 문화적인 개입 · 기초의 좋은 생활문화 사업 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의 허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 시군과의 연계사업 · 네트워크 기반 형성 · 기초와 비슷한 지원 사업을 하기보다 지자체의 생활문화센터 교육(컨설팅사업)을 하면 좋겠음 ·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콘텐츠를 공유해 지자체 기초문화 재단으로 전환할 것임 · 공간이 아닌 플랫폼 기능 강조 · 기초문화재단 사업 홍보
3	생활문화센터의 적합한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단체를 지원하여 생활문화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공공과 민간의 중간적 입장에 있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들어와도 예산 권한이 없으면 반쪽짜리 운영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지를 가진 지역의 활동가들이 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민간단체 운영 시, 폐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 있음 · 현실적으로는 민간과 행정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4	광역생활문화센터와 기초생활문화센터 연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로 생활문화 업무 담당 부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사업을 통해 연계되어 만날 때 진정한 네트워크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기초 간 협력 사업 필요함 · 생활문화 사업 관계망을 형성하여 데이터 자료를 남겨놓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네트워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5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등 지향 가치에 따른 구분은 필요함 · 생활문화동아리 연합회의 폐해가 큼에도 정치적 이유, 성과 측정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변하지 않고 있음 · 장리적 교류들을 하는 생활문화 사업의 경우 민간 영역을 침범하게 될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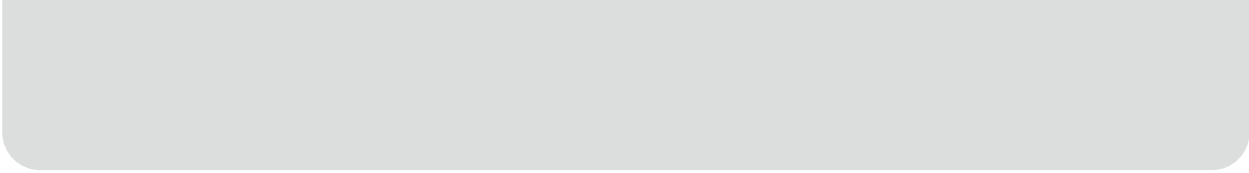
3. 정책위원 자문회의 회의록

광역생활문화센터 정책연구 정책위원 회의 요약	
일시	2022. 01. 19. 수. 오전 10시
장소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
참가자	조정운(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황순주(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김지원(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조선희(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손동혁(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전영주(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교육팀장), 원항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김화자(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팀장), 구혜경(전북문화관광재단 정책연구팀장), 고성은(강원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김희식(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박종건(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간사), 박선미(연구보조원)
논의 주제	1. 광역생활문화센터 현황조사 및 정책제안에 관한 보고서 평가 2. 보고서 관련 포럼 방향성 및 일정 논의
주요 토론 사항	<p><보고서에 관한 의견></p> <p>1) 전반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사업 및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현황 자료 정리가 잘 되어 있음 · 생활문화 사업 시작 단계에 있는 재단들의 경우, 본 보고서의 생활문화 개념 및 사업 관련 데이터 정리 부분을 통해 사업 전반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없는 점이 아쉬움 <p>2)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지자체 등 각각 다른 층위에서 해야 하는 역할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해주면 좋겠음(ex. 광역시형(形), 광역도형(形), 기초형(形)과 같이 2-3개 정도의 케이스별 모델 제시) · 생활문화 사업을 확장, 활성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음 · 광역도는 지역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상 파악을 위해서 광역시와 광역도가 구분되어 설명되는 것도 필요 · 광역단위의 생활문화센터가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생활문화정책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야 하는지 정의하는 부분 추가 될 필요가 있음 · 협의체 구성(안)을 연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ex. 필수구성 분야, 인원, 협의체의 중장기 운영을 위한 운영방안 등) <p>3) 연구의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보고서는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됨. 조사가 광역생활문화센터를 운영 중인 곳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광역시/ 도/ 기초로 세밀하게 나누어 조사되지 못한 부분은 보고서의 한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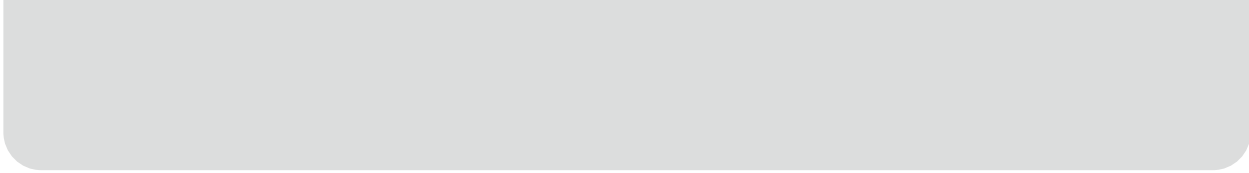
memo

Lined area for writing on the left page.



memo

Lined area for writing on the right page.



memo

Lined area for writing the memo.